

2010 연구보고서(수시과제) - 1

2010 지방선거와 남녀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김원홍 · 김은경

KW/DI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2010 연구보고서(수시과제)-1

2010 지방선거와 남녀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연구책임자 : 김 원 흥 (본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 김 은 경 (본원 전문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발 간 사

2010년 6월에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으로 생활정치와 직결되는 문제들을 처리하는 과정으로서 여성들이 가진 능력을 보다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논의가 많았고, 이에 각계의 노력들이 이어져 왔습니다.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깨끗한 정치문화 정착을 통한 민주정치 발전을 위해 유권자의 반수를 차지하는 여성유권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시대정신으로 결성된 ‘2010지방선거남녀동수범여성연대’는 여성공천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제5회 지방선거에서는 여성 당선인이 수적으로도 232명 증가하였을 뿐 아니라, 의석 차지율도 5.6%p 상승한 17.2% 비율을 차지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유권자 대상 연구는 1980년대에 간헐적으로 있었고, 1990년 이후 여성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에 관한 조사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유권자 조사는 예산이 많이 들어 그간 정치에 관심이 있는 일부 학자나 여성단체가 중심이 되어 연구하여 왔을 뿐, 실제로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원에서는 2010년 지방선거를 맞아 여성후보가 출마한 수도권 지역의 남녀유권자 정치의식과 투표행태 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투표행태 변화를 살펴보고, 향후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기초 및 정책자료를 발간하여, 국민의 민주시민의식을 함양시키고 남녀가 함께 만들어 가는 정치문화 창출과 합리적인 선거제도 개선에 활용할 수 있는 최신 정보와 여성정치참여 현장에서의 다양한 의견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의 결과가 향후 여성들의 정치참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 및 보다 많은 참여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본 연구과제의 수행에 적극 도움을 주신 각 관계자 및 당직자 여러분, 그리고 본 연구를 위하여 수고하신 연구진들께 감사드립니다.

2010년 9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 장 김 태 현

연구요약

I. 연구목적 및 방법

- 본 연구는 2010년 지방선거를 맞아 기초자치단체장 여성후보가 출마한 수도권 지역의 남녀유권자 정치의식과 투표행태 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투표행태 변화를 살펴보고, 향후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기초 및 정책자료로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과제는 여성가족부 요청과제로 우리나라 국격 향상을 위하여 정치부문에서 지속적으로 여성대표성 증진을 위한 남녀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의 성차에 대한 조사를 통해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남녀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와 여성대표성 및 여성계의 활동이 여성정치참여 확대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문헌연구와 2010 전국동시지방선거 동향조사분석, 관계전문가 면담 및 자료회의 개최 등의 방법을 통해 여성정치의 세력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II.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남녀유권자, 여성대표성 및 여성계의 활동 고찰

1.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남녀유권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율 조사·분석」에 따르면, 선거인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전국 21,162,998명(54.5%)이 선거에 참여하였다.
- 유권자의 남녀 구성비는 남자 49.3%(19,149,251명) 그리고 여자 50.7%(19,701,908명)로 나타났다. 성별·연령대별 투표율을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60세 이상이 76.3%로 가장 높은 반면, 20대 후반이 34.9%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투표율도 점차 높아졌다.
- 여성의 경우도 20대 후반이 39.5%로 가장 낮고, 60세 이상이 64.0%로 가장 높으며, 마찬가지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투표율도 높아졌다. 19세와 20대 전반

의 경우 여성투표율이 같은 연령의 남성에 비하여 10% 이상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남성과 비교하여 20대 후반과 30대 전후반 여성의 투표율이 남성에 비하여 5% 이상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

2. 여성대표성

-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여성의원 진출이 늘어났다. 실제로, 1991년 지방자치 재개 이후 여성의원 비율은 기초의회 의원이 1991년 0.9%에서 1995년 1.6%, 1998년 1.6%, 2002년 2.2%(77명), 2006년 15%(434명), 2010년 21.6%(626명)로 늘어났다. 광역의회의 경우 1991년 0.9%, 1995년 5.8%, 1998년 5.9%, 2002년 9.2%(63명), 2006년 12.0%(88명), 2010년 14.8%(113명)로 늘어났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2006년 1.3%(3명), 2010년 2.6%(6명)이다. 그리고 2010년도 처음 실시한 교육감 선거의 경우 여성당선자는 6.3%(1명), 교육의원 1.2%(1명)이다.
- 제1회 지방선거 이후 여성후보자 비율 증가 추세를 살펴보면, 제1회에서 제3회까지는 소폭 상승 모습을 보이다가 제4회에서 조금 큰 폭의 상승 모습을 보였고, 이번 선거에 들어서는 광역-기초의원 모두 2배에 가까운 증가폭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이번 선거에 지역구 ‘여성공천의무할당제’가 도입되면서, 각 당이 이에 대응한 노력의 흔적이라 해석할 수 있다.

〈1991, 1995, 1998, 2002, 2006, 2010 광역의회 의원선거 여성후보자 및 당선자수〉

연 도		후 보 자 수						당 선 자 수					
		전 체		여 성		여성/전체(%)		전 체		여 성		여성/전체(%)	
1991년		2,885		63		2.2		866		8		0.9	
1995년	지역구	2,627	2,449	119	40	4.5	1.6	972	875	56	13	5.8	1.5
	비례		178		79		44.3		97		43		44.3
1998년	지역구	1,755	1,571	91	37	6.1	2.4	690	616	41	14	5.9	2.3
	비례		180		54		30		74		27		36.5

연 도		후 보 자 수						당 선 자 수					
		전 체		여 성		여성/전체(%)		전 체		여 성		여성/전체(%)	
2002년	지역구	1,740	1,531	164	48	3.1	3.1	682	609	63	14	9.2	2.3
	비례		209		116		55.5		73		49		67.1
2006년	지역구	2,279	2,068	243	107	10.7	5.2	733	655	88	31	12.0	4.7
	비례		211		136		64.5		78		57		73.1
2010년	지역구	2,046	1,779	333	154	16.4	8.6	781	680	113	55	14.8	8.1
	비례		267		179		67.0		81		58		71.6

- 정당별로 살펴보면, 광역의회에서는 이번 선거에서 약진한 민주당이 63.4%라는 여성후보 당선율을 보였으며, 한나라당이 37.7%, 민주노동당이 36.8%의 당선율을 보였다. 이는 총 여성 후보자 당선율인 35.7%를 상회하는 수치이다. 기초의회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75.2%의 당선율을 보였으며, 한나라당이 60.2%, 민주노동당은 33.8%의 당선율을 보였다. 기초의회의 총 여성 후보자 당선율은 49.6%이다.
- 총 여성 후보자 당선율은 남성후보자 당선율과 비교해 보면 그리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할 수 있으며, 오히려 기초의회의 경우는 여성(49.6%)이 남성(42.5%)보다 당선율이 더 높음을 볼 수 있다.
-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출된 기초의회 의원들의 전직을 비교해 보면, ‘구시군의원’(1,047명, 36.3%), ‘관리직’(824명, 28.5%), ‘정치인’(477명, 16.5%) 등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구시군의원’과 ‘시도의원’(3명, 0.1%), ‘정치인’ 이렇게 크게 보면 ‘정치가’ 군에 속하는 이들이 총 1,527명으로 총 의원수의 과반수 이상(53%)을 차지하고 있다. 여성의원들의 경우도 비슷한 추세를 보인다. 626명의 여성의원 중, ‘정치인’(168명), ‘구시군의원’(133명), ‘시도의원’(2명) 이렇게 ‘정치가’ 군에 속하는 이들이 총 303명으로 총 여성의원들의 48%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이 ‘관리직’으로 148명(24%)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향후 여성의 당선비율을 높이기 위해 남녀 구분 없이 정당 활동 및 의원 경력이 있는 정치가 군에서 가장 많은 당선인 비율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3. 여성계의 활동

-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이하여 여성계가 주력한 것은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과 여성 후보 발굴 및 풀 구축, 선거 지원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여성계는 금번 지방선거를 맞이하여, 일차적으로 정당의 공천심사 과정에서 여성에게 불리한 조항을 수정하고, 남녀동수의 공천자를 배출할 수 있도록 각 정당을 규제할 수 있는 제도 설립 및 개선에 총력을 기울였다.
- 이러한 노력은 “2010지방선거남녀동수범여성연대”(공동대표 김정숙(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남윤인순(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의 결성으로 이어졌다. “2010지방선거남녀동수범여성연대”(이하 ‘연대’로 지칭)는 2009년 11월 5일 제5회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의회에서의 평등정치 실현을 위한 활동을 적극 전개하는 등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주요 활동목적으로 하여 각계 여성단체들이 참여하여 결성한 범여성계 연대조직이다. 이 조직은 우선 ‘연대’ 출범 전 준비위원회 단계에서 각 참여단체 연명으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2010 지방선거 여성참여확대를 위한 여성계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면담 추진을 통해 공직선거법 등 지방선거관련 제도 개선 논의에 여성들의 의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시켰다.
- 연대 출범 이후에는 “남녀동수참여”라는 목적을 설정하고, 우선적으로 선출직과 비례직을 포함하여 <2010 지방선거 여성참여 50% 및 각 당 공천심사위원회 50% 여성참여>를 요구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각 단체별로 여성후보자를 발굴하고 추진하는 것을 지원하였다. 이들의 움직임은 특히 각 정당의 여성공천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게 만든 원동력을 제공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III.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나타난 유권자의 투표행태 조사 및 분석

- 이번 조사대상 남녀 유권자들은 정치 및 선거에 대한 평소의 관심도에 대해 남성은 36.1%, 여성은 26.1%가 관심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연령대가 높을수록 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컸다. 선택후보의 결정시기에 대해서 투표 한달 이전에 결정했다는 응답이 남녀(34.4%, 26.8%) 모두 많았으며, 만 19~29세

(12.7%)와 만 30~39세(22.8%)보다는 만 40~49세(31.6%)와 만 50대 이상(42.0%)에서 지지후보를 일찍 결정하였다.

- 구청장에 출마한 여성후보의 인지는 이번 지방선거를 통하여 알게 된 경우가 많았다. 여성후보에 투표한 응답자들은 남녀 유권자 모두 정당을 우선순위로 고려하였으나, 남성의 경우 인물, 여성의 경우 공약을 좀 더 많이 고려하였다.
- 여성후보 출마의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여성정치 참여 확대라는 응답이 전체 의견의 26.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별 의미 없음이 22.9%로 나타났다. 여성정치참여 확대라는 응답의 경우 남성 21.4%, 여성 30.8%로 나타나 남성보다는 여성이 여성의 정치참여확대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여성후보를 인지하고 결정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매체는 선관위 홍보물과 주위 사람들과의 대화였으나, 후보의 결정에서 남성보다는 여성이 선관위 홍보물의 영향(남성 35.3%, 여성 47.5%)을 많이 받았고, 여성보다는 남성이 신문과 인터넷을 통한 영향을 많이 받았다. 한편, 선관위 홍보물은 여성후보 인지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49.2%)을 미쳤으나 결정(41.4%)에 있어서는 그 영향력이 감소하였다.
- 여성 기초자치단체장이 지금보다 더 증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응답자 중 남성 61.7%, 여성 59.5%가 지금보다 더 증가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낮은 연령대(만 19~29세 78.5%)와 학력이 높은 응답자에서(대졸 이상 71.3%), 그리고 고소득층(500만원 이상 71.3%)에서 높은 응답이 나타났다.
- 광역단체장인 시도지사로 여성후보가 출마하는데 대한 찬반 견해는, 남성 80.0%, 여성 82.2%가 찬성하여 압도적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여성 시도지사의 당선 예상 시기에 대해서는 남성 54.2%, 여성 60.4%가 앞으로 5년 이내로 내다보았다.
- 전반적으로 금번 지방선거에서의 후보 선택은 개인적 공약(<표 III-24> 참조)보다는 ‘투표시 영향을 준 사건(<표 III-25> 참조)’에 대한 반응이 훨씬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지방선거와 중앙정치와의 연관성이 크다는 것으로, 중앙당에서의 여성 활동이 중요함을 시사하는 내용이다. 특히 유권자의 선택은 주요정당으로 쏠리는 경향(<표 III-7>, <표 III-8> 참조)이 있으므로 주요 정당에서의 여성활동이 곧 여성정치참여 확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IV. 여성의 정치세력화 강화 방안

- 우리나라의 여성유권자 정치의식 향상을 위한 연구나 자료가 부족한 상태에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마치고 본 연구는 여성후보가 출마한 지역을 중심으로 남녀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를 조사하였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금년은 1995년 북경세계대회를 개최한지 15주년 되는 해로서, 북경행동강령 7을 점검하는 향후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정치부문에 여성의 대표성이 증가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유권자의 50%가 넘는 여성유권자들이 올바른 정치의식을 지니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많은 여성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여성후보나 여성을 위한 정책을 지지하는 정치인들이 당선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여성유권자들의 정치세력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 여성유권자 개인의 역할

- 유권자로서 여성정책 제안에 적극 참여
지방자치는 생활정치이고 생활의 중심에는 여성이 있다. 최근에는 공공기관이나 언론매체 등에서 ‘참여마당’이 활성화되고 있어서 누구나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정책제안을 할 수 있다. 특히 지방의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책 모니터링이나 언론매체 등에서의 발언대 등을 이용하면 여성유권자들이 손쉽게 여성정책 입안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2. 정부의 역할

- 각종 공직선거시 남녀유권자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 조사연구 지원
여성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에 관한 조사연구는 1990년 이후 부분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투표행태 및 정치의식 조사연구는 예산이 많이 들어 그간 정치에 관심이 있는 일부 학자나 여성단체가 중심이 되어 연구하여 왔으나 미흡한 실정이다. 앞으로 각종 공직선거에 있어 여성유권자의 투표행태 및 정치의식에 관한 조사연구 지원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연구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구의 지속적인

연계성과 비교분석을 위하여 한국여성개발원에 전담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 각종 공직선거에 있어서의 성별 통계 분리 산출 의무화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종 선거결과에 대한 통계를 집계하고 있다. 그 간의 각종 선거결과를 볼 때, 선거결과에 대해 때로는 성별로 분류된 통계를 제시하기도 하였지만, 상당부분의 선거결과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 앞으로 각종 공직선거에서 남녀간 성차 및 성별 분류를 통한 여성정책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선거결과에 있어 성별분리 통계의 산출 의무화가 요구된다.

- 선거관리위원회에서의 성 인지 능력 향상교육 강화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시민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와 ‘선거연수원에서의 연수’를 실시하고 있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된 선거 연수원에서는 소속 위원과 직원의 전문교육뿐만 아니라 선거 정당·후원회 등 관계자와 대학생·교사·일반 국민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고 교육 자료를 개발·보급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교육과정에 성 인지 능력 향상교육을 일정과목 편성하여 추진하는 것은 여성정치참여 기회 확대를 도모할 것이다.

- 여성가족부의 적극적인 여성 정치참여 정책 추진

여성의 정치진출이 여성의 권익을 대변하고, 법률 제·개정, 정책결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함으로써 양성평등 실현이 가능하다. 여성 등 시민단체가 단체 활동을 통해 성숙한 선거문화 조성(유권자의 권리, 후보자 선택, 입후보자의 소양교육 등) 사업 추진시 여성가족부의 공동협력사업을 통해 예산 지원이 있어야 한다(단,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필요하다).

3. 정당의 역할

- 국회 및 지방의회 지역구 여성후보 공천 의무화 및 정치의식 변화 촉구

2010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당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운영하였고, 여야간 합의를 통하여 지방선거 지역구에 여성후보 국회의원 선거구별 기초 또는 광역의회 후보 1명 이상 의무공천(시구에 해당, 군은 제외)하였다. 그 결과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었으나, 지역구 여성 후보자 및 당선자가 약간 늘었다. 그러나 2006년 대비 2010년에는 그 수가 증가하긴 했어도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앞으로 정치적 대표성 확보를 통한 국가선진화를 이루기 위하여

무엇보다 국회 및 지방선거의 지역구 30% 의무공천제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남성정치인의 의식변화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 여성지방자치단체장 후보 지역별 공천 의무화 제도 도입

지방화시대를 맞아 생활정치를 기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장에 여성참여 확대는 필수적이다. 전 세계가 함께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정책과 여성 친화적 정책”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보다 많은 여성자치단체장이 나오는 것이 지역발전과 지역균형에 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하여 시·도 자치단체장 여성후보 20%, 구·시 30%, 군 20% 여성후보 공천할당 의무화를 제도로 도입하는 것이 요구된다.

- 공천심사위원회에 일정비율 여성참여 의무화 제도 도입

공천심사위원회에 일정 비율 여성위원의 참여를 의무화하여 공천과정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2010지방선거남녀동수범여성연대’는 공천심사위원회에 여성심사위원 비율 50%를 의무화할 것을 주장하여 왔다. 본 연구에서 여성당선자의 증가로 ‘사회 각 분야 여성참여증대(32.9%)’, ‘생활정치 활성화(23.8%)’, ‘부정부패 축소(22.4%)’ 등의 사회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 유권자의 수가 높은 비율(<표 III-33>)을 보이고 있으므로 사회정의실현을 위해서도 여성 후보 공천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 주요 당직에 여성할당제 도입

이번 조사에서 보았듯이 특히 중앙당에서의 여성 활동이 중요함을 볼 수 있었다. 특히 유권자의 선택은 주요 정당으로 쏠리는 경향(<표 III-7>, <표 III-8> 참조)이 있으므로 주요 정당에서의 여성활동이 곧 여성정치참여 확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성들의 경우 지구당에서 비중의 정도가 적은 당직을 담당하고 있으며, 중앙당 차원의 당직을 맡는다 해도 형식적 수준으로 비중이 낮은 당직을 맡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다 보니 여성들은 공천과정에서 누락될 가능성이 컸고, 그것이 현실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실은 정당에서 여성들이 주요 당직 진출에 한계를 가지면서, 주요 당무나 국정 운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없게 되고, 또한 공직 선거 시 여성들이 공천과정에서 배제되어 여성의 의회진출에도 장애요인으로 남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정당들은 특히 중앙당 주요 당직자에 일정비율 여성

을 포함시키는 정책을 의무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 여성정치인의 지속적인 육성 및 발굴 시스템 구축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는 지난 2008년 4월 9일 제18대 총선 이후 4월 19-23일까지 만 19세 이상의 남녀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여성후보가 출마한 지역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정치의식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유권자들은 여성후보가 출마한 의미에 대하여 “남녀평등에 기여했다고 생각한다”가 38.7%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그런데, 주요 정당들의 여성후보 공천이 낮은 이유에 대해 “정당들의 여성후보 발굴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 때문에”가 41.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유권자들은 정당의 역할로 “여성정치인 육성” 및 “여성정치인 발굴”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간 정당들은 비례대표제 여성할당제를 도입했다는 명목 하에 여성후보 육성 및 발굴에 소극적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정당들은 당차원에서 여성능력개발을 위한 여성정치학교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여성정치 네트워크를 만들어 인적 풀을 확장해야 할 것이다.

4. 여성단체의 역할

- 여성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정치교육의 내실화 및 전문성 강화

현재 우리나라에서 여성정치인 양성 및 여성유권자를 대상으로 정치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단체는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한국여성지도자연합, 한국여성정치연맹, 부산의 여성정책연구소, 한국여성연합, 여성민우회, 걸스카웃 등이 있다. 그러나 여성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은 대부분 프로그램이 전문화되어 있지 않고 일회성의 성격이 강하므로, 내실화를 위하여 교육방법에 있어 피교육자가 직접 참여하는 방식의 교육방법으로 전환하고 지역별로 관련 전문분야의 강사은행을 설치하여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한다. 그리고 교육 이수생들이 실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여성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주어야 할 것이다.

- 여성단체들의 여성들에 대한 지속적인 정치교육 및 유권자운동의 확대를 통한 정치세력화

이번 지방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율 조사·분석」에 따르면, 유권자의 남녀 구성비는 남자 49.3%, 여자 50.7%로 나타났다. 유권자의 평균투표율은 54.9%였는데, 성별 투표율을 비교해 보면 남성이 55.1%, 여성이 54.7%로 남성투표율이 약간 높게 나타났다. 유권자의 남녀 구성비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성별 투표율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은 여성유권자의 적극적인 투표참여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그간 우리나라의 여성단체들은 여성의 낮은 정치적 지위를 극복하기 위하여 남녀후보 평가 등의 유권자운동을 전개해왔다. 특히, 여성단체들의 이러한 일들은 우리나라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커다란 기반이 되어 왔다. 앞으로도 여성단체들은 지속적으로 여성유권자 운동을 전개하여 정치세력화를 이루어나가야 할 것이다.

- 여성의 정치적 참여확대를 위한 여성 네트워크 강화

금번 지방선거에서 결성된 ‘2010지방선거남녀동수범여성연대’ 여성공천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성단체가 연대하여 ‘2010지방선거남녀동수범여성연대’를 구성하여 많은 성과를 이루었는데, 향후에도 여성단체들의 연대를 통해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 ‘2010지방선거남녀동수범여성연대’는 여성의 낮은 정치적 지위를 극복하기 위하여 첫째, 여성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연대활동 전개, 둘째, 여성후보의 발굴 운동, 셋째, 정당의 정책비교 활동, 넷째, 유권자운동 등을 전개해 왔다. 단지 아쉬운 것은 17대 총선시와 같이 여성후보 명단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선거지원 운동도 미약하였다는 점이다. 앞으로도 여성단체들은 연대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때로는 여성단체 독자적인 측면에서 여성후보 추천 및 선거지원운동을 통하여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지속적으로 이루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 첨단 캠페인 기법을 통한 여성의 정치세력화

점점 선거에서 사이버 공간의 위력이 강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여성단체들도 첨단 캠페인 기법을 통한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성유권자들 간 첨단 캠페인 기법을 활용하여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e-카드 보내기 운동, e-사인운동 전개, 사이버 멘토링 시스템 구축, 주제별로 사이버 토론장을 개설하는 방법 등을 활용할 수 있다.

5. 학계 및 연구기관의 역할

- 정부, 정당, 여성단체가 여성의 정치력 향상과 지위확보에 전력투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연구결과와 자료의 생산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을 포함한 연구기관과 정치학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즉, 여성유권자 표의 조직화를 위한 전략 연구, 기존 정치 풍토에 여성정치문화의 영향력 발휘를 위한 방안, 여성에 관련된 입법을 담당하게 되는 의원들의 여성의식 조사, 여성진출을 성공으로 이끄는 선거제도 관련법제 연구, 경선제와 여성후보 확대방안 등을 들 수 있다.
- 아울러 여성후보자 육성을 위한 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연수를 통하여 여성정치인을 지원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

목 차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내용 및 방법	4
 II.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남녀유권자, 여성대표성 및 여성계의 활동 고찰	7
1. 남녀유권자 비율 및 특성	9
2. 여성대표성	14
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여성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진출 현황	14
나. 정당별 여성공천 및 당선 현황	18
다.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방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남녀의원 경력 분석	28
3. 여성계 활동 내용	39
가. 여성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41
나. 여성후보 발굴 및 육성 노력	44
다. 여성후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노력	45
4. 향후과제	46
가. 정당의 소극적인 여성후보 공천 문제 해소	46
나. 여성 지방의원 경력지속 문제 해소	48
다. 여성계의 적극적인 활동 전개방법 모색	48
 III.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나타난 유권자의 투표행태 조사 및 분석 : 기초 자치단체장 여성후보에 대한 투표를 중심으로	51
1. 조사에 관한 개요	53

가. 조사대상자 및 지역	53
나. 설문지의 구성과 분석방법	54
다. 조사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55
2. 남녀유권자의 투표행태	58
가. 투표 및 정치관심도	58
나. 여성후보에 대한 관심과 투표여부	63
다. 여성후보 선택의 기준	69
라. 후보나 정당선택에 영향을 준 사건 및 매체	74
3. 남녀유권자의 정치관심도 및 정치의식	81
가. 향후 여성기초자치단체장 증가에 대한 견해	81
나. 여성시도지사 출마에 대한 찬반과 당선시기	83
4. 조사 분석결과 요약	85
IV. 여성의 정치세력화 강화 방안	87
1. 여성유권자 개인의 역할	89
2. 정부의 역할	90
3. 정당의 역할	92
4. 여성단체의 역할	95
5. 학계 및 연구기관의 역할	98
V. 결 론	99
■ 참고문헌	103
■ 부 록	105
■ Abstract	131

표 목 차

<표 II-1>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역별 투표율	11
<표 II-2>	성별, 연령별 투표율	12
<표 II-3>	1991, 1995, 1998, 2002, 2006, 2010 기초의회 의원선거 여성후보자 및 당선자 수	16
<표 II-4>	1991, 1995, 1998, 2002, 2006, 2010 광역의회 의원선거 여성후보자 및 당선자수	17
<표 II-5>	정당별 지역구 여성 후보 공천 및 당선 현황	18
<표 II-6>	정당별 지역구 여성 후보 공천 비율	20
<표 II-7>	광역의회선거 지역구 여성 후보자 및 당선자의 정당별-지역별 분포	21
<표 II-8>	기초의회선거 지역구 여성 후보자 및 당선자의 정당별-지역별 분포	22
<표 II-9>	광역의회선거 비례대표 여성 후보자 및 당선자의 정당별-지역별 분포	24
<표 II-10>	기초의회선거 비례대표 여성 후보자 및 당선자의 정당별-지역별 분포	25
<표 II-11>	정당별 광역단체장 및 기초단체장 여성 후보공천 및 당선 현황	27
<표 II-12>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여성 후보자 및 당선자의 지역별 분포	28
<표 II-13>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초의원 성별	29
<표 II-14>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역의원들의 성별·학력별 당선인 수 ..	31
<표 II-15>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초의원 전직 남녀비교	33
<표 II-16>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역의원 전직 남녀비교	35

<표 II-17>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성별 · 학력별 당선인 수	37
<표 II-18>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전직 남녀 비교	38
<표 III-1>	조사지역 유권자와 투표자 수 및 비율	54
<표 III-2>	설문지의 구성	54
<표 III-3>	응답자의 일반적 사항	56
<표 III-4>	지역별 선거관심도	58
<표 III-5>	성별 선거관심도	58
<표 III-6>	연령별 선거관심도	59
<표 III-7>	지역별 투표 정당	60
<표 III-8>	성별 투표 정당	60
<표 III-9>	지역별 후보 결정 시기	61
<표 III-10>	성별 후보 결정 시기	62
<표 III-11>	연령별 후보 결정 시기	62
<표 III-12>	지역별 여성후보 출마한 의미	64
<표 III-13>	성별 여성후보 출마한 의미	64
<표 III-14>	당 · 낙선지역별 여성후보 출마한 의미	65
<표 III-15>	지역별 출마한 여성후보 인지 시기	66
<표 III-16>	지역별 투표 후보	67
<표 III-16-1>	성별 투표 후보	68
<표 III-17>	당 · 낙선지역별 투표후보	68
<표 III-18>	지역별 여성후보 투표 기준	70
<표 III-19>	성별 여성후보 투표 기준	70
<표 III-20>	당 · 낙선지역별 여성후보 투표 기준	71
<표 III-21>	성별 인물 평가 요소	71
<표 III-22>	지역별 인물 평가 요소	72
<표 III-23>	지역별 정당 평가 요소	73
<표 III-24>	성별 투표 시 선택에 영향 끼친 공약	74
<표 III-25>	성별 투표시 영향을 준 사건	75

<표 III-26>	지역별 정당의 여성후보에 대한 지원 정도	75
<표 III-27>	성별 정당의 여성후보에 대한 지원 정도	76
<표 III-28>	여성후보 인지·결정에 영향을 준 매체	77
<표 III-29>	성별 여성정책에 가장 앞선 정당 판단	78
<표 III-30>	지역별 여성을 가장 잘 대변할 것으로 판단되는 정당	79
<표 III-30-1>	지지정당별 여성을 가장 잘 대변할 것으로 판단되는 정당 ...	80
<표 III-31>	성별 향후 여성기초자치단체장의 증감 여부	81
<표 III-32>	성별 향후 여성기초자치단체장 증가를 위한 노력	82
<표 III-33>	성별 여성기초자치단체장의 증가로 인한 사회의 변화	83
<표 III-34>	성별 여성시도지사 찬반 여부	84
<표 III-35>	지역별 여성시도지사 당선 예상 시기	84

그림 목 차

[그림 Ⅱ-1] 제2회~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구수 및 선거인수 변화	10
[그림 Ⅱ-2] 제3회~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율 추이	11
[그림 Ⅱ-3] 연령대별 투표율	12
[그림 Ⅱ-4] 성별, 연령별 투표율	13
[그림 Ⅱ-5] 제3회~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성별 투표율 추이	13
[그림 Ⅱ-6] 제3회~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연령별 투표율 추이	14

부 표 목 차

<부표 1>	선거관심도 * 소득별	107
<부표 2>	선거관심도 * 학력별	107
<부표 3>	투표 정당 * 연령별	108
<부표 4>	출마한 여성후보 인지 시기 * 성별	108
<부표 5>	출마한 여성후보 인지 시기 * 연령별	109
<부표 5-1>	출마한 여성후보 인지 시기 * 자녀여부별	109
<부표 6>	투표 후보 * 지역별	109
<부표 6-1>	투표후보 * 소득별	110
<부표 6-2>	투표후보 * 자녀여부별	110
<부표 7>	정당 평가 요소	110
<부표 7-1>	여성후보 투표기준 * 출신지별	111
<부표 7-2>	정당 평가 요소 * 성별	111
<부표 8>	투표 시 선택에 영향 끼친 공약 * 지역별	112
<부표 9>	투표시 영향을 준 사건 * 지역별	112
<부표 10>	여성후보 인지에 영향을 준 매체 * 지역별	113
<부표 11>	여성후보 결정에 영향을 준 매체 * 지역별	113
<부표 12>	여성정책에 가장 앞선 정당 판단 * 지역별	114
<부표 12-1>	여성정책에 가장 앞선 정당 판단 * 지지정당별	115
<부표 12-2>	여성정책에 가장 앞선 정당 판단 * 출신지역별	115
<부표 13>	여성을 가장 잘 대변할 것으로 판단되는 정당 * 성별	116
<부표 13-1>	여성을 가장 잘 대변할 것으로 판단되는 정당 * 출신지역 ..	117
<부표 14>	향후 여성기초자치단체장의 증감 여부 * 지역별	117
<부표 15>	향후 여성기초자치단체장의 증감여부 * 투표 후보	118
<부표 15-1>	향후 여성기초자치단체장의 증감여부 * 소득별	118
<부표 15-2>	향후 여성기초자치단체장의 증감여부 * 지지정당별	119

<부표 15-3>	향후 여성기초자치단체장의 증감여부 * 출신지역	119
<부표 16>	향후 여성기초자치단체장 증가를 위한 노력 * 지역별	120
<부표 17>	여성기초자치단체장의 증가로 인한 사회의 변화 * 지역별 ..	120
<부표 18>	당 · 낙선지역 * 여성기초자치단체장의 증가로 인한 사회의 변화	121
<부표 19>	여성시도지사 찬반 여부 * 지역별	121
<부표 20>	여성시도지사 당선 찬반 여부 * 연령별	121
<부표 21>	여성시도지사 당선 찬반 여부 * 학력별	122
<부표 21-1>	여성시도지사 당선 찬반 여부 * 출신지역	122
<부표 21-2>	여성시도지사 당선 찬반 여부 * 투표정당	122
<부표 22>	여성시도지사 당선 예상 시기 * 성별	123
<부표 23>	여성시도지사 당선 예상 시기 * 연령별	123
<부표 24>	여성시도지사 당선 예상 시기 * 학력별	123
<부표 25>	여성시도지사 당선 예상 시기 * 소득별	124
<부표 25-1>	여성시도지사 당선 예상 시기 * 출신지역	124
<부표 25-2>	여성시도지사 당선 예상 시기 * 투표정당	125
<부표 26>	정당의 여성후보 지원 정도 * 지지정당	125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내용 및 방법	4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10년 6월 2일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었다. 이번 지방선거의 특징은 첫째, 천안함 사건과 관련하여 지방선거가 지나치게 정치 쟁점화 되었다는 점과 정치에 있어 민심은 언제든 변화할 수 있다는 점, 둘째는 지방선거에 여성이 약진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앞으로의 과제는 성별과 상관 없이 모든 당선자들이 지방자치의 성격과 관련하여 지방자치가 본연의 생활정치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기본적 특징 고찰과 함께 이 연구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성의 진출정도와 유권자 의식을 살펴보고, 향후 과제를 찾는 데 초점을 둔다.

이번 선거는 광역자치단체장 16명, 기초자치단체장 228명, 광역의회 의원 761명, 기초의회 의원 2888명, 교육감 16명, 교육의원 82명을 선출하는 선거였다. 선거 결과, 여성당선인 현황은 기초자치단체장 6명(2.6%), 광역의회 의원 113명(14.8%) 기초의회 의원 626명(21.7%), 교육감 1명(6.3%), 교육의원 1명(1.2%)의 당선으로 나타났다. 총 3,991명의 당선인 중 여성이 747명으로 18.7%를 차지한다. 이는 당초 여성계가 요구한 지방자치단체장 20%, 지방의회 여성의원 50% 목표에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2006년 지방선거에 비하여 약진한 모습을 보여준다. 2006년 지방선거결과, 당시 여성당선자는 기초자치단체장 3명(1.3%), 광역의회 의원 88명(12.0%), 기초의회 의원 437명(15.1%)이었다.

이번 선거에서 여성 당선인이 늘어난 것은 여성 후보자수의 증가에서 비롯된 부분이 크다. 따라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도입된 국회의원 선거구별 여성후보 1인 이상 추천하도록 한 지역구 여성공천 할당제와 비례대표 50% 이상 의무공천하도록 한 공천할당제의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래 꾸준한 여성당선인 비율 증가는 유권자들에게 지방정치가 생활정치라는 이미지가 확산되면서 여성이라는 요인이 갖는 부정적 의미가 점차적으로 축소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깨끗한 정치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유권

자의 반수를 차지하는 여성유권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번에 확정된 유권자는 2010년도 5월 14일 현재 인구수 49,974,331명의 77.7%인 38,861,788명이고, 이 중 남자가 49.3%인 19,149,251명, 여자가 50.7%인 19,701,908명으로 여성유권자가 더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남녀유권자에 대한 비교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유권자 의식조사는 정기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후 성별·지역별·선거권자 수를 집계하고는 있으나, 성별·지역별·투표권자에 대한 집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앞으로 각종 공직선거에서 남녀간 성차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요구된다. 이는 남녀유권자에 대한 연구 강화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간 우리나라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1980년대에도 간헐적으로 있었으나, 남녀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비교연구는 지극히 부족하다. 여성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에 관한 조사연구는 1990년 이후 부분적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유권자 조사연구는 예산이 많이 들어 그간 정치에 관심이 있는 일부 학자나 여성단체가 중심이 되어 연구하여 왔으나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10년 지방선거를 맞아 여성후보가 출마한 수도권 지역의 남녀유권자 정치의식과 투표행태 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투표행태 변화를 살펴보고, 향후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기초 및 정책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본 과제는 여성가족부 요청과제로 우리나라 국격의 향상을 위하여 정치부문에서 지속적으로 여성대표성 증진을 위한 남녀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의 성차에 대한 조사 및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남녀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와 여성대표성과 여성계의 활동이 여성정치참여 확대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 1) 이를 위한 문헌연구는 지자체 실시 이후 집계된 각종 통계(행정백서 및 각종 지자체 통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 등)와 여성단체 활동

및 각종 행사자료, 본원을 비롯한 연구기관의 연구결과, 전문서적 등을 통해 연구의 기본 구조를 마련하였다.

- 2) 세부적인 연구 접근방법으로 2010 전국동시지방선거 동향을 조사 분석하였다.

첫째,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남녀유권자의 투표율 및 여성대표성과 여성계의 활동을 고찰하고, 둘째,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여성지방자치단체장 후보가 출마했던 수도권 지역의 남녀유권자 정치의식과 투표행태를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① 문헌연구 및 자료수집, ②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여성후보에 대한 남녀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에 관한 질문지 조사(약 800명; 조사시기: 2010. 7. 20-24, 조사방법: 전화조사), ③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여성연대활동 조사하고 평가하였다. 연대활동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를 위한 시민단체 모임(여성계 포함)이나 토론회에 참여하여 자료를 수집·분석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 3) 관계전문가 면담 및 자문회의 개최 등의 방법으로 여성정치의 세력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여성유권자 개인의 역할과 정부정당의 역할, 그리고 시민(여성)단체의 역할, 학계 및 연구기관의 역할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Ⅱ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남녀유권자, 여성대표성 및 여성계의 활동 고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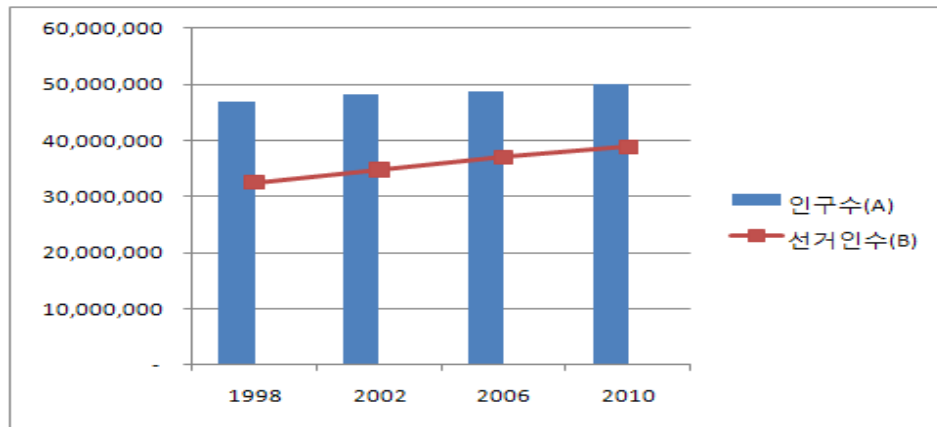
1. 남녀유권자 비율 및 특성	9
2. 여성대표성	14
3. 여성계 활동 내용	39
4. 향후과제	46

1. 남녀유권자 비율 및 특성

우리나라에서 여성들은 1948년 7월 17일 제헌 헌법에서 참정권을 부여받은 이래, 17번의 대통령선거, 18번의 국회의원선거, 9번의 지방선거 등에 참여해 왔다. 2010년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각종 공직선거 피선거권 연령은 남녀 공히 대통령선거는 만 40세 이상,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선거는 만 25세 이상이며, 선거권은 각급 선거 공히 만 19세 이상의 남녀에게 부여하고 있다.¹⁾ 해방 이후 우리나라에서 실시해 온 각종 공직선거에서 남녀유권자간 차이는 여성유권자가 남성유권자에 비하여 다소 많았고, 투표율에 있어서는 남성유권자들의 투표율이 여성유권자들의 투표율에 비하여 다소 높다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지 않다. 그러나 남녀유권자들은 남녀 공히 역대 각종 공직선거에서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의 순으로 관심을 보여 왔는데, 가장 최근에 실시했던 2010년 지방선거의 경우 제18대 총선 당시보다 투표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최근에 실시했던 제17대 대통령선거의 유권자 투표율은 63.0%(2007년), 제18대 총선 46.1%(2008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54.5%(2010년) 이었다. 이러한 기본인식 하에 여기서는 본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2010년 실시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율 조사·분석」 중심으로 남녀유권자의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율 조사·분석」에 따르면, 선거인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유권자의 남녀 구성비는 남자 49.3%(19,149,251명) 그리고 여자 50.7%(19,701,908명)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대별 선거인수 비율은 40대가 22.4%(8,710,931명)로 가장 많았고, 30대 21.4%(8,319,786명), 60세 이상 19.4%(7,553,069명), 20대 17.9%(6,933,838명), 50대 17.2%(6,681,400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19세 유권자는 652,135명으로 전체의 1.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00),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규집」, pp.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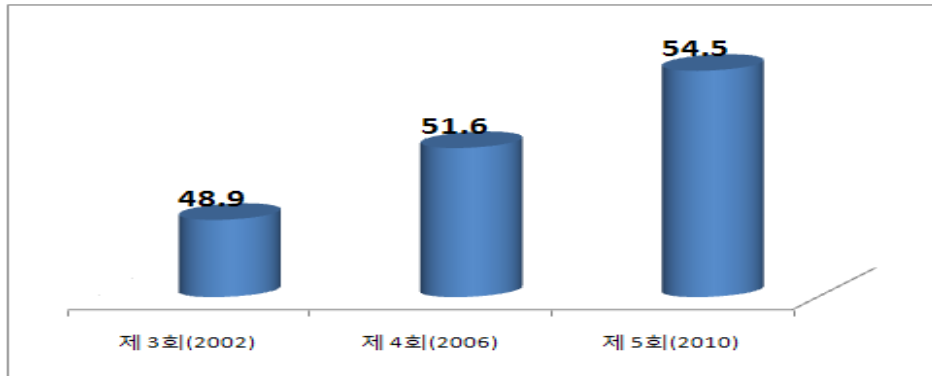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율 조사·분석」

[그림 II-1] 제2회~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구수 및 선거인수 변화

총 38,851,159명(전체 인구의 77.7%)의 유권자 중,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는 21,162,998명(54.5%)이 선거에 참여하였다. 이와 같은 투표율은 제3회 지방선거(2002년) 투표율인 48.9%와 제4회 지방선거(2006년) 투표율인 51.6% 보다 높은 수치이며, 제3회 이후 투표율은 꾸준한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지방선거는 정치무관심, 냉소주의 그리고 개인주의화의 결과 젊은 세대의 참여 저조로 투표율이 점점 떨어져 50%를 맴돌고 있었는데²⁾, 이번 선거에서는 투표율이 상승하였다. 또한 선거일 당일 오후 특히 젊은 층의 투표율이 상승하자 집권당이 긴장하고 있다는 보도를 접할 수 있었다. 이번 선거에서 투표율이 제3회와 제4회 당시 지방선거에 비해 증가한 것은 현 정부의 중간평가적 성격이 강하였던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2) 정용하, “선거제도와 지역성”, 『한국민족문화』, vol.37, 2010.7

(단위: %)



[그림 Ⅱ-2] 제3회~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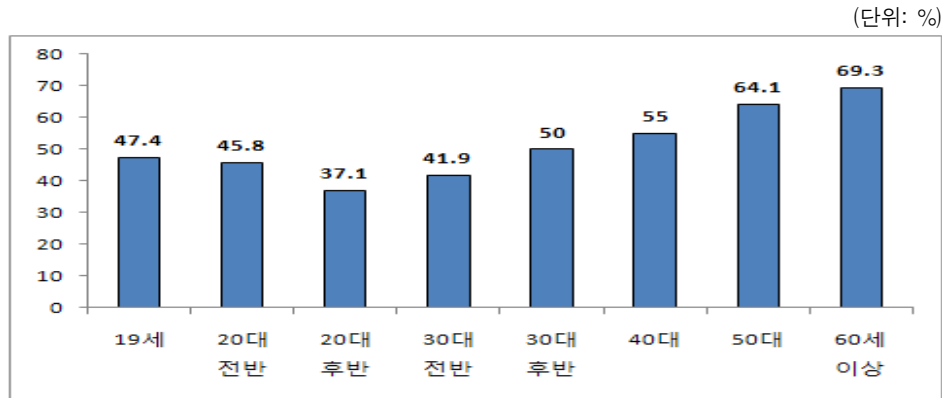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율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제주(65.1%), 전남(64.3%), 강원(62.3%), 경남(61.8%), 경북(59.4%), 전북(59.3%), 충북(58.8%), 충남(56.5%), 울산(55.1%), 서울(53.9%), 대전(52.9%), 경기(51.8%), 인천(50.9%), 광주(49.8%), 부산(49.5%), 대구(45.9%)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광역시 이상의 7대 도시 투표율(51.8%)보다 9개 도지역의 투표율(57.6%)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1〉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역별 투표율

시도명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투표율(%)	54.5	53.9	49.5	45.9	50.9	49.8	52.9	55.1	51.8	62.3	58.8	56.5	59.3	64.3	59.4	61.8	65.1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보조회시스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성별 투표율을 비교해 보면, 남성이 55.1%, 여성이 54.7%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투표율은 60세 이상이 69.3%로 가장 높고, 20대 후반이 37.1%로 가장 낮았다. 전반적으로 30대 후반 이상이 투표율이 높았고, 30대 전반 이하의 젊은 층의 투표율이 낮았다.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율 조사·분석」

[그림 II-3] 연령대별 투표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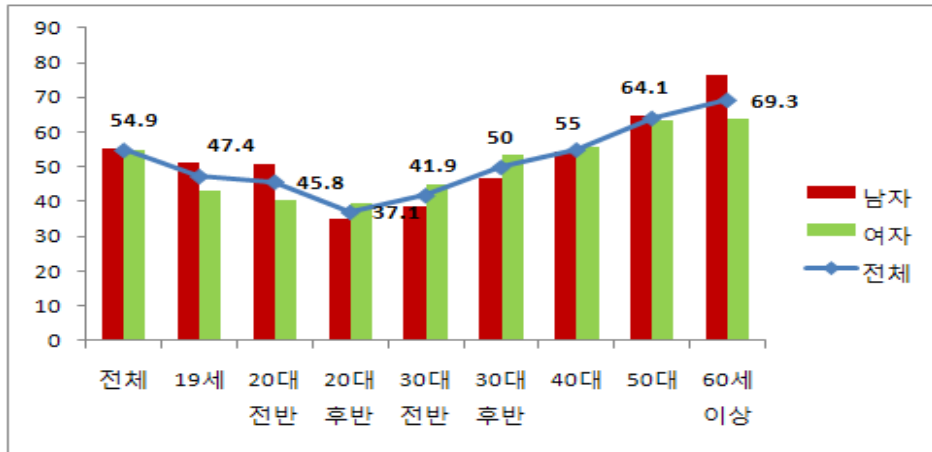
투표율을 성별·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60세 이상이 76.3%로 가장 높은 반면, 20대 후반이 34.9%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투표율도 점차 높아졌다. 여성의 경우도 20대 후반이 39.5%로 가장 낮고, 60세 이상이 64.0%로 가장 높으며, 마찬가지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투표율도 높아졌다. 19세와 20대 전반의 경우 여성투표율이 같은 연령의 남성에 비하여 10% 이상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남성과 비교하여 20대 후반과 30대 전후반 여성의 투표율이 남성에 비하여 5% 이상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 이 세대의 여성들의 투표율이 높은 것은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는 연령대로 자신들의 활동과 관련된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앞으로 여성유권자의 정치의식 개혁과 관련하여 젊은 층의 여성들에 대한 정치교육이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표 II-2〉 성별, 연령별 투표율

(단위: %)

	전체	19세	20대 전반	20대 후반	30대 전반	30대 후반	40대	50대	60세 이상
전체	54.9	47.4	45.8	37.1	41.9	50	55	64.1	69.3
남자	55.1	51.2	50.8	34.9	38.8	46.7	54.2	64.9	76.3
여자	54.7	43.1	40.3	39.5	45.1	53.3	55.9	63.4	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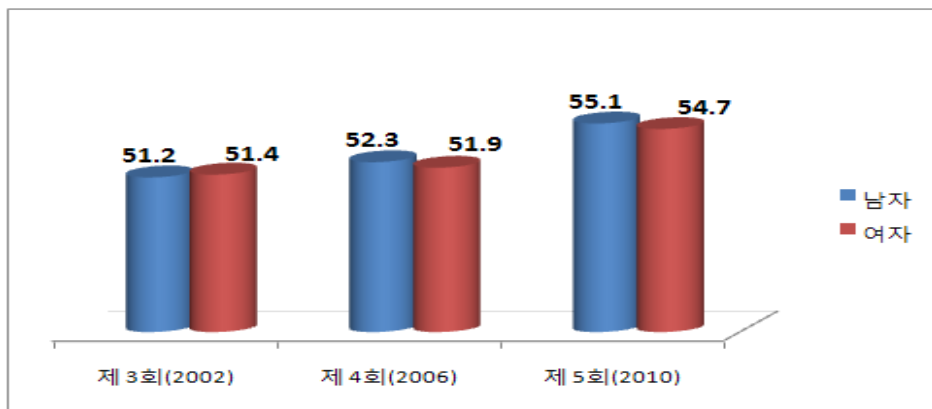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율 조사·분석」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율 조사·분석」

[그림 Ⅱ-4] 성별, 연령별 투표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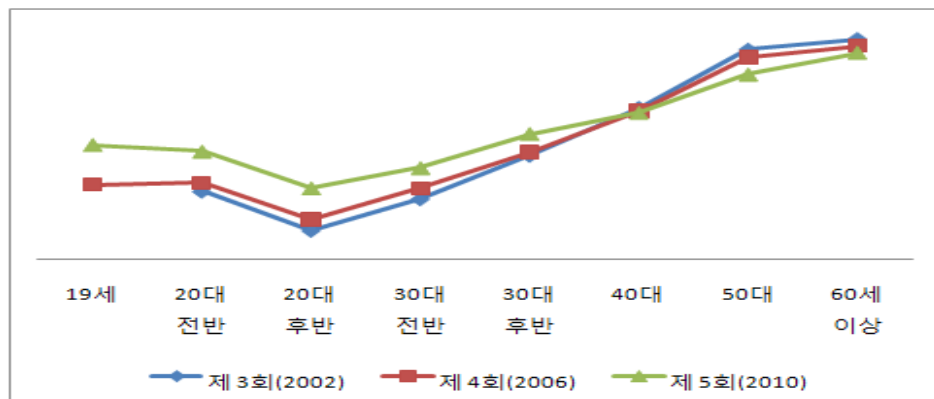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역대 성별 투표율과 비교해 보면, 제3회를 제외하고 제4회와 제5회 모두 남성의 투표율이 여성보다 높았으나, 그 차이는 0.4% 포인트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남녀 투표율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율 조사·분석」;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율 조사·분석」

[그림 Ⅱ-5] 제3회~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성별 투표율 추이

또한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역대 연령별 투표율을 살펴보면, 19세에서 30대까지는 꾸준히 투표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 반면, 40대에서 60세 이상의 연령군에서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19세	20대 전반	20대 후반	30대 전반	30대 후반	40대	50대	60세 이상
제3회(2002)	-	36.3	27	34.5	44.8	56.2	70	72.5
제4회(2006)	37.9	38.3	29.6	37	45.6	55.4	68.2	70.9
제5회(2010)	47.4	45.8	37.1	41.9	50	55	64.1	69.3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율 조사·분석」,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율 조사·분석」

[그림 II-6] 제3회~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연령별 투표율 추이

2. 여성대표성

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여성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진출 현황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여성의원 진출이 늘어났다. 실제로, 1991년 지방자치 재개 이후 여성의원 비율은 기초의회 의원이 1991년 0.9%에서 1995년 1.6%, 1998년 1.6%, 2002년 2.2%(77명), 2006년 15%(434명), 2010년 21.6%(626명)로 늘어났다. 광역의회의 경우 1991년 0.9%, 1995년 5.8%, 1998년 5.9%, 2002년 9.2%(63명), 2006년 12.0%(88명), 2010년 14.8%(113명)로 늘

어났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2006년 1.3%(3명), 2010년 2.6%(6명)이다. 그리고 2010년도 처음 실시한 교육감 선거의 경우 여성당선자는 6.3%(1명), 교육의원 1.2%(1명)이다(<표Ⅱ-3>, <표Ⅱ-4>).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시 총 여성후보가 1,411명으로 전체 후보 중 11.6%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던 반면, 제5회 지방선거에서는 수적으로도 232명이 증가하였을 뿐 아니라, 5.6%p 상승한 17.2% 비율을 차지하였다.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에서 큰 변화가 없었던 반면,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의 경우 지역구와 비례를 합하여 각각 5.7%p, 6.4%p 상승하였다. 2005년 비례대표의원 후보 공천시 여성에게 매 홀수번을 부여하고 50% 이상 할당하도록 한 이래, 광역과 기초의원에서 비례대표 후보자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번 선거에서도 기초의원 비례의 경우, 여성 후보자가 전체 80%에 이르고 있으며, 광역의원 비례의 경우 전회 대비 2.8%p 증가하였고, 총 후보자 중 여성이 67.3%를 차지하였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두드러지는 점은 광역의원의 경우 지역구 후보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8.7%에 이르렀고,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비교시 약 3.6%p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의원의 경우도 전회 대비 약 4.6%p 상승했으며, 총 후보자 중 여성 비율이 9.5%를 차지하였다. 제1회 지방선거 이후 여성후보자 비율 증가 추세를 살펴보면, 제1회에서 제3회까지는 소폭 상승 모습을 보이다가 제4회에서 조금 큰 폭의 상승 모습을 보였고, 이번 선거에 들어서는 광역-기초의원 모두 2배에 가까운 증가폭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이번 선거에 지역구 ‘여성공천의무할당제’가 도입되면서, 각 당이 이에 대응한 노력의 흔적이라 해석할 수 있다.

제5회 선거에 당선된 여성(교육감과 교육의원 제외)은 전회 대비 216명 증가하였고, 당선인 중 여성후보자 비율은 5.5%p 상승한 19.1%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광역비례의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게는 1.3%p에서 많게는 6.5%p 증가추세를 보여주었다. 여성당선자 중, 광역과 비례대표로 당선된 이들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광역 비례의원은 전체 당선인 중 71.6%, 기초 비례의원의 경우는 93.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눈에 띄는 점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비록 광역단체장은

배출하지 못했으나 기초단체장이 6명 당선됨으로써 전회 3명 당선에 비해 수적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광역과 기초의원의 경우 지역구 선출에서 여성의원 당선자 비율이 각각 3.2%p, 6.5%p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이번 선거에 앞서 국회입법조사처는 ‘여성후보 공천 할당제의 실효성 확보’란 보고서에서 여성의무공천제의 도입은 “여성 후보의 공천 비율을 높이는 데 결정적 영향을 줄 것”이며, “현재 지방의회(비례·지역구 포함) 여성의원 비율에서 8~10% 포인트 가량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었다. 당시 광역의원 12%, 기초의원 15%인 여성 지방의원 비율이 이번 제5회 선거를 통해 20~25% 안팎으로 늘어난다는 전망이었다. 이번 선거에서는 이 전망에 근접하지는 못했지만, 광역의원(지역구)의 여성의원 비율이 전회 대비 4.9%에서 8.1%로 크게 증가한 점과, 기초의원(지역구)의 여성의원 비율이 4.4%에서 10.9%로 두배 이상 증가했다는 점에서 다른 요인들에 대한 고려에 앞서 여성의무공천제의 효과가 부각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이번 선거에서 여성 당선인이 늘어난 것은 여성 후보자수의 증가에서 비롯된 부분이 크다. 따라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도입된 여성후보 공천 의무할당제의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유권자의 지방정치 성격과 관련하여 여성후보에 대한 인식변화 등도 영향을 미쳤다.

〈표 II-3〉 1991, 1995, 1998, 2002, 2006, 2010 기초의회 의원선거 여성후보자 및 당선자 수

연도	전체 후보자수						당선자수					
	전 체		여 성		여성/전체(%)		전 체		여 성		여성/전체(%)	
1991년	10,151		123		1.2		4,303		40		0.9	
1995년	11,970		206		1.7		4,541		71		1.6	
1998년	7,450		140		1.9		3,490		56		1.6	
2002년	8,373		222		2.7		3,485		77		2.2	
2006년	지역구	7,995	1,141	391	12.6	4.9	888	2513	437	110	15.1	4.4
	비례	267		750		73.2		375		327		87.2
2010년	지역구	5,862	1,281	552	18.8	9.4	2,888	2,512	625	274	21.6	10.9
	비례	919		729		80.0		376		351		93.4

〈표 Ⅱ-4〉 1991, 1995, 1998, 2002, 2006, 2010 광역의회 의원선거 여성후보자 및 당선자수

연 도		후 보 자 수						당 선 자 수					
		전 체		여 성		여성/전체(%)		전 체		여 성		여성/전체(%)	
1991년		2,885		63		2.2		866		8		0.9	
1995년	지역구	2,627	2,449	119	40	4.5	1.6	972	875	56	13	5.8	1.5
	비례		178		79		44.3		97		43		44.3
1998년	지역구	1,755	1,571	91	37	6.1	2.4	690	616	41	14	5.9	2.3
	비례		180		54		30		74		27		36.5
2002년	지역구	1,740	1,531	164	48	3.1	3.1	682	609	63	14	9.2	2.3
	비례		209		116		55.5		73		49		67.1
2006년	지역구	2,279	2,068	243	107	10.7	5.2	733	655	88	31	12.0	4.7
	비례		211		136		64.5		78		57		73.1
2010년	지역구	2,046	1,779	333	154	16.4	8.6	781	680	113	55	14.8	8.1
	비례		267		179		67.0		81		58		71.6

제5회 지방선거에서 지역별 여성 후보자 및 당선인 분포를 살펴보면, 광역의회의 경우 경기와 서울이 각각 37명과 35명으로 가장 많은 여성 후보자를 배출하였고, 다른 지역은 많게는 9명(경남), 적게는 3명(충남, 전북)의 후보자를 배출하였다. 당선자의 경우, 경기와 서울이 각각 12명과 13명을 배출하였으며, 제주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적게는 1명(대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많게는 5명(대구)의 당선자를 배출하였고, 제주지역에서는 한명도 없었다.

기초의회의 경우도 광역의회와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서울과 경기도 각각 135명과 133명의 여성 후보자를 배출하였고, 다른 지역에서는 적게는 7명(울산), 많게는 36명(부산)의 후보자를 배출하였다. 당선자의 경우는 서울과 경기도 각각 68명, 64명의 당선자를 배출했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적게는 5명(울산), 많게는 19명(부산)을 배출하였다.

나. 정당별 여성공천 및 당선 현황

1) 정당의 지역구 의회(광역-기초) 여성 후보공천 및 지방의회 진출

제5회 지방선거시 지역구에서 선출하는 선거구 및 의원정수는 광역의회가 680개소 680명이고, 기초의회가 1,039개소 2,512명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광역의회에서 여성 총 154명이 입후보하여 55명이 당선되었고, 기초의회에서 552명을 공천하여 274명이 당선되었다. 이 중에서 무소속을 제외하면, 광역과 기초의회에서 정당이 각각 130명과 484명을 공천하여, 각각 54명과 265명을 당선시켰다.

정당별로 살펴보면, 광역의회에서는 이번 선거에서 약진한 민주당이 63.4%라는 여성후보 당선율을 보였으며, 한나라당이 37.7%, 민주노동당이 36.8%의 당선율을 보였다. 이는 총 여성 후보자 당선율인 35.7%를 상회하는 수치이다. 기초의회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75.2%의 당선율을 보였으며, 한나라당이 60.2%, 민주노동당은 33.8%의 당선율을 보였다. 기초의회의 총 여성 후보자 당선율은 49.6%이다.

총 여성 후보자 당선율을 남성후보자 당선율과 비교해보면 그리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할 수 있으며, 오히려 기초의회의 경우는 여성(49.6%)이 남성(42.5%)보다 당선율이 더 높음을 볼 수 있다.

〈표 Ⅱ-5〉 정당별 지역구 여성 후보 공천 및 당선 현황

정당	광역의회			기초의회		
	공천자수	당선자수	당선율(%)	공천자수	당선자수	당선율(%)
한나라당	53	20	37.7	191	115	60.2
민주당	41	26	63.4	149	112	75.2
자유선진당	3	0	0.0	12	5	41.7
민주노동당	19	7	36.8	77	26	33.8
창조한국당	0	0	0.0	1	1	100.0
진보신당	5	1	20.0	25	5	20.0

정당		광역의회			기초의회		
		공천자수	당선자수	당선율(%)	공천자수	당선자수	당선율(%)
국민중심연합		1	0	0.0	2	0	0.0
국민참여당		3	0	0.0	12	0	0.0
미래연합		3	0	0.0	9	0	0.0
사회당		0	0	0.0	1	0	0.0
친박연합		1	0	0.0	3	1	33.3
평화민주당		1	0	0.0	2	0	0.0
무소속		24	1	4.2	68	9	13.2
합계	여성	154	55	35.7	552	274	49.6
	남성	1,610	615	38.2	5,271	2,238	42.5

구체적으로 정당별 공천자수를 살펴보면, 광역의회의 경우 한나라당이 가장 많은 수의 여성 후보자 53명을 공천했으며, 그 다음이 41명을 공천한 민주당이다. 당규에 여성후보를 일정 비율 공천하게끔 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경우, 각각 19명과 5명을 입후보자로 내세웠다. 총 572명의 공천자를 선정한 한나라당의 경우 여성후보자가 9.2%의 비율을 차지했고, 민주당의 경우도 비슷하게 총 450명 공천자 중 9.1%를 여성후보자로 선정하였다. 민주노동당의 경우는 총 73명을 공천하였고, 이 중 26%에 해당하는 19명의 여성을 추천하였으며, 진보신당의 경우도 총 26명을 공천한 가운데 5명(19.2%)을 여성으로 선정하였다.

기초의회의 경우도 광역의회와 비슷한 양상을 보여준다. 수적으로는 한나라당(191명), 민주당(149명), 민주노동당(77명), 진보신당(25명) 순을 보여주는 데 비해, 총 여성 후보자의 비율은 민주노동당이 34.4%로 가장 높고, 진보신당이 28.4%, 민주당 11.6%, 한나라당 10.0%의 여성후보자를 추천하였다.

〈표 II-6〉 정당별 지역구 여성 후보 공천 비율

정당	광역의회			기초의회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한나라당	572	53	9.3	1,902	191	10.0
민주당	450	41	9.1	1,285	149	11.6
자유선진당	78	3	3.8	241	12	5.0
민주노동당	73	19	26.0	224	77	34.4
창조한국당	5	0	0.0	6	1	16.7
진보신당	26	5	19.2	88	25	28.4
국민중심연합	14	1	7.1	32	2	6.3
국민참여당	47	3	6.4	140	12	8.6
미래연합	37	3	8.1	87	9	10.3
친박연합	17	1	5.9	47	3	6.4
평화민주당	11	1	9.1	27	2	7.4
무소속	432	24	5.6	1,737	68	3.9

광역의회 지역구 선출에서, 지역별-정당별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장 많은 후보자를 낸 경기도지방의 경우, 한나라당이 15명을 공천하여 3명을 당선시켰고, 민주당이 14명을 공천하여 7명을 당선시켰다. 경기도지방에서 당선된 총 12명의 여성 중 두 당에서 10명의 당선자를 배출했으며,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각각 1명씩의 당선인을 배출하였다. 경기도지방 다음으로 많은 후보자를 낸 서울지역의 경우, 민주당이 14명을 공천하여 10명의 당선인을 배출했고, 한나라당이 10명을 공천하여 3명의 당선인을 배출했다. 서울지역 총 당선인 13명 모두 민주당과 한나라당에서 나왔다.

〈표 Ⅱ-7〉 광역의회선거 지역구 여성 후보자 및 당선자의 정당별-지역별 분포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 선진당		민주 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중심 연합		국민 참여당		미래연합		친박연합		평화 민주당		무소속		전체	
	후보	당선	후보	당선	후보	당선	후보	당선	후보	당선	후보	당선	후보	당선	후보	당선	후보	당선	후보	당선	후보	당선	후보	당선
서울	10	3	14	10	1	·	3	·	·	·	·	·	1	·	·	·	·	·	·	·	6	·	35	13
부산	2	1	1	·	·	·	1	·	1	·	·	·	·	·	·	·	·	·	·	·	1	1	6	2
대구	5	5	·	·	·	·	·	·	·	·	·	·	·	·	·	·	1	·	·	·	2	·	8	5
인천	2	·	2	2	·	·	·	·	·	·	·	·	·	·	1	·	·	·	1	·	·	·	6	2
광주	·	·	1	1	·	·	2	1	·	·	·	·	·	·	·	·	·	·	·	·	3	·	6	2
대전	3	·	1	1	1	·	·	·	1	·	1	·	·	·	·	·	·	·	·	·	1	·	8	1
울산	2	1	·	·	·	·	4	3	·	·	·	·	·	·	·	·	·	·	·	·	·	·	6	4
경기	15	3	14	7	·	·	3	1	1	1	·	·	2	·	·	·	·	·	·	·	2	·	37	12
강원	2	1	2	2	·	·	1	·	·	·	·	·	·	·	·	·	·	·	·	·	1	·	6	3
충북	1	·	1	1	·	·	·	·	·	·	·	·	·	·	1	·	·	·	·	·	1	·	4	1
충남	1	·	1	1	1	·	·	·	·	·	·	·	·	·	·	·	·	·	·	·	·	·	3	1
전북	·	·	·	·	·	·	1	1	1	·	·	·	·	·	·	·	·	·	·	·	1	·	3	1
전남	·	·	1	1	·	·	1	·	·	·	·	·	·	·	·	·	·	·	·	·	3	·	5	1
경북	4	4	·	·	·	·	·	·	·	·	·	·	·	·	1	·	·	·	·	·	2	·	7	4
경남	3	2	1	·	·	·	3	1	1	·	·	·	·	·	·	·	·	·	·	·	1	·	9	3
제주	3	·	2	·	·	·	·	·	·	·	·	·	·	·	·	·	·	·	·	·	·	·	5	0
합계 A	53	20	41	26	3	0	19	7	5	1	1	0	3	0	3	0	1	0	1	0	24	1	154	55
정당전체 B	572	252	450	328	78	38	73	18	26	3	14	0	47	3	37	1	17	1	11	0	432	36	1,764	680
비율(%) A/B	9.3	7.9	9.1	7.9	3.8	0.0	26.0	38.9	19.2	33.3	7.1	0.0	6.4	0.0	8.1	0.0	5.9	0.0	9.1	0.0	5.6	2.8	8.7	8.1

기초의회 지역구 선출에서, 지역별-정당별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장 많은 후보자를 낸 서울지역의 경우, 한나라당이 47명을 공천하여 34명을 당선시켰고, 민주당이 41명을 공천하여 30명을 당선시켰다. 서울지역에서 당선된 총 68명의 여성 중 두 당에서 64명의 당선자를 배출했으며, 진보신당이 2명, 민주노동당이 1명, 무소속이 1명의 당선인을 배출하였다. 서울지역 다음으로 많은 후보자를 낸 경기지방의 경우, 한나라당이 41명을 공천하여 25명의 당선인을 배출했고, 민주당이 38명을 공천하여 30명의 당선인

22 ●●● 2010 지방선거와 남녀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을 배출했다. 경기지방 총 당선인 64명 중, 두 당에서 55명의 당선인을 배출하였고, 민주노동당에서 6명, 진보신당이 1명, 창조한국당 1명, 무소속 1명이 당선인을 배출하였다.

〈표 II -8〉 기초의회선거 지역구 여성 후보자 및 당선자의 정당별-지역별 분포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중심연합	
	후보	당선	후보	당선	후보	당선	후보	당선	후보	당선	후보	당선	후보	당선
서울	47	34	41	30	2	·	12	1	·	·	10	2	·	·
부산	20	12	6	5	·	·	5	2	·	·	1	·	·	·
대구	10	9	1	1	·	·	·	·	·	·	·	·	·	·
인천	12	6	10	7	·	·	3	2	·	·	1	·	·	·
광주	·	·	12	9	·	·	3	3	·	·	·	·	·	·
대전	6	3	3	3	3	3	1	·	·	·	·	·	·	·
울산	4	2	·	·	·	·	3	3	·	·	·	·	·	·
경기	41	25	38	30	·	·	31	6	1	1	7	1	·	·
강원	9	5	5	3	·	·	·	·	·	·	·	·	·	·
충북	9	5	5	5	·	·	2	·	·	·	·	·	·	·
충남	6	1	4	3	7	2	·	·	·	·	·	·	2	·
전북	·	·	13	8	·	·	3	1	·	·	1	·	·	·
전남	1	·	8	5	·	·	6	3	·	·	1	·	·	·
경북	14	7	1	1	·	·	2	·	·	·	1	1	·	·
경남	12	6	2	2	·	·	6	5	·	·	3	1	·	·
합계A	191	115	149	112	12	5	77	26	1	1	25	5	2	0
정당전체B	1,902	1,087	1,285	871	241	95	224	90	6	1	88	22	32	2
비율(%)A/B	10.0	10.6	11.6	12.9	5.0	5.3	34.4	28.9	16.7	100.0	28.4	22.7	6.3	0.0

	국민참여당		미래연합		사회당		친박연합		평화민주당		무소속		합계	
	후보	당선	후보	당선	후보	당선	후보	당선	후보	당선	후보	당선	후보	당선
서울	4	·	2	·	·	·	·	·	·	·	17	1	135	68
부산	·	·	1	·	·	·	·	·	·	·	3	·	36	19
대구	·	·	2	·	·	·	2	1	·	·	5	1	20	12
인천	·	·	·	·	·	·	·	·	·	·	·	·	26	15
광주	1	·	·	·	·	·	·	·	·	·	1	·	17	12
대전	·	·	·	·	·	·	·	·	1	·	2	·	16	9
울산	·	·	·	·	·	·	·	·	·	·	·	·	7	5
경기	6	·	1	·	·	·	·	·	·	·	8	1	133	64
강원	·	·	·	·	·	·	·	·	·	·	8	2	22	10
충북	·	·	1	·	1	·	·	·	·	·	2	·	20	10
충남	·	·	·	·	·	·	·	·	·	·	3	·	22	6
전북	1	·	·	·	·	·	·	·	1	·	4	1	23	10
전남	·	·	·	·	·	·	·	·	·	·	4	2	20	10
경북	·	·	1	·	·	·	·	·	·	·	8	1	27	10
경남	·	·	1	·	·	·	1	·	·	·	3	·	28	14
합계A	12	0	9	0	1	0	3	1	2	0	68	9	552	274
정당전제B	140	17	87	10	7	0	47	12	27	0	1,737	305	5,823	2,512
비율(%)A/B	8.6	0.0	10.3	0.0	14.3	0.0	6.4	8.3	7.4	0.0	3.9	3.0	9.5	10.9

2) 정당의 비례대표(광역-기초) 여성 후보공천 및 지방의회 진출

제5회 지방선거 결과, 총 81명의 당선인 중 58명의 여성이 당선되었으며 71.6%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는 제 4회와 비교시, 수적으로는 1명 증가하였고 비율은 1.5%p 감소하였다.

총 179명의 여성 후보자 중, 한나라당이 가장 많은 47명의 후보자를 선정하였고, 다음으로 민주당 31명, 민주노동당 22명 등을 선정하였다. 총 58명의 여성 당선인 중, 한나라당이 26명, 민주당이 20명, 민주노동당이 6명 등의 당선인을 배출하였다.

〈표 II-9〉 광역의회선거 비례대표 여성 후보자 및 당선자의 정당별-지역별 분포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 참여당		미래연합		사회당		친박연합		평화민주당		합계		
	후보	당선	후보	당선	후보	당선	후보	당선	후보	당선	후보	당선	후보	당선	후보	당선	후보	당선	후보	당선	후보	당선	
서울	6	3	4	3	1	·	3	·	1	·	1	·	1	·	1	·	1	·	1	·	2	·	6
부산	3	2	1	1	·	·	1	·	1	·	1	·	·	·	1	·	·	·	·	·	8	3	
대구	2	1	1	·	1	·	1	·	1	·	1	·	1	·	1	·	2	1	·	·	11	2	
인천	2	1	2	2	1	·	1	·	1	·	1	·	·	·	1	·	·	·	1	·	10	3	
광주	2	·	2	1	·	·	1	1	1	·	2	·	·	·	1	·	·	·	1	·	10	2	
대전	3	1	2	1	1	1	1	·	1	·	1	·	·	·	1	·	·	·	1	·	11	3	
울산	3	2	·	·	·	·	1	1	1	·	1	·	1	·	1	·	·	·	·	·	8	3	
경기	6	3	5	3	1	·	1	·	1	·	2	1	1	·	1	·	·	·	·	·	18	7	
강원	3	2	1	1	·	·	1	·	1	·	1	·	·	·	1	·	·	·	·	·	8	3	
충북	2	1	1	1	1	·	1	·	1	·	1	·	1	·	1	·	·	·	·	·	9	2	
충남	1	1	1	1	2	1	2	·	1	·	1	·	1	·	1	·	·	·	·	·	10	3	
전북	1	1	2	1	·	·	1	1	1	·	1	·	·	·	1	·	·	·	1	·	8	3	
전남	2	1	3	2	·	·	2	1	1	·	1	·	·	·	1	·	·	·	2	·	12	4	
경북	2	2	1	1	·	·	1	·	1	·	1	·	1	·	1	·	1	1	·	·	9	4	
경남	5	3	2	1	1	·	3	1	1	·	1	·	·	·	1	·	1	·	·	·	15	5	
제주	4	2	3	1	·	·	1	1	1	·	1	1	·	·	1	·	·	·	1	·	12	5	
합계	47	26	31	20	9	2	22	6	16	·	18	2	7	·	16	·	5	2	8	·	179	58	

기초의회 비례대표제는 제4회 지방선거 실시년도인 2006년부터 실시되었다. 제4회에서는 총 375명의 당선인 중, 여성이 327명으로 87.2%를 차지하였다. 이번 선거인 제5회에서는 총 376명의 당선인 중 352명의 여성이 당선되었으며, 93.6%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수적으로는 25명이 증가하였고, 6.4%p 증가하였다.

제일 많은 기초의회 여성 비례대표 의원을 배출한 한나라당은 총 311명의 여성 후보자를 선정하여 150명의 여성당선인을 배출하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지방에 52명, 서울지역이 40명, 경북과 경남에 각각 38명 등의 여성 후보자를 선정했으며, 경기지방에서 22명, 서울지역에서 24명, 경

북에서 24명, 경남에서 21명 등의 여성 당선인을 배출하였다.

다음으로 142명의 여성 당선인을 배출한 민주당은 총 203명의 여성 후보자를 선정하였다. 서울지역에 36명, 경기지역에 31명, 전남에 29명, 전북에 22명 등의 여성 후보자를 선정했으며, 서울지역에서 27명, 전남에서 23명, 경기지방에서 21명, 전북에서 14명 등 총 142명의 여성당선인을 배출했다.

75명의 여성 후보자를 선정했던 민주노동당은 25명의 당선인을 배출하였고, 47명의 여성후보자를 선정했던 자유선진당은 21명의 당선인을 배출했다.

〈표 Ⅱ-10〉 기초의회선거 비례대표 여성 후보자 및 당선자의 정당별-지역별 분포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후보	당선	후보	당선	후보	당선	후보	당선	후보	당선	후보	당선
서울	40	24	36	27	11	·	6	·	1	·	8	·
부산	25	16	10	8	·	·	16	·	·	·	·	·
대구	14	9	2	·	·	·	·	·	·	·	·	·
인천	17	7	9	7	·	·	1	1	·	·	·	·
광주	·	·	9	5	·	·	4	4	·	·	·	·
대전	5	·	5	4	5	3	·	·	·	·	·	·
울산	9	3	1	·	·	·	5	4	·	·	1	·
경기	52	22	31	21	3	·	9	1	·	·	2	·
강원	29	14	12	8	1	·	2	·	·	·	·	·
충북	18	4	11	9	4	3	1	·	·	·	1	·
충남	19	4	14	7	20	15	3	·	·	·	1	·
전북	5	2	22	14	·	·	5	3	·	·	3	·
전남	2	·	29	23	·	·	9	6	·	·	·	·
경북	38	24	6	4	1	·	4	1	·	·	2	·
경남	38	21	6	5	2	·	10	5	·	·	4	·
합계	311	150	203	142	47	21	75	25	1	·	22	·

	국민중심연합		국민참여당		미래연합		친박연합		평화민주당		전체	
	후보	당선	후보	당선	후보	당선	후보	당선	후보	당선	후보	당선
서울	·	·	9	·	·	·	·	·	1	·	112	51
부산	·	·	2	·	·	·	·	·	·	·	53	24
대구	·	·	1	·	·	·	4	4	·	·	21	13
인천	·	·	·	·	·	·	·	·	·	·	27	15
광주	·	·	4	·	·	·	·	·	·	·	17	9
대전	·	·	·	·	·	·	·	·	·	·	15	7
울산	·	·	·	·	·	·	·	·	·	·	16	7
경기	·	·	8	5	4	·	·	·	·	·	109	49
강원	·	·	·	·	·	·	·	·	·	·	44	22
충북	·	·	·	·	5	·	·	·	·	·	40	16
충남	1	·	·	·	·	·	1	·	·	·	59	26
전북	·	·	5	1	·	·	·	·	1	·	41	20
전남	·	·	4	·	·	·	·	·	4	·	48	29
경북	·	·	4	·	3	1	2	2	·	·	60	32
경남	·	·	2	1	2	·	3	·	·	·	67	32
합계	1	·	39	7	14	1	10	6	6	·	729	352

3) 정당별 광역단체장 및 기초단체장 여성 후보공천 및 당선 현황

광역단체장의 경우, 민주당이 1명, 진보신당이 2명을 공천하였으나, 아쉽게도 당선자를 배출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서울 지역에 한명숙 후보를 공천하였으나,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와 근소한 차이로 낙선하였다. 진보신당은 광주와 울산에 각각 1명씩 여성 후보를 추천하였으나 낙선하였다.

기초단체장의 경우, 총 228명의 기초단체장 중 여성 당선인은 6명으로 아주 작은 2.63%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이는 제4회와 비교시 2배 증가한 6명의 단체장을 진출시킨 것으로, 여성계에서는 약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당선인을 정당별로 살펴보면, 한나라당에서 당선 가능성 높은 지역에 여성 후보자를 전략 공천함으로써, 서울 강남구 신연희 후보, 서울 송파구

박춘희 후보, 부산 중구 김은숙 후보, 부산 사상 송숙희 후보, 대구 중구 윤순영 후보 등 5명을 당선시켰다. 이들 중 부산 중구 김은숙 후보와 대구 중구 윤순영 후보는 재선되었다. 민주당 역시 전략공천하였으며, 인천 부평구 홍미영 후보를 당선시켰다.

〈표 Ⅱ-11〉 정당별 광역단체장 및 기초단체장 여성 후보공천 및 당선 현황

정당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공천자수	당선자수	당선율(%)	공천자수	당선자수	당선율(%)
한나라당	0	0	0.0	8	5	62.5
민주당	1	0	0.0	2	1	50.0
자유선진당	0	0	0.0	0	0	0.0
민주노동당	0	0	0.0	1	0	0.0
창조한국당	0	0	0.0	0	0	0.0
진보신당	2	0	0.0	3	0	0.0
국민중심연합	0	0	0.0	0	0	0.0
건국당	0	0	0.0	0	0	0.0
국민참여당	0	0	0.0	0	0	0.0
국제녹색당	0	0	0.0	0	0	0.0
미래연합	0	0	0.0	0	0	0.0
사회당	0	0	0.0	0	0	0.0
자유평화당	0	0	0.0	0	0	0.0
친박연합	0	0	0.0	0	0	0.0
평화민주당	0	0	0.0	2	0	0.0
무소속	0	0	0.0	10	0	0.0
합계	3	0	0.0	26	6	23.1
남성 당선율	52	16	30.8	723	222	30.7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에서 가장 많은 10명의 여성 후보자가 나왔으며, 그 중 2명의 당선인을 배출하였다. 그 다음으로 부산과 인천 및 경기에서

각각 3명씩의 여성 후보자가 나왔고, 그 중 부산에서 2명, 인천에서 1명의 당선인을 배출했다. 전남에서는 2명의 후보자가 나왔으나, 당선인을 배출하지 못했다. 대구, 광주, 충남, 전북, 경남에서 각각 1명씩의 여성 후보자가 나왔으나, 대구에서 1명 당선된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지역에서는 당선인이 없다. 대전, 울산, 강원, 충북, 경북에서는 여성 후보자가 나오지 않았다.

〈표 II-12〉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여성 후보자 및 당선자의 지역별 분포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합계
후 보 자	여자	10	3	1	3	1	0	0	3	0	0	1	1	2	0	1	26
	전체 (%)	88 (11.4)	44 (6.8)	22 (4.5)	32 (9.4)	17 (5.9)	20 (0.0)	15 (0.0)	103 (2.9)	53 (0.0)	41 (0.0)	68 (1.5)	46 (2.2)	66 (3.0)	65 (0.0)	69 (1.4)	749 (3.5)
당 선 자	여자	2	2	1	1	0	0	0	0	0	0	0	0	0	0	0	6
	전체 (%)	25 (8.0)	16 (12.5)	8 (12.5)	10 (10.0)	5 (0.0)	5 (0.0)	5 (0.0)	31 (0.0)	18 (0.0)	12 (0.0)	16 (0.0)	14 (0.0)	2 (.0)	23 (0.0)	18 (0.0)	228 (2.6)

다.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방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남녀의원 경력 분석

1) 지방의회 의원

가) 남녀의원의 교육 수준 비교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출된 기초의원들의 학력별 당선인 수를 보면, ‘대졸’이 796명(27.6%)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대재/대학중퇴/전문대졸’ 754명(26.1%), 그 다음이 ‘대학원 이상’ 591명(20.5%) 순이다. 전반적으로 대졸/대학원 이상까지의 고학력 소지자가 1,387명으로 48.1%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구 선출의원과 비례대표의원의 당선인의 학력을 각각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지역구 선출의원을 살펴보면, ‘대졸’(28.0%), ‘대재/대학중퇴/전문대졸’(26.6%), ‘대학원 이상’(20.8%), ‘고졸’(14.6%), ‘고졸 미만’(6.5%), ‘미기

재’(3.5%) 순을 보였다. 대학원 포함 대졸 이상의 고학력 소지자는 1,226명으로 48.8%의 과반수를 차지하였다. 대졸 이상 남녀의원간 학력을 살펴볼 때, 여성의원 비율이 69.4%(190명)로 남성의원 46.3%(1,036명)에 비하여 23.1%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의회 비례대표 의원은 ‘대졸’(24.7%), ‘대재/대학중퇴/전문대졸’(22.9%), ‘고졸’(18.6%), ‘대학원 이상’(18.1%), ‘고졸 미만’(11.4%), ‘미기재’(4.3%) 순을 보였다. 대졸이상 남녀의원간 학력을 살펴볼 때, 비례대표의 경우 여성의원 비율이 40.9%(144명)로 남성의원 70.8%(17명)에 비하여 29.9% 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졸과 대재/대중퇴/전문대 졸에서 여성은 41.5% 남성의 25.0%에 비하여 16.5% 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기초의회 비례대표에 대졸 이상 여성의원의 학력이 남성에 비해 낮은 것은 기본적으로 여성의 수가 많고 비례대표제 50% 여성공천할당제가 도입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역구 위원장이 공천권을 대부분 가지고 있기에, 그간 주변에서 일하던 여성부장을 많이 공천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표 Ⅱ-13〉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초의원 성별

	지역구			비례			합계
	남성의원(%)	여성의원(%)	전체(%)	남성의원(%)	여성의원(%)	전체(%)	
고졸 미만	161	2	163	1	42	43	206
	(7.2)	(0.7)	(6.5)	(4.2)	(11.9)	(11.4)	(7.1)
고졸	342	26	368	2	68	70	438
	(15.3)	(9.5)	(14.6)	(8.3)	(19.3)	(18.6)	(15.2)
대재 /대학중퇴 /전문대졸	624	44	668	4	82	86	754
	(27.9)	(16.1)	(26.6)	(16.7)	(23.3)	(22.9)	(26.1)
대졸	596	107	703	11	82	93	796
	(26.6)	(39.1)	(28.0)	(45.8)	(23.3)	(24.7)	(27.6)

	지역구			비례			합계
	남성의원(%)	여성의원(%)	전체(%)	남성의원(%)	여성의원(%)	전체(%)	
대학원 이상	440	83	523	6	62	68	591
	(19.7)	(30.3)	(20.8)	(25.0)	(17.6)	(18.1)	(20.5)
미기재	75	12	87	0	16	16	103
	(3.4)	(4.4)	(3.5)	(0.0)	(4.5)	(4.3)	(3.6)
전체	2,238	274	2,512	24	352	376	2,888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당선인 명부를 참고하여 재작성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출된 광역의원들의 학력별 당선인 수를 보면, ‘대학원 이상’이 333명(43.8%)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대졸’ 230명(30.2%), 그 다음이 ‘대재/대학중퇴/전문대졸’로 115명(15.1%) 순이다. 전반적으로 대학교 재학에서 대학원 이상까지의 고학력 소지자가 678명으로 89%나 차지하고 있다.

지역구 선출의원과 비례대표의원의 학력별 당선인 수를 각각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지역구 선출의원을 살펴보면, ‘대학원 이상’(43.8%), ‘대졸’(30.9%), ‘대재/대학중퇴/전문대졸’(14.4%), ‘고졸’(8.1%), ‘고졸 미만’(1.8%), ‘미기재’(1.0%) 순을 보였다. 대학원 포함 대졸 이상의 고학력 소지자는 1,226명으로 48.8%의 과반수를 차지하였다. 대졸이상 남녀의원간 학력을 살펴볼 때, 여성의원 비율이 90.9%(50명)로 남성의원 73.3%(458명)에 비하여 17.6% 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 ‘대학원 이상’(43.2%), ‘대졸’(24.7%), ‘대재/대학중퇴/전문대졸’(21.0%), ‘고졸’(7.4%), ‘고졸 미만’(2.5%), ‘미기재’(1.2%) 순을 보였다. 대졸 이상 남녀의원간 학력을 살펴볼 때, 비례대표의 경우 여성의원 비율은 67.2%(39명)로 남성의원 69.6%(16명)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기초의회나 광역의회 남녀의원의 경우 남녀 모두 전반적인 고학력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특히 여성의원인 남성의원보다 더욱 큰

비율의 고학력 소지자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기초의회보다 광역의회에서 고학력 추세가 더 큼을 보여주고 있다.

〈표 Ⅱ-14〉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역의원들의 성별·학력별 당선인 수

	지역구			비례			합계
	남성의원(%)	여성의원(%)	전체(%)	남성의원(%)	여성의원(%)	전체(%)	
고졸미만	12 (1.9)	0 (0.0)	12 (1.8)	0 (0.0)	2 (3.4)	2 (2.5)	14 (1.8)
고졸	53 (8.5)	2 (3.6)	55 (8.1)	3 (13.0)	3 (5.2)	6 (7.4)	61 (8.0)
대재/대학중퇴 /전문대졸	95 (15.2)	3 (5.5)	98 (14.4)	3 (13.0)	14 (24.1)	17 (21.0)	115 (15.1)
대졸	193 (30.9)	17 (30.9)	210 (30.9)	6 (26.1)	14 (24.1)	20 (24.7)	230 (30.2)
대학원이상	265 (42.4)	33 (60.0)	298 (43.8)	10 (43.5)	25 (43.1)	35 (43.2)	333 (43.8)
미기재	7 (1.1)	0 (0.0)	7 (1.0)	1 (4.3)	0 (0.0)	1 (1.2)	8 (1.1)
전체	625 (100.0)	55 (100.0)	680 (100.0)	23 (100.0)	58 (100.0)	81 (100.0)	761 (100.0)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당선인 명부를 참고하여 재작성

나) 남녀의원의 전직 비교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출된 기초의회 의원들의 전직을 비교해 보면, ‘구시군의원’(1,047명, 36.3%), ‘관리직’(824명, 28.5%), ‘정치인’(477명, 16.5%) 등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구시군의원’과 ‘시도의원’(3명, 0.1%), ‘정치인’ 이렇게 크게 보면 ‘정치가’ 군에 속하는 이들이 총 1,527명으로 총 의원수의 과반수 이상(53%)을 차지하고 있다. 여성의원들의 경우도 비슷한 추세를 보인다. 626명의 여성의원 중, ‘정치인’(168명), ‘구시군의

원'(133명), '시도의원'(2명) 이렇게 '정치가' 군에 속하는 이들이 총 303명으로 총 여성의원의 48%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이 '관리직'으로 148명(24%)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향후 여성의 당선비율을 높이기 위해 남녀 구분 없이 정당 활동 및 의원 경력이 있는 정치가 군에서 가장 많은 당선인 비율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성의 특성상 '주부'군을 살펴봤는데, 총 48명(8%)이 해당되었고, 이들 중 94%에 해당하는 45명이 비례대표의원으로 선출되었다. 다른 한편, '생활정치구현'을 표방하는 지방선거에서 '정치가군'을 제외한 다른 다양한 직업군의 당선 비율이 고르지 않고, '관리직' 직종군에 속하는 이들의 당선자 비율이 높다(남성: 30%, 여성: 24%)는 점은 향후 지방정치활성화를 위해 정당 공천 심사시 그리고 선거 경쟁 체계 등에서 재고해 봐야 할 사항으로 보인다.

당선자의 직업 구성은 지역의 다양한 이해반영 정도를 유추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이다. 기존 지방의원들과 단체장들의 재선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지역의 이해를 대변하는 의정활동을 인정받은 결과라고 볼 수 있으며, 또한 유권자들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의회 의원직과 단체장 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은 분명 긍정적인 측면이다. 그러나 동시에 관리직의 선출비율이 정치가 군 다음으로 높다는 점과 그 밖의 직업군들에서 고르게 선출되고 있지 못한 양상이 양립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는 지방선거를 통해 지역의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반영하는가 라는 물음을 접했을 때, 분명 긍정적인 답변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특히 의회의 경우 지역의 다양한 이해를 반영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가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숙고해 봐야 할 것이다.

〈표 Ⅱ-15〉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초의원 전직 남녀비교

(단위: 명, %)

직업분류	지역구			비례			합계(%)
	남성의원(%)	여성의원(%)	전체(%)	남성의원(%)	여성의원(%)	전체(%)	
구시군 의원	911 (40.7)	127 (46.4)	1,038 (41.3)	3 (12.5)	6 (1.7)	9 (2.4)	1,047 (36.3)
시도의원	1 (0.0)	1 (0.4)	2 (0.1)	0 (0.0)	1 (0.3)	1 (0.3)	3 (0.1)
정치인 ¹⁾	304 (13.6)	70 (25.5)	374 (14.9)	5 (20.8)	98 (27.8)	103 (27.4)	477 (16.5)
농림어업 종사자	203 (9.1)	0 (0.0)	203 (8.1)	3 (12.5)	17 (4.8)	20 (5.3)	223 (7.7)
관리직 ²⁾	668 (29.8)	49 (17.9)	717 (28.5)	8 (33.3)	99 (28.1)	107 (28.5)	824 (28.5)
전문직 ³⁾	57 (2.5)	12 (4.4)	69 (2.7)	1 (4.2)	34 (9.7)	35 (9.3)	104 (3.6)
사무·서비스, 판매직 종사자	46 (2.1)	2 (0.7)	48 (1.9)	2 (8.3)	11 (3.1)	13 (3.5)	61 (2.1)
노무직	- -	- -	- -	0 (0.0)	2 (0.6)	2 (0.5)	2 (0.1)
사회운동가 ⁴⁾	7 (0.3)	5 (1.8)	12 (0.5)	0 (0.0)	2 (0.6)	2 (0.5)	14 (0.5)
공무원 ⁵⁾	5 (0.2)	0 (0.0)	5 (0.2)	1 (4.2)	4 (1.1)	5 (1.3)	10 (0.3)
주부	0 (0.0)	3 (1.1)	3 (0.1)	0 (0.0)	45 (12.8)	45 (12.0)	48 (1.7)
무직	30 (1.3)	1 (0.4)	31 (1.2)	1 (4.2)	32 (9.1)	33 (8.8)	64 (2.2)

직업분류	지역구			비례			합계(%)
	남성의원(%)	여성의원(%)	전체(%)	남성의원(%)	여성의원(%)	전체(%)	
미기재	2 (0.1)	1 (0.4)	3 (0.1)	- -	- -	- -	3 (0.1)
기타 ⁶⁾	4 (0.2)	3 (1.1)	7 (0.3)	0 (0.0)	1 (0.3)	1 (0.3)	8 (0.3)
합계	2,238 (100.0)	274 (100.0)	2,512 (100.0)	24 (100.0)	352 (100.0)	376 (100.0)	2,888 (100.0)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당선인 명부 참고 재구성.

- 1) 정치인 : 직업란에 구시군 의원, 시도의원, 단체장, 국회의원을 제외한 ‘정당인’, ‘정치인’ 및 특정 당 활동가 등을 정치인으로 분류함
- 2) 관리직 : 각종 산업 종사자 중 부장 이상(CEO, 대표, 이사, 사장, 부사장 등등), 각종 센터 장급, 자영업, 사업, 상업, 부동산 임대업 등 운영자
- 3) 전문직 : 언론인, 금융업 중 설계사, 회계사, 종교인, 연극인, 작가, 약사, 의사, 변호사, 교육자, 사회복지사, 디자이너 등 포함
- 4) 사회운동가 : 노동운동가, 사회단체 활동가, NGO 활동가 등등
- 5) 공무원 : 공무원, 각급 의원 비서, 보좌관 등 포함.
- 6) 기타 : 학생 등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출된 광역의회 의원들의 전직을 비교해 보면, ‘시도의원’(200명, 26.3%), ‘관리직’(170명, 22.3%), ‘정치인’(163명, 21.4%), ‘구시군의원’(96명, 12.6%) 등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구시군의원’과 ‘시도의원’, ‘정치인’ 등 ‘정치가’ 군에 속하는 이들이 총 459명으로 총 의원수의 과반수 이상(60%)을 차지하고 있다. 총 113명의 여성의원 중, ‘정치인’(31명), ‘관리직’(29명), ‘시도의원’(18명), ‘구시군의원’(13명), ‘전문직’(12명) 등이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정치가’ 군에 속하는 이들을 보면, 총 62명으로 총 여성의원의 55%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이 ‘관리직’으로 29명(26%)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초의회와 비교시 ‘전문직’이 11%(12명)로 기초의회보다 두드러진 비율을 보이고 있다. 기초의회에서와 마찬가지로 향후 여성의 당선비율을 높이기 위해 남녀 구분 없이 정당활동 및 의원 경력이 있는 정치가 군에서 가장 많은 당선인 비율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성의 특성상 ‘주부’군을 살펴볼 때, 기초의회와는 달리 지역구(2명)와 비례(1명) 모두 합해서 3명이 당선되었을

뿐이다. 후보군의 직업별 분류와의 비교를 통한다면, 좀 더 정교한 해석이 나올 수 있을 것이나, 당선인만을 두고 보았을 때 기초의회보다 광역의회에 좀 더 전문적인 소양을 요구하는 인식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일 가능성이 있다 하겠다.

〈표 Ⅱ-16〉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역의원 전직 남녀비교

(단위: 명, %)

직업 분류	지역구			비례			합계(%)
	남성의원(%)	여성의원(%)	전체(%)	남성의원(%)	여성의원(%)	전체(%)	
구시군 의원	82 (13.0)	10 (18.0)	92 (14.0)	1 (4.0)	3 (5.0)	4 (5.0)	96 (12.6)
시도의원	181 (29.0)	16 (29.0)	197 (29.0)	1 (4.0)	2 (3.0)	3 (4.0)	200 (26.3)
정치인 ¹⁾	127 (20.0)	12 (22.0)	139 (20.0)	5 (22.0)	19 (33.0)	24 (30.0)	163 (21.4)
농림어업 종사자	29 (5.0)	0 (0.0)	29 (4.0)	-	-	-	29 (3.8)
관리직 ²⁾	132 (21.0)	9 (16.0)	141 (21.0)	9 (39.0)	20 (34.5)	29 (35.8)	170 (22.3)
전문직 ³⁾	42 (7.0)	5 (9.0)	47 (7.0)	1 (4.0)	7 (12.0)	8 (10.0)	55 (7.2)
사무·서비스, 판매직 종사자	8 (1.0)	0 (0.0)	8 (1.0)	1 (4.0)	2 (3.0)	3 (4.0)	11 (1.4)
사회운동가 ⁴⁾	5 (1.0)	1 (2.0)	6 (1.0)	3 (13.0)	1 (1.7)	4 (4.9)	10 (1.3)
공무원 ⁵⁾	9 (1.0)	0 (0.0)	9 (1.0)	1 (4.0)	0 (0.0)	1 (1.0)	10 (1.3)
주부	0 (0.0)	2 (4.0)	2 (0.0)	0 (0.0)	1 (2.0)	1 (1.0)	3 (0.4)

직업 분류	지역구			비례			합계(%)
	남성의원(%)	여성의원(%)	전체(%)	남성의원(%)	여성의원(%)	전체(%)	
무직	10 (2.0)	0 (0.0)	10 (1.0)	1 (4.0)	2 (3.0)	3 (4.0)	13 (1.7)
미기재	- -	- -	- -	0 (0.0)	1 (2.0)	1 (1.0)	1 (0.1)
기타	- -	- -	- -	- -	- -	- -	- -
합계	625 (100.0)	55 (100.0)	680 (100.0)	23 (100.0)	58 (100.0)	81 (100.0)	761 (100.0)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당선인 명부 참고 재구성.

- 1) 정치인 : 직업란에 구시군 의원, 시도의원, 단체장, 국회의원을 제외한 ‘정당인’, ‘정치인’ 및 특정 당 활동가 등을 정치인으로 분류함
- 2) 관리직 : 각종 산업 종사자 중 부장 이상(CEO, 대표, 이사, 사장, 부사장 등등), 각종 센터 장급, 자영업, 사업, 상업, 부동산 임대업 등 운영자
- 3) 전문직 : 언론인, 금융업 중 설계사, 회계사, 종교인, 연극인, 작가, 약사, 의사, 변호사, 교육자, 사회복지사, 디자이너 등 포함
- 4) 사회운동가 : 노동운동가, 사회단체 활동가, NGO 활동가 등등
- 5) 공무원 : 공무원, 각급 의원 비서, 보좌관 등 포함

2) 지방자치단체장

가) 남녀 단체장의 교육 수준 비교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출된 기초자치단체장들의 학력별 당선인 수를 보면, ‘대학원 이상’이 129명(56.1%)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대졸’로 74명(32.5%)이며, 그 다음은 ‘고졸’(11명, 4.8%), ‘대재/대학중퇴/전문대졸’(10명, 4.4%), ‘고졸 미만’(5명, 2.2%)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대학교 재학에서 대학원 이상까지의 고학력 소지자가 212명으로 93%나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대학원 이상’이 과반수 이상(56.1%)을 차지하고 있다. 여성 단체장의 경우, 총 6명 모두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이며, 대학원 이상이 4명, 대졸이 2명이다.

〈표 Ⅱ-17〉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성별·학력별 당선인 수

	남성 단체장(%)	여성 단체장(%)	전체(%)
고졸미만	5	—	5
	2.3	—	2.2
고졸	11	—	11
	5.0	—	4.8
대재/대학중퇴/전문대졸	10	—	10
	4.5	—	4.4
대졸	72	2	74
	32.4	33.3	32.5
대학원이상	124	4	128
	55.9	66.7	56.1
전체	222	6	228
	100.0	100.0	100.0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당선인 명부를 참고하여 재작성

나) 남녀 자치단체장 직업별 비교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자치단체장의 전직을 비교해 보면, ‘단체장’(104명, 45.6%), ‘정치인’(72명, 31.6%), ‘전문직’(21명, 9.2%), ‘관리직’(14명, 6.1%), ‘구시군의원’(6명, 2.6%), ‘무직’(5명, 2.2%), ‘사무·서비스 종사자’(3명, 1.3%), ‘농림어업종사자’(2명, 0.9%), ‘시도의원’(1명, 0.4%) 순으로 나타났다. 자치단체장 전직 비교도 기초의회와 광역의회의 의원들의 전직비교에서와 마찬가지로 단체장 경력직과 정치가 군이 총 80%(183명)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 봐야 할 것이다. 6명의 여성 단체장의 경우, 단체장 경력을 가진 이가 2명, 시도의원 경력을 가진 이가 1명, 그리고 정치인, 관리직, 전문직 전직을 가졌던 이가 각각 1명씩이었다.

〈표 Ⅱ-18〉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전직 남녀 비교

직업분류	남성 단체장 (%)	여성 단체장 (%)	전체 (%)
단체장	102 45.9	2 33.3	104 45.6
구시군의원	6 2.7	0 0.0	6 2.6
시도의원	0 0.0	1 16.7	39.551 0.4
정치인	71 32.0	1 16.7	72 31.6
농림어업 종사자	2 0.9	0 0.0	2 0.9
관리직	13 5.9	1 16.7	14 6.1
전문직	20 9.0	1 16.7	21 9.2
사무, 서비스 종사자	3 1.4	0 0.0	3 1.3
공무원	- -	- -	- -
노무직	- -	- -	- -
주부	- -	- -	- -
무직	5 2.3	0 0.0	5 2.2

직업분류	남성 단체장 (%)	여성 단체장 (%)	전체 (%)
미기재	-	-	-
	-	-	-
기타	-	-	-
	-	-	-
합계	222	6	228
	100.0	100.0	100.0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당선인 명부 참고 재구성.

- 1) 정치인 : 직업란에 구시군 의원, 시도의원, 단체장, 국회의원을 제외한 ‘정당인’, ‘정치인’ 및 특정 당 활동가 등을 정치인으로 분류함
- 2) 관리직 : 각종 산업 종사자 중 부장 이상(CEO, 대표, 이사, 사장, 부사장 등등), 각종 센터 장급, 자영업, 사업, 상업, 부동산 임대업 등 운영자
- 3) 전문직 : 언론인, 금융업 중 설계사, 회계사, 종교인, 연극인, 작가, 약사, 의사, 변호사, 교육자, 사회복지사, 디자이너 등 포함
- 4) 사회운동가 : 노동운동가, 사회단체 활동가, NGO 활동가 등등
- 5) 공무원 : 공무원, 각급 의원 비서, 보좌관 등 포함

3. 여성계 활동 내용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여성이라는 이슈가 주목받는 이유는 지방정치가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되는 지방정책의 혜택이 남녀에게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행 제도 하에서 여성의 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지방정치는 생활정치’라는 모토 하에 환경정책, 교통정책, 문화정책, 교육정책, 탁아 및 육아, 노동정책, 청소년정책 등 주민의 생활여건 조성 문제와 여성의 문제를 같은 범주에서 다루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며, 이를 위해 여성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이하여 여성계가 주력한 것은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과 여성 후보 발굴 및 풀 구축, 선거 지원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2006년 지방선거 직후 한국여성개발원이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에 의뢰해 여성이 출마한 기초의회 지역구만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여성 후보 지지에 성별 요인보다 정당효과가

크다는 점이 드러났다. ‘여성 후보이기 때문에’ 지지했다(20.1%)는 비율보다 ‘소속 정당을 지지해서’(31.0%)라는 응답이 많았던 것이다. 이는 여성 후보는 당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공천에서 배제할 수밖에 없다는 정당의 논리를 부정하는 것이다. 지역구 시도의원 당선율로만 단순 비교해 보더라도, 제4회 지방선거에서 후보자 대비 당선자 비율은 여성의 경우 29.9%의 당선율을 보였고 남성은 31.8%의 당선율을 보여, 그 차이는 약 1.9%를 나타냈을 뿐이다. 여성 후보라고 해서 남성 후보들에 비해 당선율의 격차가 심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 것이다. 게다가 여기에 정당효과를 덧붙여 유력 정당들이 여성 후보를 공천하면 당선율을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계는 금번 지방선거를 맞이하여, 일차적으로 정당의 공천심사 과정에서 여성에게 불리한 조항을 수정하고, 남녀동수의 공천자를 배출할 수 있도록 각 정당을 규제할 수 있는 제도 설립 및 개선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2010지방선거남녀동수범여성연대”(공동대표 김정숙(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남윤인순(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의 결성으로 이어졌다.

“2010지방선거남녀동수범여성연대”(이하 ‘연대’로 지칭)는 2009년 11월 5일 제5회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의회에서의 평등정치 실현을 위한 활동을 적극 전개하는 등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주요 활동목적으로 하여 각계 여성단체들이 참여하여 결성한 범여성계 연대조직이다.³⁾ 이 조직은 우선 ‘연대’ 출범 전 준비위원회 단계에서 각 참여단체 연명으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2010 지방선거 여성참여확대를 위한 여성계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면담 추진을 통해 공직선거법 등 지방선거관련 제도개선 논의에 여성들의 의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

3) ‘연대’는 2004년 총선여성연대(17대총선을위한여성연대) 이후 처음 구성된 범여성 연대 구성이다. 참여한 단체는 한국여성단체협의회(전국 49개단체, 16개협동회원단체), 대한간호협회(전국 17개지부), 전문직여성클럽(BPW)한국연맹(전국 27개클럽), 21세기여성정치연합(전국 11개지부), 한국여성단체연합(전국 6개지부 27개 회원단체), 한국여성민우회(10개 회원단체), 한국여성유권자연맹(전국 16개지방연맹 140개 지부 1개청년연맹), 한국여성정치연맹(전국 9개지부 77개지회), 의회를사랑하는사람들(전국 6개지부 45개지회), 한국여성정치연구소,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 등이다.

한 활동을 진행시켰다. 연대 출범 이후에는 “남녀동수참여”라는 목적을 설정하고, 우선적으로 선출직과 비례직을 포함하여 <2010 지방선거 여성참여 50% 및 각 당 공천심사위원회 50% 여성참여>를 요구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각 단체별로 여성후보자를 발굴하고 추진하는 것을 지원하였다. 이들의 움직임은 특히 각 정당의 여성공천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게 만든 원동력을 제공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연대’를 중심으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여성계 주요 활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여성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연대’는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주요 활동목적으로 하여 발족하였다. 그리고 ‘연대’는 여성들의 힘을 모아 생활정치의 장인 지방의회에서의 평등정치 실현을 위한 활동을 적극 전개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았다. 그 실현 방안의 일환으로 공직선거법 등 지방선거관련 제도개선 논의에 여성들의 의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으며, 2010 지방선거에서의 여성후보 공천확대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먼저 현행 제도의 틀을 개선하여 2010 지방선거 여성참여 확대를 담보할 수 있도록, ‘선출직 및 비례대표 여성 할당 강행 규정화’와 ‘비례대표 의석 수 대폭 확대’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활동을 전개시켰다. 그리고 각 당 여성공천확대를 위한 활동을 전개시켰다.

1)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 노력

여성계는 선거 과정에서 여성에게 가장 어려운 관문이 바로 공천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각 당이 여성 공천을 확대하여 여성에게 정치참여의 직접적 기회를 줄 수 있어야 하며, 그로 인해 여성이 경쟁력과 조직력을 강화해 보다 큰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인식 하에, 공직선거법상 ‘임의규정’인 국회 및 지방의회 지역구 여성

후보 30% 공천 권고조항⁴⁾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토록 노력하였다. 또한 현행 관행상, 여성의원 수 확대를 위한 가장 빠른 길로서, 비례대표 의석수를 현행 10%에서 50%까지 확대할 것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009년 12월 29일 전체회의에서 합의한 방안은 이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특히 선출직 여성할당 조항에 이행강제조치가 빠져 있다는 점에 큰 유감을 표명하였다. 이에 12월 30일 ‘연대’는 정개위 합의안에 대한 논평을 발표하고, 크게 두 가지의 결의안을 발표하였다. 정개특위가 활동시한이 연장되는 즉시 할당제 이행강제조치를 마련할 것과 각 정당이 당헌당규를 통해 선출직 30% 여성 할당을 이행하기 위한 자체적 강제규정을 마련할 것을 결의하였고, 이후 꾸준히 국회 방청 및 성명서 발표 등의 활동을 통해 여성계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였다.

결과적으로 2010년 1월 25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서는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경우 광역 혹은 기초의원 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1명 이상을 여성후보로 추천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이는 후보의 30%를 여성에 할당하도록 노력한다는 기존의 권고조항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으로 지역구 선거에서 여성후보 비율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하지만 위반시 제재조항이 없었다. 이에 여성계에서 논란을 제기해 왔고, 이러한 논란을 불식하고 여성할당 조항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2월 5일에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위반시 제재조항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3월 2일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그 내용은 정당이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여성할당 규정을 위반할 경우 해당 국회의원지역구의 지방의회선거 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일부 남성 정치인들이 개정안에 반대입장을 표명하자, 2월 24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들에게 유감을 표하며 “각 정당이 공천심사위원회에 여성 50% 참여를 보장하고, 명확한 공천심사기준의 심사결과 공개하며, 공천배심원단 선정에서 여성참여를 보장할 것”을 촉구하는 등, 발빠른 대응을 벌였다.

4) 18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지역구 여성후보 추천규정을 이행한 정당은 민주노동당이 유일하였다.

이와 같은 활동은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국회 정개특위 과정에서 선출직 여성의무공천을 이끌어냈고, 이번 선거에서 여성의무공천의 첫 시도가 이루어졌다는 점에 의의를 부여할 수 있다. 사실상 의무공천의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기도 했으나,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 대체적인 여성계의 평가이다.

2) 관련 위원회에 일정 비율 이상의 여성위원 참여 보장 요구

여성계는 실질적인 선거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국회 내 중요 위원회에 여성 참여 보장을 주장하였다. 특히 2010 지방선거 여성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에 있어서 국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여성위원의 참여가 전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명의 위원 중 애초에 여성위원이 전무하였고 나중에서야 두 명이 포함되었을 뿐이라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였다. 또한 각 당의 공천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50%를 여성에게 할당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절대 다수의 남성들이 참여하는 공천심사로써는 공정한 공천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한계를 직시하였기 때문이다.

3) 당헌 당규 수정을 통한 합리적인 공천 시스템 구축 요구

한국여성유권자연맹(회장 김성옥, 이하 한여유)이 지방선거를 대비한 워크숍을 열고(2010년 3월 24-25일) 3당 대표를 방문하여 양성평등 선거를 치러주기를 당부하는 등의 행보를 보였다. 이는 여성계가 여성 정치참여 확대에 대한 당 지도부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각 정당의 대표들을 만나 이러한 인식변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이를 각 당의 당헌 당규에 반영하여 제도화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공천과정에서 여성후보자의 경력이 제대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공천 시스템 구축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그리고 4월 22일에는 ‘2010 지방선거 여성공천확대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단체장 20% 여성후보 전략공천과 선출직 30% 여성공천 실행을 촉구하였다.

그리고 ‘연대’가 각 정당 공천과정에서 당 대표 및 공천심사위원장 면담

과 의견서 등을 통해서 요구한 내용을 간략히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각 정당은 당헌·당규를 통해 선출직 여성할당 30%를 명문화하고 이를 자발적으로 실천할 것.
- ② 각 정당은 공천심사위원회 여성참여를 50% 참여 확대하고, 명확한 공천심사기준과 심사과정 및 결과를 공개할 것.
- ③ 2010 지방선거 선출직 여성참여확대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각 정당 지도부의 적극적인 의지임. 또한 여성당선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힘도 바로 소속 정당에 있음. 따라서 기초단체장 및 선출직후보의 경우 각 정당이 당선 가능한 우세지역에 여성을 전략공천해야 함.
- ④ 기초단체장 여성공천확대는 2010 지방선거 여성참여확대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기초단체장 20% 여성전략공천을 요구함.
- ⑤ 광역 또는 기초 선출직 1인이상 여성공천이라는 개정 공직선거법은 최소한의 기준임. 또한 해당 조항이 오히려 여성공천의 제한으로 작용되지 않도록 광역선출직 여성공천이 강조되어야 해야 하며, 개정된 공직선거법 상의 선출직 여성공천 강행규정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기초선출직 복수공천시 기호를 여성에게 <가>번을 배정해야 함.

나. 여성후보 발굴 및 육성 노력

여성후보자 발굴과 관련해서 ‘연대’ 참가단체가 각 단체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기로 하되, 다만 상황에 따라 단체장 등에 유력 여성후보에 대한 지지/당선지원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연대’ 참가단체인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은 2010년 2월 18일 좋은 여성 후보 선정을 위한 실천 방안으로 ‘2010 지방선거 좋은 후보 책임지기’ 발대식을 가졌다. 단체에 신청한 지방선거 참여 희망 여성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1차 서류 심사를 거쳐 적합한 예비 후보를 선정한 후, 전문가를 초청해 정치권에 추천할 최종 후보를 선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각 정당이 공천시 요구하는 동일한 서류들을 사전에 제출하게 해서 심층적으로 심사하고, 최종 인터뷰에서 전문가와 후보자간에 자신의 장점과 단점, 선거에 임하는 자세, 후보자의 경험과 경륜

등을 토대로 선거에 필요한 전략, 메시지, 공약 등에 대한 현장 지도를 하였다. 또한 3월 24일,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은 16개 지방연맹 대표들과 연맹에서 선정한 ‘좋은 후보’ 중 선거에 출마하는 17명을 모아 이들의 의정계획을 발표하고, 이들에 대한 평가와 스피치 기법을 강의하였고, 다음날인 25일에는 ‘지역을 이끄는 여성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하는 등, 후보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각 당의 여성위원회와 연대하여, 여성후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하는데 노력을 지원하였다.

이렇게 여성후보 발굴 및 육성에 여성계가 노력을 기울이는 이유는, 정당들이 여성 후보를 공천하지 않고 ‘여성후보가 없다’라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관행을 타파하고, 더 나아가 여성 정치인의 세력화를 다지기 위함이다. 그러나 여성계는 2003-4년을 기점으로 활발해진 이러한 노력들(맑은 여성정치네트워크 등)이 축적되어 오기는 하지만, 아직은 정당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다. 여성후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노력

1) 여성공약/정책 협약

여성계에서는 예전의 선거와 마찬가지로 전국차원과 지역차원에서 성, 보육, 교육, 복지, 환경, 문화 등에 걸쳐 공약을 개발 및 발표하고 후보들과의 협약식을 체결하는 등 ‘여성’ 이슈를 지방자치에서 현실화하기 위한 활동을 벌였다. 공약의 내용으로는 크게 ‘성폭력 없는 지역사회’, ‘보육의 사회화’, ‘취약계층 여성의 인권보호 및 지원 강화’, ‘성 주류화 및 성인지 예산제도 전면화’ 등을 제시하였다.

2) 여성 후보에 대한 인적 자원 지원

자금과 조직이 부족한 여성 정치인을 위해,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대표 김경미)는 여성 정치인을 당선시키기 위해 발로 뭍 캠프 자원봉사자인 ‘여성 캠프지기’(자원봉사 활동기간 : 5월 20일~6월 1일)를 모집하였다. ‘여성 캠프지기’는 5월 14일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 시청각실에서 사전교육을 받

았다. 사전교육에는 여성 정치 참여의 중요성과 출마 현황에 대한 교육부터 선거 일정과 선거법 강의, 자원봉사 실무에 대한 노하우 전수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자원봉사자의 정치 성향과 지역 등을 고려해 여성후보 선거 캠프에 배정받아 활동하도록 하였다.

4. 향후과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전체적으로 여성후보가 제4회에 비해 2배 정도 증가하였고, 여성당선자 비율도 20%에 달해 여성참여가 확대되었다. 선출직 후보 및 당선자의 증가와 함께 여성후보자들의 경쟁력도 강화되어 여성후보의 비례대표는 물론 선출직까지 여성후보자 비율에 보다 여성당선자 비율이 상회하는 성과도 보였다. 그러나 여전히 여성당선자 분포는 대도시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여성당선자 가운데 70%가 초선이라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선거제도상의 미비와 각 정당의 공천 의지 부족과 유권자의 의식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 하겠다.

가. 정당의 소극적인 여성후보 공천 문제 해소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당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운영하였고, 여야간 합의를 통하여 지방선거 지역구에 여성후보 국회의원 선거구별 기초 또는 광역의회 후보 1명 이상 의무공천(시구에 해당, 군은 제외)하였다. 그 결과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나, 지역구 여성 후보자 및 당선자가 약간 늘었다. 선출직 여성의무공천의 경우, 금번 선거에서 개선된 유일한 제도이다. 그러나 개정 당시부터 이 조항은 적용대상을 도시지역에 한정하고, “기초 또는 광역”으로 규정하여 상대적으로 광역의원으로 입후보하려는 여성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는 선거결과에 그대로 반영되어, 여성당선자 수에 있어 지역적 편차를 보이고 광역의원보다 기초의원의 여성당선자수 증가가 크게 나타났다.⁵⁾

또한 각 정당이 해당조항을 편법적으로 이행함으로써, 이른바 ‘허수아비

여성후보' 공천 등 해당조항의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행태를 보였음이 발견되었다. 중앙선관위 최종 후보등록결과,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정당 추천을 받은 여성이 후보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가 전체 선거구에서 총 17건 발생하였으며, 정당별로 분석해 보면 민주당이 9명, 자유선진당이 3명, 한나라당이 2명, 친박연합·미래연합·평화민주당이 각 1명씩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각 당은 여성의무공천제 대상 이외에 여성기초단체장 공천 약속을 실천하는데 인색했다. 한나라당의 경우 여성기초단체장 20명 이상 공천 의무화(서울 3곳 이상, 부산 및 경기 2곳 이상, 기타 시도 각 1곳 여성후보 공천 의무화), 민주당의 경우 시도당별 1명 이상 여성기초단체장 공천을 목표로 했지만,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했다. 특히 민주당의 경우 야권통합이라는 명목으로 지방자치단체장 공천에 있어 지극히 인색하였다. 여성계가 6년 만에 범여성연대를 이끌어냈으나, 각 정당의 편법적 제도 운용과 의지 부족을 해소하기에는 그 활동력이 미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마련된 제도를 활발히 운용하고자 하는 의지는 제도 마련을 위한 활동력 이외의 또 다른 노력을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있다. 다음 선거에서는 제도를 좀 더 보완하는 데 들이는 노력은 물론, 이후 이 제도의 운용을 담보할 수 있도록 각 정당과의 연대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정치에서의 '여성' 이슈 즉, 각종 생활여건 조성 및 개선을 위한 정책 마련에서의 복지, 환경, 교육, 등등의 분야와 '여성'의 이슈의 연계를 대중화하도록 노력함으로써, 여성 정치인에 대한 대중 및 정당의 인식 변화를 자연스럽게 도모하여, '여성' 후보자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구축하는 발판을 마련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하여 앞으로 정치적 대표성 확보를 통하여 국가선진화를 이루기 위하여 무엇보다 국회 및 지방선거의 지역구 30%의 무공천제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5) 지난 15일 한국정당학회가 주최한 '지방선거와 한국 정치의 발전 과제' 세미나 이 정진의 주제발표 내용을 보면, 여성 당선자 비율이 10%p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 광역에서는 3%p, 기초에서는 7%p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평가하였다.

나. 여성 지방의원 경력지속 문제 해소

이번 선거에서 여성 참여 확대 이슈 중 주목받았던 또 하나의 문제는 여성 지방의원의 경력지속이었다. 제 4회 선거를 통해 처음 진입한 기초의회 비례대표 여성의원들이 어느 정도 경력을 지속할 수 있는가가 중요했던 것이다. 지난 2009년 여세연과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가 현역 여성지방의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여성의원들이 재출마의지가 있다고 답변했었다. 그러나 이번 선거 결과, 여성당선자 중 초선 비율이 상당히 높았다. 지역구에서 선출된 초선의원 비율은 광역의원이 69.1%(38명), 기초의원 중에는 절반가량인 52.9%(145명)이었다. 초선비율이 높은 이유로는 비례대표로 외부에서 영입된 여성정치인이 정당조직 내에 안착하지 못하였거나, 여성정치인의 경력을 지속적으로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기 보다는 유력정치인이 상대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손쉬운 초선 중심으로 ‘일회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선호하는 그릇된 정치풍토가 여전한 탓이 크다고 하겠다.

이 역시 여성계가 두 가지 방향에서 보완해야 할 문제이다. 먼저 여성의원의 의정활동 능력 향상 및 정당조직 내 활동능력 배양 등에 여성계가 각종 워크숍이나 교육 등을 통해 힘써야 할 뿐 아니라, 여성의원 간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여 개인적으로 부족하기 쉬운 조직력과 정보력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하도록 하는데 허브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제도 운용 문제에서 드러났던 문제와 동일하게 기존 정치인과 정당인들의 의식 개선 노력 문제이다. 이 역시 선거철을 전후하여 한시적으로 결집되는 여성계의 기구를 상시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의식의 변화를 꾸준히 도모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 여성계의 적극적인 활동 전개방법 모색

우리나라의 여성계의 활동은 1995년 북경세계여성대회를 기점으로 여성대표성 증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실제, 여성계는 17대 총선을 앞두고 여성단체들은 ‘맑은 여성정치네트워크’를 조직하여 101명 여성후보 리

스트를 작성하여 각 당에 보내고 각 당 대표에게 건의, 지역이나 비례대표에 넣어달라고 압력작업을 하였다. 그 결과 맑은 넷 추천후보가 상당수 진입, 특히 전 현직 의원까지 합하면 거의 80%까지 되었다. 이러한 것이 여성계가 중점적으로 한 일로서 그 어느 때 선거보다 여성운동 활동을 가장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던 선거였다. 그리고 여성운동이 전개한 사업으로는 정책비교와 유권자운동, 여성후보 지원을 위한 기금 모으기 사업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제도 개선과 여성후보 공천을 위한 여성단체의 노력과 함께 유권자들의 여성후보에 인식 개선이 다소 이루어진데서 여성의원의 증가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17대 총선의 경우 여성계가 연대하여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라는 구심점을 찾고, ‘맑은 정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100인 여성후보 추천 등의 활동을 하였으나, 18대 총선에서 여성계의 활동은 거의 없었다.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성계는 “2010지방선거남녀동수범여성연대”를 결성하고, 지방선거 여성참여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왔다. 그 결과 여성계가 원하는 만큼의 반수를 이루지는 못했으나, 지방선거에 여성대표성은 증대하였다. 그러나 17대 총선과 비교되는 것은 여성후보 리스트를 작성하지 못하는 등 ‘맑은 여성정치네트워크’에 비하여 활동이 미비한 것을 볼 수 있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의 해결과 함께 여성계와의 연대활동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향후 과제로는 여성계는 정당의 여성조직, 여성단체, 여성법조인, 여성언론인, 여성경제인, 여성근로자, 여성공무원 등 여성집단과 연계하여 여성인재를 발굴하고, 보다 적극적인 연대활동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III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나타난 유권자의 투표행태 조사 및 분석 : 기초 자치단체장 여성후보에 대한 투표를 중심으로

1. 조사에 관한 개요	53
2. 남녀유권자의 투표행태	58
3. 남녀유권자의 정치관심도 및 정치의식	81
4. 조사 분석결과 요약	85

1. 조사에 관한 개요

가. 조사대상자 및 지역

이번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에 출마한 여성후보는 총 26명이었으며, 당선된 여성후보는 6명이었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 지역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당선지역과 낙선지역을 고려하여 4개 지역을 선정하게 되었다. 조사대상 지역은 여성후보 당선지역 2곳, 낙선지역 2곳으로 모두 수도권 지역으로 하였다. 당선지역 2곳으로는 서울 송파구의 박춘희 후보(한나라당), 인천 부평구의 홍미영 후보(민주당)이며, 낙선지역 2곳은 서울 광진구의 구혜영 후보(한나라당), 인천 중구의 박승숙 후보(한나라당)의 지역구이다. 지역 선정은 특정 정당의 우세가 두드러진 지역을 가급적 피하고, 접전지역으로 예상되었던 지역을 선정하였다. 실제로 기초단체장에 출마한 여성후보는 한나라당 8명, 민주당 2명, 민주노동당 1명, 진보신당 3명이었고, 수도권 지역에 많았기 때문에 이번 조사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도 수도권지역 한나라당 후보를 중심으로 하여, 지역별로는 서울 2지역, 인천 2지역, 정당별로는 한나라당이 3지역, 민주당 1지역이다.

이 지역의 유권자 성별 비율을 살펴보면, 인천중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여성 유권자 비율이 남성 유권자보다 다소 많음을 알 수 있다. 서울 송파구는 여성 유권자 비율이 51.8%, 서울광진구는 51.1%, 인천 부평구는 50.6%였다. 인천중구의 경우 여성 유권자가 남성 유권자 보다 적었는데, 48.6%를 차지하였다. 이들 지역의 투표율은 모두 과반수를 넘었는데, 서울 송파구가 54.2%로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여주었고, 서울 광진구 52.7%, 인천 중구 51.6%, 인천 부평구 50.1% 순이었다. 아쉬운 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 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율 집계를 성별로 하지 않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율을 성별로 살펴볼 수 없다는 점이다.

이번 설문조사 대상자의 성별 분포는 남성이 399명(49.8%), 여성이 401명(50.2%)이다. 본조사는 2010년 7월초 사전조사를 거쳐 2010년 7월 20-24일(5일간) 실시하였고, 조사방법은 전화조사로 실시되었다.

〈표 Ⅲ-1〉 조사지역 유권자와 투표자 수 및 비율

(단위: 명, %)

		서울송파구	서울광진구	인천중구	인천부평구
유권자	남	260,305 (48.2)	147,471 (48.9)	37,739 (51.4)	215,312 (49.4)
	여	279,416 (51.8)	154,180 (51.1)	35,640 (48.6)	220,423 (50.6)
	전체	539,721	301,651	73,379	435,735
투표자수		292,420	158,963	37,876	218,198
투표율		54.2	52.7	51.6	50.1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보시스템

나. 설문지의 구성과 분석방법

설문지의 구성은 크게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투표 및 정치관심도, 여성후보에 대한 관심과 투표여부, 여성후보 선택의 기준, 후보나 정당 선택에 영향을 준 사건 및 매체, 정치성향 및 인지도, 향후 여성의원 증가에 대한 견해, 향후 여성정치인에 대한 전망 등이다. 다음은 각 항목별 세부 문항에 대한 내용이다.

〈표 Ⅲ-2〉 설문지의 구성

구 분	질 문 항 목
가. 투표 및 정치관심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표여부 · 정치 및 선거에 대한 평소의 관심도 · 정당에 대한 투표 · 선택 후보의 결정시기
나. 여성후보에 대한 관심과 투표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후보 출마의 의미 · 지역구에 출마한 여성후보의 인지 시기 · 여성후보에 투표 여부
다. 여성후보 선택의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후보에 투표한 기준(인물, 정당) · 인물 평가에 고려된 요소 · 정당 평가에 고려된 요소

구 분	질 문 항 목
라. 후보나 정당선택에 영향을 준 사건 및 매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보나 정당의 선택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준 사건 · 여성단체들의 여성후보에 대한 지원활동 인지 정도 · 여성후보 인지에 영향을 준 매체 · 지지후보 결정에 영향을 준 매체
마. 정치성향 및 인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 정책에 가장 앞선 정당 · 여성을 가장 잘 대변할 것 같은 정당
바. 향후 여성의원 증가에 대한 견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여성의원 증가에 대한 견해 · 여성의원 증가를 위해 바람직한 방법 · 여성국회의원이 많아질 때 예상되는 정치·사회 변화
사. 향후 여성정치인에 대한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 시도지사에 출마에 대한 찬반 견해 · 여성 시도지사 선출시기에 대한 견해

조사의 설계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조사로 실시하였으며, 표집방법은 지역별 유의할당 후 지역내 성인 인구수에 의한 다단계층화추출법을 사용하였고, 95% 신뢰수준에서 최대 허용오차는 $\pm 3.46\%p$ 이다. 분석방법은 SPSS를 이용하여 빈도, 교차분석(χ^2), 다변인분석, T-test 등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조사 분석시 제5회 지방선거의 성별/연령별 투표율이 아직 공표되지 않아 제4회 지방선거의 성별/연령별 투표율을 사용하여 가중 분석하였다. 한편, 조사결과는 지역별, 성별, 연령별 분석을 하였으며, 조사문항에 따라 세가지 분석결과를 모두 보여주거나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결과만을 본문에서 제시하였으며, 나머지는 부표로 처리하였다.

다. 조사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연령별로는 만 19~29세 16.0%, 만 30~39세 21.4%, 만 40~49세 24.9%, 만 50세 이상이 37.7%이며, 소득별로는 150만원 미만 21.4%, 150~300만원 미만 28.4%, 300~500만원 미만 30.0%, 500만원 이상 12.6%, 학력별로는 중졸 이하 17.3%, 고졸이 33.7%, 대재 이상 48.0%이며, 직업별로는 가정주부 28.1%, 블루칼라 26.4%, 화이트칼라 23.1%로 나타났다. 4개 지역에 대한 분포를 보면, 서울 송파구, 서울 광진구, 인천 중구, 인천 부평구 각 25.0%씩 조사되었다. 혼인여부별로는 기혼(77.1%)이 많았고, 자녀여부별로는 아들.

딸 모두 있다(60.6%)와 출신지별로는 인천/경기(25.0%)와 서울(24.8%)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Ⅲ-3〉 응답자의 일반적 사항

단위: 명(%)

		남성		여성		전체	
		399	(49.8)	401	(50.2)	800	(100.0)
연령	만19~29세	68	(52.8)	61	(47.2)	128	(100.0)
	만30~39세	82	(47.6)	90	(52.4)	171	(100.0)
	만40~49세	101	(50.6)	98	(49.4)	199	(100.0)
	만50세 이상	149	(49.3)	153	(50.7)	301	(100.0)
학력	중졸 이하	51	(37.2)	87	(62.8)	138	(100.0)
	고졸	129	(47.9)	140	(52.1)	270	(100.0)
	대학교 재학 이상	214	(55.6)	170	(44.4)	384	(100.0)
	모름/ 무응답	5	(56.1)	4	(43.9)	8	(100.0)
소득	150만원 미만	84	(49.2)	87	(50.8)	171	(100.0)
	150~300만원 미만	128	(56.3)	99	(43.7)	227	(100.0)
	300~500만원 미만	122	(50.9)	118	(49.1)	240	(100.0)
	500만원 이상	45	(45.2)	55	(54.8)	101	(100.0)
	모름/ 무응답	19	(31.2)	42	(68.8)	61	(100.0)
직업	블루칼라	161	(76.0)	51	(24.0)	212	(100.0)
	화이트칼라	99	(53.5)	86	(46.5)	185	(100.0)
	가정주부	0	(.0)	225	(100.0)	225	(100.0)
	학생	34	(54.7)	28	(45.3)	62	(100.0)
	기타	105	(90.4)	11	(9.6)	116	(100.0)
지역	서울 송파구	98	(48.8)	102	(51.2)	200	(100.0)
	서울 광진구	99	(49.7)	101	(50.3)	200	(100.0)
	인천 중구	102	(51.1)	98	(48.9)	200	(100.0)
	인천 부평구	100	(49.8)	100	(50.2)	200	(100.0)

		남성		여성		전체	
		399	(49.8)	401	(50.2)	800	(100.0)
출신 지역	서울	97	(48.6)	102	(51.4)	198	(100.0)
	인천/ 경기	109	(54.4)	91	(45.6)	200	(100.0)
	강원	19	(51.2)	18	(48.8)	37	(100.0)
	대전/ 충청	55	(46.9)	62	(53.1)	118	(100.0)
	광주/ 전라	53	(46.8)	60	(53.2)	113	(100.0)
	대구/ 경북	30	(50.2)	29	(49.8)	59	(100.0)
	부산/ 울산/ 경남	16	(43.7)	21	(56.3)	37	(100.0)
	제주	0	(.0)	1	(100.0)	1	(100.0)
	이북/ 기타	13	(61.0)	8	(39.0)	21	(100.0)
	모름/ 무응답	8	(48.8)	8	(51.2)	16	(100.0)
혼인 여부	미혼	104	(56.6)	79	(43.4)	183	(100.0)
	기혼	295	(47.8)	322	(52.2)	617	(100.0)
자녀 여부	아들만	64	(44.8)	79	(55.2)	143	(100.0)
	딸만	34	(46.5)	39	(53.5)	73	(100.0)
	아들, 딸 모두	182	(48.8)	192	(51.2)	374	(100.0)
	없음	13	(50.5)	12	(49.5)	25	(100.0)
	모름/ 무응답	2	(100.0)	0	(.0)	2	(100.0)

2. 남녀유권자의 투표행태

가. 투표 및 정치관심도

1) 정치 및 선거에 대한 평소의 관심도

정치 및 선거에 대한 평소의 관심도⁶⁾에 대해 인천 중구가 34.1%로 타 지역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고, 성별 관심도의 경우 남성은 36.1%, 여성은 26.1%가 관심이 있다고 응답하여, 성별 정치에 대한 관심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4〉 지역별 선거관심도

단위: 명(%)

	서울 송파구	서울 광진구	인천 중구	인천 부평구	전체
매우 많다	16 (8.2)	26 (13.2)	27 (13.5)	23 (11.4)	93 (11.6)
많은 편이다	49 (24.3)	29 (14.7)	41 (20.6)	38 (18.8)	157 (19.6)
보통이다	93 (46.7)	96 (47.9)	87 (43.4)	87 (43.5)	363 (45.4)
없는 편이다	40 (19.8)	39 (19.5)	36 (18.2)	41 (20.4)	156 (19.5)
전혀 없다	1 (.5)	9 (4.7)	8 (3.8)	12 (5.9)	30 (3.7)
모름/무응답	1 (.5)	0 (.0)	1 (.5)	0 (.0)	2 (.2)
계	200 (100.0)	200 (100.0)	200 (100.0)	200 (100.0)	800 (100.0)

〈표 Ⅲ-5〉 성별 선거관심도

단위: 명(%)

	남성	여성	전체
매우 많다	61 (15.3)	31 (7.8)	93 (11.6)
많은 편이다	83 (20.8)	73 (18.3)	157 (19.6)
보통이다	167 (41.8)	196 (48.9)	363 (45.4)
없는 편이다	73 (18.3)	83 (20.7)	156 (19.5)
전혀 없다	15 (3.6)	15 (3.8)	30 (3.7)
계	399 (100.0)	401 (100.0)	800 (100.0)

$\chi^2=13.380$ df=4 p=.010

6) 관심도 있음은 ‘매우 많다’와 ‘많은 편이다’의 응답 합계 값임.

선거관심도는 연령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커서, 선거에 관심이 매우 많다는 응답이 만 19~29세 4.9%, 만 30~39세 6.1%, 만 40~49세 12.1%, 만 50세 이상 17.2% 이었다. 한편, 소득에 따른 선거관심도와 학력에 따른 선거관심도에서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부표 1, 2).

〈표 Ⅲ-6〉 연령별 선거관심도

단위: 명(%)

	만 19~29세	만 30~39세	만 40~49세	만 50세 이상	전체
매우 많다	6 (4.9)	10 (6.1)	24 (12.1)	52 (17.2)	93 (11.6)
조금 있다	13 (10.0)	32 (18.6)	29 (14.6)	83 (27.5)	157 (19.6)
보통 이다	64 (49.8)	82 (48.0)	107 (53.5)	111 (36.7)	363 (45.4)
별로 없다	37 (28.8)	40 (23.5)	32 (15.9)	47 (15.6)	156 (19.5)
전혀 없다	8 (6.5)	6 (3.4)	8 (3.9)	8 (2.6)	30 (3.7)
모름/무응답	0 (.0)	1 (.6)	0 (.0)	1 (.3)	2 (.2)
계	128 (100)	171 (100)	199 (100)	301 (100)	800 (100)

$\chi^2=59.341$ df=12 p=.000

2) 기초의회 비례대표제 투표 지지정당

이번 지방선거는 지역구 출마 후보에 한 표, 정당에 한 표를 찍는 1인 2표제였기 때문에 정당투표에 대한 질문을 포함하였다. 기초의회 비례대표제 투표 지지정당에 대해 어느 정당을 지지하였는가라는 질문에 응답 대상 지역인 4개 지역 중 서울 2개 지역은 한나라당(송파구 51.6%, 광진구 43.2%)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인천 2개 지역은 민주당(중구 49.1%, 부평구 42.2%)이 높게 나타났다. 이 같은 정당 지지도는 뒤에서 살펴보게 될 기초단체장 투표와 연결된다.

남녀 응답자의 경우 약 80%가 집권여당인 한나라당(남 42.1%, 여 39.2%)과 제1야당인 민주당(36.7%, 38.8%)에 투표한 것으로 응답되었다. 그 밖에 남자의 경우 민주노동당 4.7%, 국민참여당 1.6%, 여자의 경우 진보신당 1.6%, 자유선진당 1.3% 순으로 응답되었다.

〈표 Ⅲ-7〉 지역별 투표 정당

단위: 명(%)

	서울 송파구		서울 광진구		인천 중구		인천 부평구		전체	
한나라당	103	(51.6)	86	(43.2)	66	(32.8)	70	(34.9)	325	(40.6)
민주당	53	(26.3)	67	(33.4)	98	(49.1)	84	(42.2)	302	(37.7)
자유선진당	1	(.5)	2	(1.2)	3	(1.4)	1	(.4)	7	(.9)
민주노동당	8	(3.9)	4	(1.8)	6	(2.8)	7	(3.4)	24	(3.0)
진보신당	1	(.4)	2	(1.2)	4	(2.1)	1	(.4)	8	(1.0)
국민참여당	3	(1.6)	2	(.9)	4	(2.1)	1	(.7)	10	(1.3)
미래연합	1	(.5)	0	(.0)	0	(.0)	0	(.0)	1	(.1)
기권했다	1	(.4)	4	(2.2)	3	(1.6)	5	(2.7)	14	(1.8)
모름/무응답	29	(14.7)	32	(16.2)	16	(8.0)	30	(15.2)	108	(13.5)
계	200	(100.0)	200	(100.0)	200	(100.0)	200	(100.0)	800	(100.0)

〈표 Ⅲ-8〉 성별 투표 정당

단위: 명(%)

	남성		여성		전체	
한나라당	168	(42.1)	157	(39.2)	325	(40.6)
민주당	146	(36.7)	156	(38.8)	302	(37.7)
자유선진당	2	(.5)	5	(1.3)	7	(.9)
민주노동당	19	(4.7)	5	(1.2)	24	(3.0)
진보신당	2	(.5)	6	(1.6)	8	(1.0)
국민참여당	6	(1.6)	4	(1.0)	10	(1.3)
미래연합	1	(.3)	0	(.0)	1	(.1)
기권했다	7	(1.9)	7	(1.7)	14	(1.8)
모름/무응답	47	(11.8)	61	(15.3)	108	(13.5)
계	399	(100.0)	401	(100.0)	800	(100.0)

정당에 대한 투표를 연령별로 비교해보면, 높은 연령층일수록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가 높고, 낮은 연령층에서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부표 3).

3) 선택후보의 결정시기

선택후보의 결정시기에 대해 인천 중구 응답자 중 38.2%가 투표 한달 이전에 결정했다고 응답하였고, 서울 광진구 응답자중 33.3%가 투표 1주일 전 결정을 했다고 응답하였다.

남성 34.4%, 여성 26.8%가 투표 한달 이전에 결정했다고 응답하였고, 투표 2-3주전이라는 응답도 남성 9.7%, 여성 10.6%, 투표 1주일 전은 남성 22.5%, 여성 27.0%로 상당수의 응답자들이 이미 투표일 전 후보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표 Ⅲ-9〉 지역별 후보 결정 시기

단위: 명(%)

	서울 송파구	서울 광진구	인천 중구	인천 부평구	전체
투표 당일	31 (15.6)	15 (7.4)	20 (10.2)	30 (14.8)	96 (12.0)
투표 2~3일전	50 (25.0)	25 (12.7)	46 (23.1)	43 (21.6)	165 (20.6)
투표 1주일전	53 (26.4)	67 (33.3)	39 (19.3)	40 (20.0)	198 (24.8)
투표 2~3주전	14 (7.0)	33 (16.6)	14 (7.1)	20 (9.9)	81 (10.2)
투표 한달 이전	49 (24.6)	58 (29.0)	76 (38.2)	61 (30.5)	245 (30.6)
모름/무응답	3 (1.4)	2 (1.0)	4 (2.1)	7 (3.3)	16 (1.9)
계	200 (100.0)	200 (100.0)	200 (100.0)	200 (100.0)	800 (100.0)

〈표 Ⅲ-10〉 성별 후보 결정 시기

단위: 명(%)

	남성	여성	전체
투표 당일	49 (12.3)	47 (11.7)	96 (12.0)
투표 2~3일전	79 (19.8)	86 (21.3)	165 (20.6)
투표 1주일전	90 (22.5)	108 (27.0)	198 (24.8)
투표 2~3주전	39 (9.7)	42 (10.6)	81 (10.2)
투표 한달 이전	137 (34.4)	107 (26.8)	245 (30.6)
모름/무응답	5 (1.3)	10 (2.6)	16 (1.9)
계	399 (100.0)	401 (100.0)	800 (100.0)

후보결정시기에 대한 성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연령별 차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투표 1주일 이전에 지지후보를 결정하였다고 응답하였으나, 이를 연령별로 보면 만 19~29세 46.7%, 만 30~39세 60.5%, 만 40~49세 71.0%, 만 50세 이상 72.7%로 높은 연령층일수록 지지후보를 일찍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표 Ⅲ-11〉 연령별 후보 결정 시기

단위: 명(%)

	만 19~29세	만 30~39세	만 40~49세	만 50세 이상	전체
투표 당일	22 (17.1)	23 (13.3)	20 (9.8)	32 (10.5)	96 (12.0)
투표 2~3일전	42 (32.4)	43 (25.2)	37 (18.4)	43 (14.4)	165 (20.6)
투표 1주일 전	30 (23.8)	45 (26.5)	51 (25.7)	71 (23.5)	198 (24.8)
투표 2~3주전	13 (10.2)	19 (11.2)	27 (13.7)	22 (7.2)	81 (10.2)
투표 한달 이전	16 (12.7)	39 (22.8)	63 (31.6)	126 (42.0)	245 (30.6)
모름/무응답	5 (3.8)	2 (1.1)	2 (.8)	7 (2.4)	16 (1.9)
계	128 (100.0)	171 (100.0)	199 (100.0)	301 (100.0)	800 (100.0)

 $\chi^2=56.836$ df=12 p=.000

* 주 : 투표 1주일 이전 결정은 ‘투표 한달 이전’, ‘투표 2~3주전’, ‘투표 1주일전’의 응답 합계 값임.

나. 여성후보에 대한 관심과 투표여부

1) 여성후보 출마의 의미

다른 지역구와 달리 조사대상자들의 지역에 여성후보가 출마한 것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고 있는지 질문하여 보았다.

여성정치참여 확대라는 응답이 26.2%로 가장 높게 나왔고, 별 의미 없음 22.9%, 깨끗한 정치구현 기여 17.9%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송파구가 여성정치참여 확대에 32.4%의 비교적 높은 응답을 나타내었고, 별 의미 없음의 응답의 경우 인천 중구가 26.8%의 응답을 보여 조사지역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여성후보 출마의 의미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별 의미 없음 25.7%, 여성정치참여 확대 21.4% 순으로 나타난 반면, 여성은 여성정치참여 확대 30.8%, 별 의미 없음 20.1%로 나타났다. 여성후보가 출마한 의미에 대해 성별에 따른 의식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송파구의 경우 여성정치참여 확대에 많은 의견이 나왔는데, 송파구 전임 구청장도 여성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 지역에서는 여성 구청장에 대한 유권자의 인식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읽혀진다. 한편, 여성후보 출마의 의미에 대해서 ‘여성정치참여 확대’나 ‘별 의미없다’는, 현상을 인식하는 수준과 향후 사회변화에 대한 인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성별응답의 경우, 현상변화를 인식하는 유권자가 많았고, 이후의 사회변화에 대해서는 정치문화 변화나 남녀평등 쪽에 무게를 두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여성의 참여가 곧 남녀평등으로 이어진다고 보았던 예전의 인식에서 나아가 깨끗한 정치구현이라는 일반적인 정치문화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유권자들의 인식이 확대되고 있었다.

〈표 Ⅲ-12〉 지역별 여성후보 출마한 의미

단위: 명(%)

	서울 송파구	서울 광진구	인천 중구	인천 부평구	전체
여성정치참여 확대	65 (32.4)	46 (23.2)	47 (23.8)	50 (25.1)	209 (26.2)
별 의미 없음	39 (19.5)	45 (22.7)	53 (26.8)	45 (22.4)	183 (22.9)
깨끗한 정치 구현에 기여	42 (21.1)	36 (17.9)	29 (14.6)	36 (18.1)	143 (17.9)
남녀평등 실현에 기여	31 (15.7)	36 (18.2)	34 (17.2)	34 (16.8)	136 (17.0)
정당차원의 여성정책 실현	17 (8.5)	23 (11.4)	13 (6.3)	20 (10.2)	73 (9.1)
모름/무응답	5 (2.7)	13 (6.5)	22 (11.2)	15 (7.3)	55 (6.9)
계	200 (100.0)	200 (100.0)	199 (100.0)	200 (100.0)	799 (100.0)

〈표 Ⅲ-13〉 성별 여성후보 출마한 의미

단위: 명(%)

	남성	여성	전체
여성정치참여 확대	85 (21.4)	124 (30.8)	209 (26.2)
별 의미 없음	102 (25.7)	80 (20.1)	183 (22.9)
깨끗한 정치 구현에 기여	70 (17.5)	74 (18.4)	143 (17.9)
남녀평등 실현에 기여	72 (18.2)	63 (15.8)	136 (17.0)
정당차원의 여성정책 실현	37 (9.2)	36 (9.1)	73 (9.1)
모름/무응답	32 (8.0)	24 (5.9)	55 (6.9)
계	397 (100.0)	401 (100.0)	799 (100.0)

 $\chi^2=10.501$ df=4 p=.033

여성후보가 출마한 의미에 대해 당선지역과 낙선지역 별로 나누어보았다. 당선지역에서는 여성정치참여 확대라는 응답이 28.8%, 별 의미 없음 21.0%로 나타난 반면, 낙선지역에서는 별 의미 없음이라는 응답이 24.8%, 여성정치참여 확대가 23.5%로 나타나 당선지역 대비 낙선지역에서 여성정치참여에 대한 의미부여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다시 당선지역과 낙선지역 내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당선지역 내에서는 성별에 따른 인식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낙선지역에서는 여성정치참여 확대에 대해 남녀 의견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남성 17.2%, 여성 29.9%). 특히 낙선지역 남성유권자의 경우, 여성후보 출마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14〉 당·낙선지역별 여성후보 출마한 의미

단위: 명(%)

	당선지역			낙선지역*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여성정치참여 확대	51 (25.7)	64 (31.8)	115 (28.8)	34 (17.2)	59 (29.9)	94 (23.5)
별 의미 없음	42 (21.4)	42 (20.5)	84 (21.0)	60 (29.9)	39 (19.6)	99 (24.8)
깨끗한 정치 구현에 기여	37 (18.7)	41 (20.5)	78 (19.6)	33 (16.3)	32 (16.2)	65 (16.3)
남녀평등 실현에 기여	33 (16.6)	32 (16.0)	65 (16.3)	40 (19.8)	31 (15.6)	71 (17.7)
정당차원의 여성정책 실현	23 (11.5)	15 (7.3)	37 (9.4)	14 (6.9)	22 (10.9)	35 (8.9)
모름/무응답	12 (6.0)	8 (4.0)	20 (5.0)	20 (9.9)	16 (7.8)	35 (8.9)
계	197 (100.0)	203 (100.0)	400 (100.0)	200 (100.0)	199 (100.0)	399 (100.0)

* $\chi^2=14.098$ df=4 p=.007

2) 지역구에 출마한 여성후보의 인지 시기

지역구에 출마한 여성후보를 알게 된 시점에 대해 질문하였다. 전체의 58.9%가 지방선거를 통하여 여성후보를 인지하였다는 응답을 나타냈으며, 지방선거 이전부터 인지하였다는 응답은 전체의 29.6%였다.

성별 차이를 보면, 여성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여성후보를 인지하였다(남 53.9%, 여 63.8%)는 응답을 보인 반면, 남성은 여성에 비하여 지방선거 이전부터 여성후보를 인지하고 있었다(남 33.3% 여 25.9%, 부표 4)는 응답을 보여 남녀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⁷⁾.

후보인지시기에 있어서는 조사대상 전체가 여성후보가 출마한 지역이라는 점, 당선과 낙선지역으로 구분되어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역별 차이

7) 후보에 대한 인지에 있어서 성별 차이도 중요하지만, 전체 조사대상 지역이 여성후보가 출마한 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지역별 차이를 보여주는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본문에서는 지역별 결과만을 제시하였음.

를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지역별 결과에서, 당선지역 남녀 응답자들의 여성후보에 대한 인지가 낙선지역에 비해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 후보 출마 사실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라는 응답자가 당선지역인 서울 송파구 91.5%, 인천 부평구 90.3%에 이른 반면, 낙선지역인 서울 광진구에서는 88.4%, 인천 중구에서는 83.9%로서, 80%를 넘는 인지도도 높은 수준이지만, 당선지역에 비해서는 낮았다.

〈표 Ⅲ-15〉 지역별 출마한 여성후보 인지 시기

단위: 명(%)

	서울 송파구	서울 광진구	인천 중구	인천 부평구	전체
지방선거 이전부터	37 (18.5)	39 (19.5)	108 (53.9)	53 (26.6)	237 (29.6)
지방선거를 통해서	146 (73.0)	138 (68.9)	60 (30.0)	127 (63.7)	471 (58.9)
여성후보가 출마한지 몰랐다	16 (7.9)	19 (9.3)	30 (15.0)	16 (8.2)	81 (10.1)
모름/무응답	1 (.5)	5 (2.3)	2 (1.1)	3 (1.5)	11 (1.4)
계	200 (100.0)	200 (100.0)	200 (100.0)	200 (100.0)	800 (100.0)

 $\chi^2=101.541$ df=6 p=.000

* 주 : 여성후보에 대한 인지는 ‘지방선거 이전부터’와 ‘지방선거를 통해서’의 응답 합계 값임

연령별 여성후보의 인지시기를 보면, 지방선거 이전부터 여성후보 출마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는 응답이 만19~29세 22.5%, 만30~39세 23.5%, 만40~49세 31.8%, 만50대 이상 34.8%로 높은 연령층에서 지방선거 이전부터 여성후보 출마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는 반면, 여성후보가 출마한지 몰랐다는 응답도 만19~29세 16.0%, 만 50세 이상 8.0%로 낮은 연령대에서 인지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부표 5). 한편, 자녀여부별 분석에서는 이번 지방선거 이전부터 여성구청장 후보를 알고있었다는 응답이 딸만(38.4), 아들딸 모두(31.6%), 아들만(26.6%)의 순으로 나타나 딸만 있다고 응답한 유권자들의 경우, 여성후보에 대한 관심이 아들만 있는 유권자들보다 더 많은 것을 알수있었다(부표 5-1).

3) 여성후보에 투표 여부

응답자들이 여성후보와 남성후보 중 어느 쪽에 투표하였는지 질문하였다. 지역별로는 여성후보 당선지역인 서울 송파구(57.7%)와 인천 부평구(47.2%)가 낙선지역인 서울 광진구(34.2%), 인천 중구(30.7%)보다 높은 응답이 나타났으며, 여성후보에 투표한 응답자는 남성 38.3%, 여성 47.0%로 여성이 남성보다 여성후보에 더 많이 투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체적인 투표결과는 여성후보에 투표한 응답자 42.7%, 남성후보에 투표한 응답자 53.3%로 전체 유권자는 남성후보에게 더 많이 투표하였지만, 여성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는 여성이 더 많았다는 사실은 지난 2002년 선거부터 지속되는 현상이며⁸⁾ 결국 여성후보에 대한 여성유권자가 더 많이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표 Ⅲ-16〉 지역별 투표 후보

단위: 명(%)

	서울 송파구	서울 광진구	인천중구	인천 부평구	전체
여성후보에 투표	106 (57.7)	62 (34.2)	52 (30.7)	87 (47.2)	307 (42.7)
남성후보에 투표	71 (38.8)	111 (61.4)	114 (67.3)	86 (46.8)	383 (53.3)
모름/무응답	6 (3.5)	8 (4.4)	3 (2.0)	11 (6.0)	29 (4.0)
계	184 (100.0)	181 (100.0)	170 (100.0)	184 (100.0)	719 (100.0)

$$\chi^2=39.693 \text{ df}=3 \text{ p}=.000$$

8) 김은경, 2002. “16대 총선을 통해 본 남녀유권자의 여성후보 선택요인”, 『페미니즘 연구』 1호, pp. 243-77.

〈표 Ⅲ-16-1〉 성별 투표 후보

단위: 명(%)

	남성		여성		전체	
여성후보에 투표	136	(38.3)	171	(47.0)	307	(42.7)
남성후보에 투표	204	(57.6)	179	(49.1)	383	(53.3)
모름/무응답	15	(4.1)	14	(3.9)	29	(4.0)
계	355	(100.0)	364	(100.0)	719	(100.0)

 $\chi^2=6.338$ df=1 p=.012

한편, 당선지역과 낙선지역으로 구분하면, 여성후보에 대한 여성유권자의 지지는 더욱 두드러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낙선지역에서는 남녀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당선지역 내에서는 남성 49.8%가 남성후보에 투표한 반면, 여성은 55.0%가 여성후보에 투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낙선지역에서는 남성 66.8%, 여성 62.7%가 남성에 투표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남성 유권자의 표심도 중요하지만, 여성후보가 당선되는 데는 여성유권자의 투표행태가 좀 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표 Ⅲ-17〉 당 · 낙선지역별 투표후보

단위: 명(%)

	당선지역			낙선지역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여성후보에 투표	81 (41.3)	111 (55.0)	193 (48.2)	54 (27.0)	60 (30.1)	114 (28.6)
남성후보에 투표	98 (49.8)	77 (37.9)	175 (43.8)	135 (66.8)	125 (62.7)	259 (64.8)
모름/무응답	18 (8.9)	14 (7.1)	32 (8.0)	12 (6.2)	14 (7.1)	27 (6.7)
계	197 (100.0)	203 (100.0)	400 (100.0)	201 (100.0)	199 (100.0)	400 (100.0)

* $\chi^2=6.991$ df=1 p=.008

한편, 여성후보에 투표한 유권자의 출신지역별 분석을 살펴보면, 부산·울산·경남(54.1%), 대전·충청(44.9%), 강원(42.1%), 광주·전라(38.9%) 지역이 비

교적 여성후보에 투표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부표 6). 소득수준별 분석에서는 본 조사가 150만원을 단위로 기준을 잡았으나, 소득계층간 응답에 일관성이 없게 나타나 통계상의 의미가 없었다(부표 6-1). 또한 자녀유무별 분석에서는 여성후보에 대한 인지에 있어서는 딸만 가진 유권자가 우세하였으나, 투표에 있어서는 아들·딸 모두(45.2%), 딸만(39.7%), 아들만(37.8%)로 나타나 자녀성비가 후보인지에는 영향을 미쳤을지 몰라도 투표행태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부표 6-2).

다. 여성후보 선택의 기준

1) 여성후보에 투표한 기준(인물, 정당)

여성후보에 투표한 응답자들이 어떤 기준을 가졌었는지 질문해 보았다. 정당을 고려한 경우가 남녀 각각 43.7%, 39.6%로 가장 많았다. 서울 송파구와 서울 광진구의 경우 여성후보 투표 기준에 정당(50.4%, 45.5%)을 가장 많이 선택한 반면, 인천 중구의 경우 공약(55.6%)을 선택하였다.

한편, 공약과 인물에 대한 응답은 남녀가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었는데, 남성의 경우 인물 30.0%, 공약 25.7%, 여성의 경우 공약 36.1%, 인물 22.5%로 응답하였다. 궁극적으로 남성의 경우 정당, 인물, 공약 순으로 투표 기준을 보였으나, 여성의 경우 정당, 공약, 인물 순으로 투표 기준을 보였으며, 공약을 고려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남성에 비해 높았다. 한편, 출신지역별로는 의미가 없었으며, 소득별로는 소득이 높은 집단일수록 정당을, 소득이 낮은 집단일수록 인물을 고려하였으며, 공약에 대해서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일정하였다(부표 7).

〈표 Ⅲ-18〉 지역별 여성후보 투표 기준

단위: 명(%)

	서울 송파구	서울 광진구	인천 중구	인천 부평구	전체
정당	54 (50.4)	28 (45.5)	13 (24.2)	33 (37.7)	127 (41.4)
공약	30 (28.3)	12 (19.4)	29 (55.6)	26 (29.6)	97 (31.5)
인물	21 (20.0)	22 (35.1)	8 (15.3)	28 (32.7)	79 (25.8)
모름/무응답	1 (1.4)	0 (.0)	3 (4.9)	0 (.0)	4 (1.3)
계	106 (100.0)	62 (100.0)	52 (100.0)	87 (100.0)	307 (100.0)

〈표 Ⅲ-19〉 성별 여성후보 투표 기준

단위: 명(%)

	남성	여성	전체
정당	59 (43.7)	68 (39.6)	127 (41.4)
공약	35 (25.7)	62 (36.1)	97 (31.5)
인물	41 (30.0)	39 (22.5)	79 (25.8)
모름/무응답	1 (.6)	3 (1.9)	4 (1.3)
계	136 (100.0)	171 (100.0)	307 (100.0)

이 같은 투표기준이 당선지역과 낙선지역에서는 어떻게 구별되어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당선지역에서는 남성은 정당(47.8%), 인물(30.4%), 공약(21.8%) 순으로 나타난 반면, 여성은 정당(42.4%), 공약(34.1%), 인물(22.2%)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낙선지역의 응답을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정당(37.5%), 공약(31.7%), 인물(29.3%) 순으로 나타난 반면, 여성은 공약(39.8%), 정당(34.3%), 인물(23.1%) 순으로 나타났다.

결국, ‘정당’ 요인이 당선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의미인데, 정당의 지지도가 형성된 지역을 중심으로 여성후보의 전략공천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표 Ⅲ-20〉 당·낙선지역별 여성후보 투표 기준

단위: 명(%)

	당선지역			낙선지역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정당	39 (47.8)	47 (42.4)	86 (44.7)	20 (37.5)	20 (34.3)	41 (35.8)
공약	18 (21.8)	38 (34.1)	56 (28.9)	17 (31.7)	24 (39.8)	41 (35.9)
인물	25 (30.4)	25 (22.2)	50 (25.7)	16 (29.3)	14 (23.1)	30 (26.0)
모름/무응답	0 (.0)	1 (1.3)	1 (.7)	1 (1.5)	2 (2.9)	3 (2.2)
계	81 (100.0)	111 (100.0)	193 (100.0)	54 (100.0)	60 (100.0)	114 (100.0)

2) 인물 평가에 고려된 요소

응답자들은 여성후보에게 투표 시 인물에 기준을 둔 경우 특히 어떠한 요소를 고려하는지 질문하였다. 남녀 모두 평소의 지역구 활동으로 인물을 평가하는 응답자가 전체 41.0%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여성후보이기 때문에 27.6%, 후보자 학력 또는 정치경력 15.5%, 후보자 인지도 및 명망성 14.7% 순으로 인물 평가 요소를 꼽고 있었다. 이를 성별로 살펴보면, 지역구 활동에 대해서는 남성응답자가, 여성후보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여성응답자가 더 높은 비중을 두고 평가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Ⅲ-21〉 성별 인물 평가 요소

단위 : 명(%)

	남성	여성	전체
평소의 지역구 활동	20 (49.9)	12 (31.5)	32 (41.0)
여성후보이기 때문에	8 (20.7)	13 (34.9)	22 (27.6)
후보자 학력 또는 정치경력	7 (16.6)	5 (14.2)	12 (15.5)
후보자 인지도 및 명망성	5 (12.8)	6 (16.7)	12 (14.7)
모름/무응답	0 (.0)	1 (2.7)	1 (1.3)
계	41 (100.0)	39 (100.0)	79 (100.0)

조사 지역별로 인물의 기준이 어떠하였는가를 보기 위해 지역별로 비교하여 보았다. 서울 송파구에서는 후보자 학력 또는 정치경력이 35.5%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서울 광진구는 여성후보이기 때문에 35.7%, 인천 중구와 인천 부평구에서는 평소의 지역구 활동(86.8% 44.4%)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압도적인 요소는 지역구활동과 후보자 경력이었다.

〈표 Ⅲ-22〉 지역별 인물 평가 요소

단위: 명(%)

	서울 송파구	서울 광진구	인천 중구	인천 부평구	전체
평소의 지역구 활동	6 (26.1)	7 (34.2)	7 (86.8)	13 (44.4)	32 (41.0)
여성후보이기 때문에	3 (13.4)	8 (35.7)	1 (13.2)	10 (36.1)	22 (27.6)
후보자 학력 또는 정치경력	8 (35.5)	3 (12.9)	0 (.0)	2 (6.8)	12 (15.5)
후보자 인지도 및 명망성	4 (20.2)	4 (17.2)	0 (.0)	4 (12.8)	12 (14.7)
모름/무응답	1 (4.9)	0 (.0)	0 (.0)	0 (.0)	1 (1.3)
계	21 (100.0)	22 (100.0)	8 (100.0)	28 (100.0)	79 (100.0)

3) 정당 평가에 고려된 요소

여성후보에게 투표 시 정당에 기준을 둔 경우에 대해서도 응답자들의 생각을 물어 보았다. 서울 송파구(62.6%), 서울 광진구(46.3%), 인천 중구(62.3%)가 집권 정당이라는 것을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나, 인천 부평구의 경우 집권정당을 견제할 수 있는 야당이라는 것(56.6%)을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남녀 모두 집권 정당이라는 것을 중요시 여기는 응답자(남성 46.0%, 여성 44.4%)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정당의 정책 및 공약(32.5%, 31.8%)을 평가 요소로 응답하였다.

〈표 Ⅲ-23〉 지역별 정당 평가 요소

단위: 명(%)

	서울 송파구	서울 광진구	인천 중구	인천 부평구	전체
집권 정당이라는 것	34 (62.6)	13 (46.3)	8 (62.3)	3 (9.0)	57 (45.1)
정책 및 공약	15 (28.9)	11 (39.8)	4 (30.6)	10 (31.3)	41 (32.1)
집권정당을 견제할 수 있는 야당이라는 것	1 (1.9)	1 (4.5)	1 (7.1)	18 (56.6)	22 (17.1)
출신지역	1 (1.9)	2 (6.1)	0 (.0)	0 (.0)	3 (2.2)
모름/무응답	2 (4.6)	1 (3.4)	0 (.0)	1 (3.1)	4 (3.5)
계	54 (100.0)	28 (100.0)	13 (100.0)	33 (100.0)	127 (100.0)

정당 평가 요소를 당선지역과 낙선지역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당선지역과 낙선지역 모두 집권 정당이라는 것이 가장 큰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당선지역 42.3%, 낙선지역 51.2%). 그 다음으로, 정당의 정책 및 공약, 그리고 집권정당을 견제할 수 있는 야당 순으로 정당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여겼다.⁹⁾

조사대상 지역으로 정당에 대한 평가기준을 알아보기 위해 지역별 비교를 하였다. 지역별로 현재 집권정당 지지가 강한 곳과 야당 성향이 강한 곳에서 각각 정당요인을 선택한 이유도 달랐다. 서울 송파구, 서울 광진구, 인천 중구에서는 집권 정당이라는 것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나, 인천 부평구에서는 집권 정당을 견제할 수 있는 야당이라는 것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투표 시 선택에 영향을 미친 공약의 지역별 특징을 보면, 서울 송파구와 광진구는 경제 회복(18.7%, 15.6%)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인천 중구는 지역개발(21.7%), 인천 부평구는 청렴/합리적 정치(21.7%)가 가장 높은 응답으로 나타났다(부표 8).

9) 정당요인을 선택한 기준에 대해서는 당선지역과 낙선지역을 구분하는 표를 제시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한나라당 우세지역과 민주당 우세지역이 선택하는 정당요인이 서로 다를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

투표 시 선택에 영향을 끼친 공약으로는 청렴/합리적 정치(남성 21.4%, 여성 10.6%)가 가장 높았다. 여성관련 정책의 경우 전체의 10.4%로 경제 회복(11.2%)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공약으로 나타났다.

〈표 Ⅲ-24〉 성별 투표 시 선택에 영향 끼친 공약

단위: 명(%)

	남성	여성	전체
청렴/합리적 정치	7 (21.4)	7 (10.6)	14 (14.5)
경제 회복	7 (19.7)	5 (7.3)	11 (11.8)
지역 개발	7 (18.7)	3 (5.6)	10 (10.3)
교육 정책	2 (5.5)	5 (7.9)	7 (7.0)
복지 정책	0 (.0)	6 (10.1)	6 (6.4)
지역주민을 위한 봉사	2 (5.7)	3 (4.6)	5 (5.0)
여성관련 정책*	2 (6.2)	8 (8.8)	11 (10.4)
기타**	3 (9.4)	4 (5.8)	7 (7.3)
모름/무응답	8 (22.1)	24 (39.4)	32 (33.2)
계	35 (108.6)	62 (104.2)	97 (105.8)

*: 여성관련 정책은 ‘여성을 대변하는 정치’, ‘여성지위의 향상’, ‘여성 일자리 창출’, ‘여성복지’의 응답 합계 값임

**: 기타는 ‘새로운 정책’, ‘실천하는 사람’, ‘지역구를 깨끗하게’, ‘4대강사업’, ‘일자리 창출’, ‘도로환경공약’, ‘청소년관련 정책’의 응답 합계 값임.

라. 후보나 정당선택에 영향을 준 사건 및 매체

1) 후보나 정당의 선택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준 사건

응답자들이 후보나 정당을 선택하는데 있어 가장 큰 영향을 준 사건에 대해 질문하였다. 조사대상 4개 지역 모두 정부/집권층의 독선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남녀 응답자 모두 정부/집권층의 독선(남성 26.1%, 여성 21.7%)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고, 다음으로 천안함 사건(남성 17.3%, 여성 15.0%)과 4대강 사업(17.2%, 14.7%)이 비슷한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되

었다. 한편, 투표시 영향을 준 사건은 특정 지역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이슈였기 때문에, 특별히 지역별 구분을 하지 않았다(부표 9).

〈표 Ⅲ-25〉 성별 투표시 영향을 준 사건

단위: 명(%)

	남성		여성		전체
정부/집권층의 독선	104	(26.1)	87	(21.7)	191 (23.9)
천안함 사건	69	(17.3)	60	(15.0)	129 (16.2)
4대강 사업	69	(17.2)	59	(14.7)	127 (15.9)
교육개혁	18	(4.4)	38	(9.4)	55 (6.9)
친환경 무상급식	17	(4.4)	31	(7.7)	48 (6.1)
세종시 이전	24	(6.1)	23	(5.8)	48 (5.9)
집회결사 및 표현의 자유문제	6	(1.5)	12	(3.0)	18 (2.2)
기타	7	(1.8)	1	(1.0)	11 (1.4)
모름/무응답	85	(21.2)	87	(21.7)	172 (21.5)
계	399	(100)	401	(100)	800 (100)

2) 정당의 여성후보에 대한 지원활동 인지 정도

정당의 여성후보에 대한 지원활동의 적극성에 대해 응답자들의 의견을 물어보았다.¹⁰⁾ 인천 중구의 경우 29.8%가 적극적이었다는 의견을 보였지만 인천 부평구의 경우 19.1%만이 적극적이었다는 의견을 보였다.

〈표 Ⅲ-26〉 지역별 정당의 여성후보에 대한 지원 정도

단위: 명(%)

	서울 송파구		서울 광진구		인천 중구		인천 부평구		전체
매우 적극적이었다	14	(6.9)	15	(7.4)	10	(5.0)	9	(4.4)	48 (5.9)
대체로 적극적이었다	43	(21.3)	32	(15.9)	50	(24.8)	29	(14.7)	153 (19.2)

10) 적극적은 ‘매우 적극적이었다’와 ‘대체로 적극적이었다’의 응답 합계 값임
적극적이지 못함은 ‘전혀 적극적이지 못했다’와 ‘별로 적극적이지 못했다’의 응답 합계 값임

	서울 송파구	서울 광진구	인천 중구	인천 부평구	전체
보통이었다	91 (45.5)	88 (44.2)	78 (38.9)	101 (50.6)	358 (44.8)
별로 적극적이지 못했다	14 (7.1)	26 (12.9)	28 (14.0)	15 (7.4)	83 (10.3)
전혀 적극적이지 못했다	0 (.0)	1 (.5)	4 (2.1)	4 (1.9)	9 (1.1)
모름/무응답	39 (19.3)	38 (19.1)	30 (15.2)	42 (21.0)	149 (18.6)
계	200 (100.0)	200 (100.0)	200 (100.0)	200 (100.0)	800 (100.0)

전체적으로 응답자들은 여성단체들의 지원활동이 적극적이었다고 생각(남성 25.2%, 여성 25.0%)하지만 적극적이지 못했다는 의견(12.3%, 10.7%)도 있었다. 또한 응답에 대한 남녀별 차이는 크게 존재하지 않았다.

〈표 Ⅲ-27〉 성별 정당의 여성후보에 대한 지원 정도

단위: 명(%)

	남성	여성	전체
매우 적극적이었다	28 (7.0)	20 (4.9)	48 (5.9)
대체로 적극적이었다	73 (18.2)	81 (20.1)	153 (19.2)
보통이었다	176 (44.1)	182 (45.4)	358 (44.8)
별로 적극적이지 못했다	45 (11.3)	38 (9.4)	83 (10.3)
전혀 적극적이지 못했다	4 (1.0)	5 (1.3)	9 (1.1)
모름/무응답	73 (18.3)	76 (18.9)	149 (18.6)
계	399 (100.0)	401 (100.0)	800 (100.0)

3) 여성후보 인지·결정에 영향을 준 매체

응답자들이 여성후보를 인지하고 결정하는데 영향을 주는 매체들을 살펴 보았다. 후보 인지에 영향을 주는 주요 매체로는 선관위 홍보물 및 선전벽보(49.5%), 주위 사람들과의 대화(17.8%), TV(9.8%), 후보자 유세 및 전화선거 운동(7.8%) 등으로 나타났다. 후보 결정에 영향을 주는 주요 매체로는

선관위 홍보물 및 선전벽보(41.5%), 주위 사람들과의 대화(20.3%), TV (10.4%), 인터넷(9.7%) 등으로 나타났다. 즉 조사응답자들은 무엇보다 선관위 홍보물 및 선전벽보, 주위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후보를 인지하고 결정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매체 간 응답을 보면, 후보의 인지와 결정에서 남성(44.1%, 35.3%)보다는 여성(53.8%, 47.7%)이 선관위 홍보물 및 선전벽보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여성보다는 남성이 신문과 인터넷을 통한 영향을 많이 받았다. 선관위 홍보물은 후보의 인지에서는 49.5%의 영향을 미쳤으나 후보의 결정에서는 41.5%로 영향력이 감소한 반면, 주위사람들과의 대화(후보인지 17.8%, 후보결정 20.3%), 인터넷(후보인지 3.7%, 후보결정 9.7%)은 오히려 후보 결정 과정에 더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28〉 여성후보 인지 · 결정에 영향을 준 매체

단위: 명(%)

	후보 인지			지지후보 결정*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선관위 홍보물 및 선전벽보	60 (44.1)	92 (53.8)	152 (49.5)	141 (35.3)	192 (47.7)	332 (41.5)
주위사람들과의 대화	28 (20.3)	27 (15.7)	55 (17.8)	79 (19.9)	83 (20.7)	162 (20.3)
TV	11 (8.3)	19 (10.9)	30 (9.8)	46 (11.6)	37 (9.3)	83 (10.4)
후보자유세 및 전화 선거 운동	13 (9.6)	11 (6.3)	24 (7.8)	27 (6.7)	23 (5.7)	50 (6.2)
신문 · 잡지	10 (7.5)	10 (6.0)	21 (6.7)	27 (6.9)	24 (5.9)	51 (6.4)
인터넷	6 (4.1)	6 (3.3)	11 (3.7)	54 (13.5)	24 (6.1)	78 (9.7)
정당	4 (2.9)	2 (1.4)	6 (2.1)	14 (3.5)	6 (1.4)	20 (2.5)
없음	0 (.0)	3 (2.0)	3 (1.1)	6 (1.4)	1 (.3)	7 (.8)
모름/무응답	4 (3.0)	1 (.6)	5 (1.6)	5 (1.4)	12 (3.0)	17 (2.2)
전체	136 (100.0)	171 (100.0)	307 (100.0)	399 (100.0)	401 (100.0)	800 (100.0)

* $\chi^2=24.838$ df=7 p=.001

4) 여성정책에 가장 앞선 정당

여성정책에 가장 앞선 정당에 대한 응답자의 의견을 물어보았다. 서울 송파구, 서울 광진구, 인천 중구의 경우 한나라당(46.4%, 33.7%, 28.6%)이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으나, 인천 부평구의 경우 민주당(25.2%)이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다(부표 12).

성별 응답을 보면, 남녀 모두 한나라당(남성 31.6%, 여성 32.6%)에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고, 다음으로 민주당(23.2%, 23.8%), 민주노동당(7.7%, 2.5%)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여성정책에 가장 앞선 정당에 대한 남녀의 차이는 크게 존재하지 않았으나, 남성의 경우 여성에 비하여 민주노동당의 여성정책에 보다 높은 응답을 보였다. 여성을 가장 잘 대변할 정당에 대한 응답에서는 남성 31.7%, 여성 26.3%가 한나라당, 남성 20.1%, 여성 21.9%가 민주당이라는 응답을 보여 대체로 비슷하게 나타났다(부표 13).

〈표 Ⅲ-29〉 성별 여성정책에 가장 앞선 정당 판단

단위: 명(%)

	남성		여성		전체	
한나라당	126	(31.6)	131	(32.6)	257	(32.1)
민주당	92	(23.2)	95	(23.8)	188	(23.5)
자유선진당	2	(.5)	5	(1.1)	6	(.8)
민주노동당	31	(7.7)	10	(2.5)	41	(5.1)
진보신당	1	(.3)	5	(1.3)	6	(.8)
창조한국당	1	(.2)	0	(.0)	1	(.1)
국민참여당	1	(.2)	1	(.2)	2	(.2)
없음	0	(.0)	1	(.2)	1	(.1)
모름/무응답	145	(36.3)	154	(38.3)	298	(37.3)
계	399	(100.0)	401	(100.0)	800	(100.0)

여성을 가장 잘 대변할 것으로 판단되는 정당에 대한 조사 지역별 응답자의 의견은, 서울 송파구, 서울 광진구, 인천 중구는 한나라당(40.0%,

31.3%, 24.3%)에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고, 인천 부평구는 민주당(24.9%)에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다.

한편, 위의 두가지 질문은 조사대상 지역의 특성과 관련이 있음을 밝혀준다. 전체 4개 조사대상지역 중 한나라당 당선지역이 3군데였기 때문에, 조사대상자 가운데는 한나라당 지지자가 많이 있었다는 가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 조사결과는 일반적인 결과로 보아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런 점을 염두에 둘 때, 한나라당 당선지역인 서울 송파구, 서울 광진구, 인천 중구는 한나라당(40.0%, 31.3%, 24.3%)에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고, 민주당 당선지역인 인천 부평구는 민주당(24.9%)에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다.

〈표 Ⅲ-30〉 지역별 여성을 가장 잘 대변할 것으로 판단되는 정당

단위: 명(%)

	서울 송파구	서울 광진구	인천 중구	인천 부평구	전체
한나라당	80 (40.0)	63 (31.3)	49 (24.3)	41 (20.3)	232 (29.0)
민주당	37 (18.6)	41 (20.7)	39 (19.7)	50 (24.9)	168 (21.0)
자유선진당	1 (.7)	2 (.9)	1 (.4)	1 (.5)	5 (.6)
민주노동당	8 (4.0)	7 (3.4)	16 (8.1)	10 (5.1)	41 (5.1)
진보신당	1 (.4)	2 (1.1)	4 (1.9)	2 (1.1)	9 (1.1)
국민참여당	2 (1.2)	2 (1.0)	4 (1.9)	1 (.4)	9 (1.1)
없음	1 (.5)	0 (.0)	2 (1.2)	0 (.0)	3 (.4)
모름/무응답	69 (34.6)	83 (41.5)	85 (42.4)	95 (47.7)	333 (41.6)
계	200 (100.0)	200 (100.0)	200 (100.0)	200 (100.0)	800 (100.0)

여성정책에 가장 앞선 정당과 여성을 가장 잘 대변할 것으로 판단되는 정당에 대한 유권자 응답을 유권자 지지정당과의 관계로 분석해보았다. 지지정당, 즉 이번 기초의회 선거에서 비례대표 후보에 대한 정당투표를 기준으로(<표 Ⅲ-8>), 지지정당이 여성정책도 앞선다고 생각하는 유권자는 한나라당 지지자가 민주당 지지자보다 많았다. 즉, 한나라당 지지 유권자들은

한나라당이 여성정책에 있어서도 앞선정당이라는 생각을 했고(부표 12-1), 나아가 여성정책을 가장 잘 대변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정당 지지자들은 여성정책을 대변하는 정당으로 민주당을 꼽았다. 이렇게 하여, 지지정당과 여성을 대변하는 정당에 일치감을 보인 정당은, 한나라당 50.8%, 민주당 34.6%였으며, 한나라당과 민주당 지지를 제외한 나머지 정당 지지자들의 응답빈도는 매우 낮아 신뢰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다만, 지지정당의 여성관련 정책 옹호에 대해서는 여성정책에 앞선 정당이라는 것보다는, 여성을 잘 대변할 것 같은 정당이라는 데에 조금 더 많은 정당 일치감을 보여주었다.

〈표 Ⅲ-30-1〉 지지정당별 여성을 가장 잘 대변할 것으로 판단되는 정당

단위: 명(%)

	한나라 당	민주당	자유 선진당	민주 노동당	진보 신당	국민 참여당	미래 연합	기권 했다	모름/ 무응답	전체
한나라당	165 (50.8)	37 (12.3)	0 (0.0)	1 (4.3)	1 (12.5)	0 (0.0)	1 (100.0)	4 (26.7)	22 (20.4)	231 (28.9)
민주당	34 (10.5)	104 (34.6)	3 (42.9)	6 (26.1)	2 (25.0)	0 (0.0)	0 (0.0)	3 (20.0)	16 (14.8)	168 (23.4)
자유 선진당	1 (0.3)	3 (1.0)	0 (0.0)	0 (0.0)	0 (0.0)	1 (10.0)	0 (0.0)	0 (0.0)	0 (0.0)	5 (0.6)
민주 노동당	4 (1.2)	19 (6.8)	1 (14.3)	9 (39.1)	0 (0.0)	3 (30.0)	0 (0.0)	2 (13.3)	4 (3.7)	42 (5.3)
진보 신당	0 (0.0)	5 (1.7)	0 (0.0)	1 (4.3)	3 (37.5)	0 (0.0)	0 (0.0)	0 (0.0)	0 (0.0)	9 (1.1)
국민 참여당	1 (0.3)	2 (0.7)	0 (0.0)	1 (4.3)	0 (0.0)	2 (20.0)	0 (0.0)	0 (0.0)	2 (1.9)	8 (1.0)
없음	0 (0.0)	1 (0.3)	0 (0.0)	0 (0.0)	1 (12.5)	0 (0.0)	0 (0.0)	0 (0.0)	1 (0.9)	3 (0.4)
모름/ 무응답	120 (36.9)	130 (43.2)	3 (42.9)	5 (21.7)	1 (12.5)	4 (40.0)	0 (0.0)	6 (40.0)	63 (58.3)	332 (41.6)
전체	325 (100.0)	301 (100.0)	7 (100.0)	24 (100.0)	8 (100.0)	10 (100.0)	1 (100.0)	15 (100.0)	109 (100.0)	798 (100.0)

$\chi^2=429.993$ df=56 p=0.000

3. 남녀유권자의 정치관심도 및 정치의식

가. 향후 여성기초자치단체장 증가에 대한 견해

1) 향후 여성기초자치단체장 증가에 대한 견해

여성기초자치단체장이 지금보다 더 증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응답자 중 남성 61.7%, 여성 59.5%가 지금보다 더 증가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지금이 적당하다는데 대해 남성 23.3%, 여성 23.2%가 의견을 나타내었다. 지금보다 더 줄여야 한다는 응답은 남성 3.2%, 여성 5.1%가 더 줄여야 한다는 응답을 보여, 대체로 증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¹¹⁾

〈표 Ⅲ-31〉 성별 향후 여성기초자치단체장의 증감 여부

단위: 명(%)

	남성	여성	전체
대폭 증가해야	85 (21.4)	94 (23.5)	180 (22.5)
약간 증가해야	161 (40.3)	145 (36.0)	305 (38.2)
지금이 적당	93 (23.3)	93 (23.2)	186 (23.2)
약간 줄여야	12 (3.0)	17 (4.3)	29 (3.6)
대폭 줄여야	1 (.2)	3 (.7)	4 (.5)
모름/무응답	47 (11.8)	49 (12.3)	96 (12.0)
계	399 (100.0)	401 (100.0)	800 (100.0)

한편, 소득별 분석결과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증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타났다. 예를 들면, 대폭 증가해야 한다는 응답에, 150만원 미만 14%, 15-300만원 17.5%, 300-500만원 미만 25.5%, 500-700만원 미만 30.6%, 700만원 이상 34.5%로 집계되었다(부표 15-1). 향후 여성기초자치단체장이 증가해야 한다는 응답의 경우 여성후보에 투표자와 남성후보에 투표자와의 큰 차이는 없었다.

11) 증가해야 한다는 ‘대폭 증가해야’와 ‘약간 증가해야’의 응답 합계 값임.
줄여야 한다는 ‘대폭 줄여야’와 ‘약간 줄여야’의 응답 합계 값임.

2) 여성기초자치단체장 증가를 위해 바람직한 방법

여성기초자치단체장 증가를 위해 바람직한 방법의 질문에 4개 조사지역 모두 여성 후보 발굴 및 육성(송파구 32.3%, 광진구 34.0%, 중구 30.2%, 부평구 27.4%, 부표)이 가장 높은 응답을 나타내었으며, 법적·제도적 보장(9.1%, 11.6%, 11.5%, 13.8%)이 가장 낮은 응답을 나타냈다.

여성기초자치단체장 증가를 위해 바람직한 방법으로 여성후보 발굴 및 육성이라는 응답이 남녀 각각 29.9%, 32.2%로 가장 많이 나왔으며, 그 다음으로 정당의 여성후보 공천 확대 21.1%, 18.4%, 개인 여성들의 적극적인 도전 21.9%, 17.4%로 나타났다. 한편, 법적·제도적 보장에는 남녀 응답자 모두 낮은 응답을 보여 전체 11.5%로 가장 낮았다.

〈표 Ⅲ-32〉 성별 향후 여성기초자치단체장 증가를 위한 노력

단위: 명(%)

	남성	여성	전체
여성후보 발굴 및 육성	73 (29.9)	77 (32.2)	150 (31.0)
정당의 여성후보 공천 확대	52 (21.1)	44 (18.4)	96 (19.8)
개인 여성들의 적극적인 도전	54 (21.9)	42 (17.4)	95 (19.7)
유권자의 의식개선	34 (14.0)	38 (15.9)	72 (15.0)
법적·제도적 보장	25 (10.1)	31 (12.9)	56 (11.5)
모름/무응답	8 (3.1)	7 (3.1)	15 (3.1)
계	246 (100.0)	239 (100.0)	485 (100.0)

3) 여성기초자치단체장이 많아질 때 예상되는 정치·사회 변화

여성기초자치단체장이 증가될 때 예상되는 사회의 변화에 대해 사회 각 분야에 여성 참여증대에 서울 송파구(34.4%), 서울 광진구(38.2%), 인천 중구(29.5%), 인천 부평구(29.5%) 모두에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다(부표 17). 남녀 또한 남성 28.5%, 여성 37.3%로 사회 각 분야의 여성 참여증대에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고, 그 다음 남성은 부정부패 축소 27.2%, 생활정치 활성화 22.1%의 순인 반면, 여성은 생활정치 활성화 25.6%, 부정부패 축소

17.6%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Ⅲ-33〉 성별 여성기초자치단체장의 증가로 인한 사회의 변화

단위: 명(%)

	남성	여성	전체
사회 각 분야 여성 참여 증대	114 (28.5)	150 (37.3)	263 (32.9)
생활정치 활성화	88 (22.1)	103 (25.6)	191 (23.8)
부정부패 축소	108 (27.2)	71 (17.6)	179 (22.4)
대립과 갈등의 정치풍토 개선	34 (8.6)	27 (6.7)	61 (7.6)
남녀평등	1 (.2)	0 (.0)	1 (.1)
복지정책 개선	1 (.2)	0 (.0)	1 (.1)
부정부패 증가	0 (.0)	1 (.2)	1 (.1)
모름/무응답	52 (13.1)	51 (12.7)	103 (12.9)
계	399 (100.0)	401 (100.0)	800 (100.0)

여성구청장 증가로 인한 사회의 변화에 대한 당선지역과 낙선지역의 견해를 보면, 사회 각 분야 여성참여 증대(당선지역 31.9%, 낙선지역 33.9%)에 가장 많은 의견이 나왔고, 그 다음 당선지역에서는 부정부패 축소(23.6%), 생활정치 활성화(22.1%)의 순으로, 낙선지역에서는 생활정치 활성화(25.5%), 부정부패 축소(21.1%)의 순으로 많은 응답이 나타났다(부표 18).

나. 여성시도지사 출마에 대한 찬반과 당선시기

여성시도지사에 대한 찬반 견해에 대해, 조사 4개 지역 모두에서 약 80%의 높은 찬성을 나타냈으며, 남성 80.0%, 여성 82.2% 또한 찬성 의견을 보여 압도적으로 여성시도지사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한편, 연령별 찬반 의견에서는 다른 응답과 마찬가지로 낮은 연령층에서 찬성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학력별 찬반 의견에서도 높은 학력에서 찬성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부표 20, 21).

〈표 Ⅲ-34〉 성별 여성 시도지사 찬반 여부

단위: 명(%)

	남성	여성	전체
찬성	319 (80.0)	330 (82.2)	649 (81.1)
반대	49 (12.4)	27 (6.7)	76 (9.5)
모름/무응답	30 (7.6)	45 (11.1)	75 (9.4)
계	399 (100.0)	401 (100.0)	800 (100.0)

 $\chi^2=6.389$ df=1 p=.011

여성 시도지사의 당선 예상 시기에 대해, 인천 중구가 앞으로 5년 이내 62.1%로 4개 조사지역 중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으며, 다른 지역도 5년 이내라는 응답에 50%이상의 응답을 보였다. 남녀의 경우 남성 54.2%, 여성 60.4%가 앞으로 5년 이내, 남성 29.1%, 여성 21.5%가 앞으로 10년 이내라고 내다보고 있었다. 연령별로는 만 30~39세, 만 40~49세에서 상대적으로 앞으로 5년 이내(59.9%, 60.1%)라는 응답이 높은 반면, 만 19~29세 앞으로 10년 이내(33.6%)라는 응답이 타 연령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고졸 이상의 응답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앞으로 5년 이내(고졸 60%, 대재 이상 58.1%)라는 응답이 높았고, 소득별로는 월 소득 3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300~500만원 미만 61.8%, 500만원 이상 60.0%)에서 5년 이내 여성 시도지사 당선을 예상하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부표 25).

〈표 Ⅲ-35〉 지역별 여성 시도지사 당선 예상 시기

단위: 명(%)

	서울 송파구	서울 광진구	인천 중구	인천 부평구	전체
앞으로 5년 이내	93 (59.1)	87 (53.0)	96 (62.1)	96 (55.5)	372 (57.3)
앞으로 10년 이내	39 (24.6)	52 (31.9)	35 (22.5)	38 (22.0)	164 (25.2)
앞으로 20년 이내	4 (2.3)	7 (4.2)	7 (4.6)	2 (1.2)	20 (3.0)
앞으로 30년 이내	2 (1.0)	0 (.0)	0 (.0)	1 (.5)	2 (.4)
모름/무응답	21 (13.1)	18 (10.8)	17 (10.8)	36 (20.9)	91 (14.1)
계	158 (100.0)	163 (100.0)	154 (100.0)	173 (100.0)	649 (100.0)

4. 조사 분석결과 요약

이번 조사대상 남녀 유권자들은 정치 및 선거에 대한 평소의 관심도에 대해 남성은 36.1%, 여성은 26.1%가 관심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연령대가 높을수록 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컸다. 선택후보의 결정시기에 대해서 투표한달 이전에 결정했다는 응답이 남녀(34.4%, 26.8%) 모두 많았으며, 만 19~29세(12.7%)와 만 30~39세(22.8%)보다는 만 40~49세(31.6%)와 만 50대 이상(42.0%)에서 지지후보를 일찍 결정하였다.

구청장에 출마한 여성후보의 인지도는 이번 지방선거를 통하여 알게 된 경우가 많았다. 여성후보에 투표한 응답자들은 남녀 유권자 모두 정당을 우선순위로 고려하였으나, 남성의 경우 인물, 여성의 경우 공약을 좀 더 많이 고려하였다.

여성후보 출마의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여성 정치참여 확대라는 응답이 전체 의견의 26.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별 의미 없음이 22.9%로 나타났다. 여성정치참여 확대라는 응답의 경우 남성 21.4%, 여성 30.8%로 나타나 남성보다는 여성이 여성정치참여 확대라는 데 초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여성후보를 인지하고 결정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매체는 선관위 홍보물과 주위 사람들과의 대화였으나, 후보의 결정에서 남성보다는 여성이 선관위 홍보물의 영향(남성 35.3%, 여성 47.5%)을 많이 받았고, 여성보다는 남성이 신문과 인터넷을 통한 영향을 많이 받았다. 한편, 선관위 홍보물은 여성후보 인지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49.2%)을 미쳤으나 결정(41.4%)에 있어서는 그 영향력이 감소하였다.

여성 기초자치단체장이 지금보다 더 증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응답자 중 남성 61.7%, 여성 59.5%가 지금보다 더 증가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낮은 연령대(만 19~29세 78.5%)와 학력이 높은 응답자에서(대졸이상 71.3%), 그리고 고소득층(500만원 이상 71.3%)에서 높은 응답이 나타났다.

광역단체장인 시도지사도 여성후보가 출마하는데 대한 찬반 견해는, 남성 80.0%, 여성 82.2%가 찬성하여 압도적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여성 시도지사의 당선 예상 시기에 대해서는 남성 54.2%, 여성 60.4%가 앞으로 5년 이내로 내다보았다.

전반적으로 금번 지방선거에서의 후보 선택은 개인적 공약(<표 III-24> 참조)보다는 ‘투표시 영향을 준 사건(<표 III-25> 참조)’에 대한 반응이 훨씬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지방선거와 중앙정치와의 연관성이 크다는 것으로, 중앙당에서의 여성 활동이 중요함을 시사하는 내용이다. 특히 유권자의 선택은 주요정당으로 쏠리는 경향(<표 III-7>, <표 III-8> 참조)이 있으므로 주요정당에서의 여성활동이 곧 여성정치참여 확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IV

여성의 정치세력화 강화 방안

1. 여성유권자 개인의 역할	89
2. 정부의 역할	90
3. 정당의 역할	92
4. 여성단체의 역할	95
5. 학계 및 연구기관의 역할	98

우리나라에서 여성유권자의 정치의식 향상을 위한 연구나 자료가 부족한 상태에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마치고 본 연구는 여성후보가 출마한 지역을 중심으로 남녀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를 조사하였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금년은 1995년 북경세계대회를 개최한지 15주년 되는 해로서, 북경행동강령 712)을 점검하는 향후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정치부문에 여성의 대표성이 증가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유권자의 50%가 넘는 여성유권자들이 올바른 정치의식을 지니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많은 여성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여성후보나 여성을 위한 정책을 지지하는 정치인들이 당선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여성유권자들의 정치세력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앞의 내용을 바탕으로 여성의 정치세력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여성유권자 개인의 역할

가. 유권자로서 여성정책제안에 적극 참여

지방자치는 생활정치이고 생활의 중심에는 여성이 있다. 최근에는 공공기관이나 언론매체 등에서 ‘참여마당’이 활성화되고 있어서 누구나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정책제안을 할 수 있다. 특히 지방의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책 모니터링이나 언론매체 등에서의 발언대 등을 이용하면 여성유권자들이 손쉽게 여성정책 입안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따라서 여성을 대변하고자 하는 유권자들은 언론매체(TV, 신문 등)와 지자체 홈페이지,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책참여 시스템 등에 여성의 불편해소를 위한 정책제안을 활발히 수행해야 할 것이다.

-
- 12) ■ 권력구조 및 의사결정 과정에 여성의 동등한 접근과 충분한 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 정책결정 및 리더십에 참여하기 위한 여성의 역량을 증진시킨다.

2. 정부의 역할

가. 각종 공직선거시 남녀유권자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 조사연구 지원

그동안 우리나라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1980년대에도 간헐적으로 있었으나, 여성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지극히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의 결과라 하여도 여성을 중요변수로 잡고 분석한 연구가 거의 없다. 여성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에 관한 조사연구는 1990년 이후 부분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투표행태 및 정치의식 조사연구는 예산이 많이 들어 그간 정치에 관심이 있는 일부 학자나 여성단체가 중심이 되어 연구하여 왔으나 미흡한 실정이다. 결국 이러한 조사연구의 부재는 여성유권자들의 투표행태의 문제점과 다양한 연령층의 여성유권자들에게 필요한 정치의식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앞으로 각종 공직선거에 있어 여성유권자의 투표행태 및 정치의식에 관한 조사연구 지원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연구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구의 지속적인 연계성과 비교분석을 위하여 한국여성개발원에 전담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각종 공직선거에 있어서의 성별 통계 분리 산출 의무화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종 선거결과에 대한 통계를 집계하고 있다. 그간의 각종 선거결과를 볼 때, 선거결과에 대해 때로는 성별로 분류된 통계를 제시하기도 하였지만, 상당부분의 선거결과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 중앙선관위에서는 이에 대한 원인으로 지방 선관위에서 선거결과 집계에서 성별 분류를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앞으로 각종 공직선거에서 남녀간 성차 및 성별 분류를 통한 여성정책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선거결과에 있어 성별분리 통계의 산출 의무화가 요구된다.

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의 성 인지 능력 향상교육 강화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시민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와 ‘선거연수원에서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민주시민의식 함양과 깨끗한 선거문화 기반 조성을 위해 미래의 유권자인 학생대상 교육과 새내기 유권자 대상으로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반면, 여론 주도층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선거 정보를 제공하며, 각 기관과 단체 등 일반인에게는 공명선거 강연, 심포지움과 토론회를 개최하고 지역 고유문제 등과 연계한 대국민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된 선거 연수원에서는 소속 위원과 직원의 전문교육뿐만 아니라 선거 정당·후원회 등 관계자와 대학생·교사·일반 국민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고 교육 자료를 개발·보급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교육과정에 성 인지 능력 향상교육을 일정과목 편성하여 추진하는 것은 여성정치참여 기회 확대를 도모할 것이다.

라. 여성가족부의 적극적인 여성 정치참여 정책 추진

여성의 정치진출이 여성의 권익을 대변하고, 법률 제·개정, 정책결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함으로써 양성평등 실현이 가능하다. 여성 등 시민단체가 단체 활동을 통해 성숙한 선거문화 조성(유권자의 권리, 후보자 선택, 입후보자의 소양교육 등) 사업 추진시 여성가족부의 공동협력사업을 통해 예산 지원이 있어야 한다(단,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필요하다). 특히, 여성가족부에서는 정부의 여성정치 참여 확대에 대한 지원 및 활동 등이 자칫 정권유지, 특정 정치활동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으므로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해야 하므로, ① 시민의식 함양 교육을 통한 시민문화 확산으로 공동협력사업 등 민간단체사업 지원하고, ② 국민들에 의한 법률, 제도 개선 요구를 관련기관에 전달하고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3. 정당의 역할

가. 국회 및 지방의회 지역구 여성후보 공천 의무제화 및 정치의식 변화 촉구

선거에서 주된 행위자가 정당이기 때문에 여성의 정치참여 과정에서 정당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지난 제18대 총선에서 여성의원 비율은 13.7%를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구 여성의원 비율은 5.7%(14명)에 불과했다. 2010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당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운영하였고, 여야간 합의를 통하여 지방선거 지역구에 여성후보 국회의원 선거구별 기초 또는 광역의회 후보 1명 이상 의무공천(시구에 해당, 군은 제외)하였다. 그 결과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나, 지역구 여성 후보자 및 당선자가 약간 늘었다. 실제, 기초의회의 경우 2006년 여성후보 4.9%에서 2010년 9.4%로 늘었고, 지역구 당선자도 지역구 2006년 4.4%에서 2010년 10.9%로 늘었다. 광역의회의 경우 2006년 여성후보 5.2%에서 2010년도 8.6%로 약간 늘었고, 여성 당선자도 2006년 4.7%에서 8.1%로 약간 늘었다. 2006년 대비 2010년에는 그 수가 증가하긴 했어도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2006년 지방선거 직후 한국여성개발원이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에 의뢰해 여성이 출마한 기초의회 지역구만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여성 후보 지지에 성별 요인보다 정당 효과가 크다는 점이 드러났다. ‘여성 후보이기 때문에’ 지지했다(20.1%)는 비율보다 ‘소속 정당을 지지해서’(31.0%)라는 응답이 많았던 것이다. 이는 여성 후보는 당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공천에서 배제할 수밖에 없다는 정당의 논리를 부정하는 결과이다. 앞으로 정치적 대표성 확보를 통하여 국가선진화를 이루기 위하여 무엇보다 국회 및 지방선거의 지역구 30% 의무공천제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남성정치인의 의식변화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나. 여성지방자치단체장 후보 지역별 공천 의무화 제도 도입

지방화시대를 맞아 생활정치를 기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장에 여성참여 확대는 필수적이다. 전 세계가 함께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저탄소, 녹색성

장정책과 여성 친화적 정책”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보다 많은 여성자치단체장이 나오는 것이 지역발전과 지역균형에 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하여 시·도 자치단체장 여성후보 20%, 구·시 30%, 군 20% 여성후보 공천할당제 의무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요구된다.

서울을 예로 들어 살펴볼 경우, 권역별로 ①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②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③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④ 광진구, 송파구, 강동구, ⑤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⑥ 종로구, 성북구, 중구, 용산구, ⑦ 성동구, 동대문구, 중랑구, ⑧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로 나누어 이 중 1지역은 여성후보를 의무적으로 공천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 26명의 여성후보가 있었는데, 한나라당 8명, 민주당 2명, 민주노동당 1명, 평화민주당 2명, 무소속 10명이었다. 이 중 한나라당 후보 5명과 민주당 후보 1명만이 당선되었다. 당선자는 서울 강남구의 신연희 당선자, 송파구의 박춘희 당선자, 부산 중구의 김은숙 당선자(재선), 사상구의 송숙희 당선자, 대구 중구의 윤순영 당선자(재선)이고, 인천 부평구의 홍미영 당선자이다.

다. 공천심사위원회에 일정비율 여성참여 의무화 제도 도입

공천심사위원회에 일정 비율 여성위원의 참여를 의무화하여 공천과정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확보해주는 조치가 필요하다. 그간 우리나라의 정당에서 구성한 공천심사위원회의 경우 대부분이 남성 주요 당직자로 구성되어 왔다. 단지, 제16대 총선 이후 여성을 공천심사위원으로 참여시키고 있는데, 제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의 경우 11명 중 공천심사위원 중 4명(36.3%), 통합민주당은 12명의 공천심사위원 중 0명(0%)이었다. 따라서 정당들은 앞으로 공천과정의 투명성 확보 및 여성이 배제되지 않도록 공천심사위원회에 일정비율 여성위원 참여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2010지방선거남녀동수범여성연대’는 공천심사위원회에 여성심사위원 비율 50%를 의무화할 것을 주장하여 왔다. 본 연구에서 여성당선자의 증가로 ‘사회 각 분야 여성참여증대(32.9%)’, ‘생활정치 활성화(23.8%)’, ‘부정부패 축소(22.4%)’ 등의 사회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하

고 있는 유권자의 수가 높은 비율(<표 III-33>)을 보이고 있으므로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서도 여성 후보 공천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라. 주요 당직에 여성할당제 도입

이번 조사에서 보았듯이 특히 중앙당에서의 여성 활동이 중요함을 볼 수 있었다. 특히 유권자의 선택은 주요정당으로 쏠리는 경향(<표 III-7>, <표 III-8> 참조)이 있으므로 주요정당에서의 여성활동이 곧 여성정치참여 확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성후보에 투표한 응답자들이 어떤 기준을 가졌었는지의 질문에서, 정당을 고려한 경우가 남녀 각각 43.7%, 39.6%로 가장 많았다(<표 III-18>). 또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03년 연구한 “지방의회 여성의원의 국회진출 활성화 방안 연구”를 보면 제15대, 제16대 국회의원 당선자 중 과반수가 초선이었고, 이들의 직업은 대체적으로 정치/정당인의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들의 경우 지구당에서 비중의 정도가 적은 당직을 담당하고 있으며, 중앙당차원의 당직을 맡는다 해도 형식적 수준으로 비중이 낮은 당직을 맡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다보니 여성들은 공천과정에서 누락될 가능성이 컸고, 그것이 현실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실은 정당에서 여성들이 주요 당직 진출에 한계를 가지면서, 주요 당무나 국정 운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없게 되고, 또한 공직선거 시 여성들이 공천과정에서 배제되어 여성의 의회진출에도 장애요인으로 남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정당들은 특히 중앙당 주요 당직자에 일정비율 여성을 포함시키는 정책을 의무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마. 여성정치인의 지속적인 육성 및 발굴 시스템 구축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는 지난 2008년 4월 9일 제18대 총선 이후 4월 19~23일까지 만 19세 이상의 남녀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여성후보가 출마한 지역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정치의식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유권자들은 여성후보가 출마한 의미에 대하여 “남녀평등에 기여했다고 생각한다”가 38.7%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그런데 주요 정당들의 여성후보 공천이 낮

은 이유에 대해 “정당들의 여성후보 발굴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 때문에”가 41.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아울러, “바람직한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지금보다 증가해야 한다”가 62.1%로 가장 높았다. “지금에 적당하다”가 20.6%로 나타났는데, 여성 국회의원 증가 방안으로는 “능력 있는 여성정치인 육성”이 61.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유권자들은 정당의 역할로 “여성정치인 육성” 및 “여성정치인 발굴”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간 정당들은 비례대표제 여성할당제를 도입했다는 명목 하에 여성후보 육성 및 발굴에 소극적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정당들은 당차원에서 여성능력개발을 위한 여성정치학교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여성정치 네트워크를 만들어 인적 풀을 확장해야 할 것이다.

바. 우수 평가 지방의회 여성의원 및 자치단체장 재공천 보장

지방화시대를 맞아 생활정치를 기하기 위하여 여성의원의 경력을 활용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특히 전 세계가 함께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정책과 여성 친화적 정책”의 활성화를 위하여도, 보다 많은 여성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나올 경우 지역발전과 지역균형이 보다 바람직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향후 여성정치인의 경력지속 및 확충을 위한 전략의 모색이 필요하다. 현재 부평구의 홍미영 구청장의 경우 지방의회를 거쳐 국회의원, 구청장이 된 것처럼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보인 여성의원에 대하여 재공천을 담보해주고, 당 우세지역에 일정 비율을 전략 공천하는 정책을 도입하여 여성의원 경력지속 및 향상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4. 여성단체의 역할

가. 여성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정치교육의 내실화 및 전문성 강화

현재 우리나라에서 여성정치인 양성 및 여성유권자를 대상으로 정치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단체는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 한

국여성정치연구소,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한국여성지도자연합, 한국여성정치연맹, 부산의 여성정책연구소, 한국여성연합, 여성민우회, 걸스카웃 등이 있다. 그러나 여성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은 대부분 교육 프로그램이 전문화되어 있지 않고 일회성의 성격이 강하다. 앞으로는 여성단체들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의 전문화와 지속적인 교육이 요구된다. 아울러 내실화를 위하여 교육방법에 있어 피교육자가 직접 참여하는 방식의 교육방법으로 전환하고, 지역별로 관련 전문분야의 강사은행을 설치하여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한다. 그리고 교육 이수생들이 실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여성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주어야 할 것이다.

나. 여성단체들의 여성들에 대한 지속적인 정치교육 및 유권자운동의 확대를 통한 정치세력화

이번 지방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율 조사분석」에 따르면, 유권자의 남녀 구성비는 남자 49.3%, 여자 50.7%로 나타났다. 유권자의 평균투표율은 54.9%였는데, 성별 투표율을 비교해 보면 남성이 55.1%, 여성이 54.7%로 남성투표율이 약간 높게 나타났다. 유권자의 남녀 구성비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성별 투표율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은 여성유권자의 적극적인 투표참여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치적인 노력이 많이 요구되는데, 이때 여성의 투표율 저조는 결국 약점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특히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성별·연령별 투표율을 비교에서 19세와 20대 전반의 여성투표율이 같은 연령의 남성에 비하여 10% 이상 낮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앞으로 여성유권자의 정치의식 개혁과 관련하여 젊은 층의 여성들에 대한 정치교육이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그간 우리나라의 여성단체들은 여성의 낮은 정치적 지위를 극복하기 위하여 남녀후보 평가 등의 유권자운동을 전개해왔다. 특히, 여성단체들의 이러한 일들은 우리나라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커다란 기반이 되어 왔다.

앞으로도 여성단체들은 지속적으로 여성유권자 운동을 전개하여 정치세력화를 이루어나가야 할 것이다.

다. 여성의 정치적 참여확대를 위한 여성네트 워크 강화

금번 지방선거에서 결성된 ‘2010지방선거남녀동수범여성연대’는 여성공천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1991년 30년 만에 부활되는 지방의회 선거를 맞이하여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연합,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여성정치연맹, 한국여성유권자연맹 등 일부 여성단체가 여성의 지방의회 참여를 증진시킨다는 목적으로 “정치참여를 위한 범여성모임”을 구성한 이래, 지속적으로 연대사업이 이루어져 오고 있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성단체가 연대하여 “2010지방선거남녀동수범여성연대”(공동대표 김정숙(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남윤인순(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를 구성하여 많은 성과를 이루었는데, 향후에도 여성단체들의 연대를 통해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로, “2010지방선거남녀동수범여성연대”는 여성의 낮은 정치적 지위를 극복하기 위하여 첫째, 여성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연대활동의 전개, 둘째, 여성후보의 발굴 운동, 셋째, 정당의 정책비교 활동, 넷째, 유권자운동 등을 전개해왔다. 특히, 여성단체들의 이러한 일들은 우리나라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커다란 기반이 되어 왔다. 최근 들어 여성단체들의 활동이 침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좋은 계기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단지 아쉬운 것은 17대 총선시와 같이 여성후보 명단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선거지원 운동도 미약하였다는 점이다. 앞으로도 여성단체들은 연대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때로는 여성단체 독자적인 측면에서 여성후보 추천 및 선거지원운동을 통하여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지속적으로 이루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라. 첨단 캠페인 기법을 통한 여성의 정치세력화

점점 선거에서 사이버 공간의 위력이 강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여성

단체들도 첨단 캠페인 기법을 통한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성유권자들 간 첨단 캠페인 기법을 활용하여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e-카드 보내기 운동¹³⁾, e-사인운동 전개¹⁴⁾, 사이버 멘토링 시스템 구축¹⁵⁾, 주제별로 사이버 토론장을 개설하는 방법 등을 활용할 수 있다.

5. 학계 및 연구기관의 역할

정부, 정당, 여성단체가 여성의 정치력 향상과 지위확보에 전력투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연구결과와 자료의 생산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을 포함한 연구기관과 정치학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즉, 여성유권자 표의 조직화를 위한 전략 연구, 기존 정치 풍토에 여성정치문화의 영향력 발휘를 위한 방안, 여성에 관련된 입법을 담당하게 되는 의원들의 여성의식 조사, 여성 진출을 성공으로 이끄는 선거제도 관련법제 연구, 경선제와 여성후보 확대 방안 등을 들 수 있다. 아울러 여성후보자 육성을 위한 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연수를 통하여 여성정치인을 지원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

-
- 13) 한사람이 열 사람에게 여성후보 지지 및 여성유권자 세력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성을 요청하는 식의 e-카드를 보낸 후,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 피라미드 조직식으로 열 사람에게 e-카드를 보내줄 것을 요청하는 방법
 - 14) 컴퓨터를 활용한 후보지지내지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서명운동을 하요 서버에 사인을 받는 방법
 - 15) 정치에 관심이 있는 후배와 선배간의 사이버 멘티와 사이버 멘토로 연결해 주는 방법

V

결 론

본 연구는 「2010 지방선거와 남녀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로, 제2장에서 2010 지방선거결과에서 나타난 유권자, 여성대표성, 여성계의 연대 활동을 조사하고, 제3장에서 2010 지방선거에서 남녀유권자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를 분석하고, 제4장에서 여성의 정치세력화 방안으로 유권자 개인과, 정부, 여성단체, 정당들이 해야 할 역할을 중심으로 알아보았다. 결국, 여성의 정치참여가 늘어나고 올바른 선거문화를 조성한다는 것 자체가 여성의 정치세력화와 맥을 함께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유권자의 여성정치에 대한 관심 부족, 여성정치인 부족, 여성을 대표하는 선거제도 미흡, 정당의 여성정치 참여 지원 부족 등이 바로 여성의 정치참여를 가로막는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남아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일차적으로 여성유권자의 정책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여성운동의 적극적 전개가 이루어져야 하며,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여성단체, 정당, 학계 및 연구기관, 정부, 언론들이 함께 연대활동의 전개를 통해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1970년 이래 특히 1990년대 들어 여성의 정치참여가 신장되어 2004년 5월 31일 현재 하원의원의 경우 1970년대 대비 5배 이상 증가한 14.3%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1971년 여성운동가들의 관심 속에 보다 많은 여성들이 정책결정과정에 들어가야 남녀평등도 실현할 수 있다는 인식 하에 여성정치연맹을 설립하고 여성유권자연맹, 전국여성조직, 여성선거운동기금, 미국여성정치연구소 등의 단체 및 연구소와 함께 연대하여 여성후보자의 발굴에서부터 후보자 교육 및 훈련, 차세대여성지도자 연수, 유권자의식교육 및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를 육성하여 여성후보자를 지원하는 등의 사업을 벌였고, 또한 정당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기반조성을 한데서 그 주요요인을 찾을 수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있을 각종 선거에 대비하여 여성들이 투표에 적극 참여하고, 여성단체의 경우 여성유권자 교육과 연대를 통한 여성정치세력화 형성, 학계 및 연구기관은 유권자 및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의식변화를 위한 프로그램과 자료 제공이 필요하다. 아울러 정당은 정치쇄신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당의 자체 개혁과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정부는 여성단체들이 교육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계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그밖에도 여성유권자의 세력화를 위하여는 보다 많은 여성들이 사회의 각 분야에 활발히 진출하면서, 직장 생활을 통해 스스로가 정치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며, 간접적으로 여성문제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켜 정치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여성유권자의 정치의식 향상뿐만 아니라 남성유권자에 대한 여성의식향상 관련 교육이 필요한데, 교육은 특히 자아정체감의 확립과 정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그러나 한 두 번의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정치의식이나 여성의식이 월등히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생활 속에서 정치의식과 여성의식이 향상될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의무적으로 시민의식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여성유권자들은 여성정치인과 여성정책을 적극 제시하는 후보나 정당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여성유권자들이 남성유권자에 비해 여성후보를 보다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아직 상당수의 여성유권자들은 여성정치인을 지지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제는 그간 축적된 자료에서도 나타나는 바, 여성의원들이 보다 착실한 의정활동을 하면서 여성의 권익신장이나 여성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해온 주인공임을 인정하고 여성의원을 적극 지원해주는 자세가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여성유권자의 투표율이 남성투표율보다 높아지면서 여성의 정치세력화가 뿌리내리기 시작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만약 하락추세가 지속된다면 정치권에 대한 여성들의 요구는 힘을 신지 못하게 될 것이다. 또한 투표에 참여해서 자신들이 지지하는 정당에 투표하는 행태를 보여주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정당도 자신들이 내건 공약을 실행하기 위해 노력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여성유권자들도 보다 적극적인 시민단체 활동이나 공명선거 감시운동과 의정감시 활동을 통하여,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2010 지방선거 여성연대(2009), 『2010 지방선거 여성연대 활동보고 자료집』
- 2010 지방선거 여성연대 기자회견 자료집.
- 김원홍·김혜영·김민정(2002), 『여성유권자의 정책지향적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김원홍·김은경·김민정·이현출(2001),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보를 위한 정치관계법개정방안 연구』, 서울: 여성부.
- 김원홍(2003), “한국여성의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논집』 제14집, 부산: 신라대학교 여성문제연구소, pp. 37-70.
- 김원홍·김민정·이현출·김혜영(2003), 『지방의회 여성의원의 국회진출 활성화 방안』(서울: 국회 여성위원회), pp. 30-50.
- 김은경(2002), “16대총선을 통해 본 남녀유권자의 여성후보 선택요인: 정당과 인물투표의 기준을 중심으로,” 『페미니즘연구』 2호, 243-277.
- 김형준(2010), “2010 지방선거 결과분석,” 중앙선거관리위원회(미발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00),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규집』
- _____ (2002),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총람』
- _____ (2006),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총람』
- _____ (2010), 『제5회 동시지방선거 선거 투표율 분석』



부 록

〈부표 1〉 선거관심도 * 소득별

단위: 명(%)

	149 만원 이하	150~299 만원	300~499 만원	500 만원 이상	모름/ 무응답	전체
매우 많다	26 (15.0)	25 (11.1)	25 (10.3)	12 (11.5)	5 (8.7)	93 (11.6)
조금 있다	36 (21.0)	47 (20.8)	50 (20.7)	19 (19.3)	4 (6.9)	157 (19.6)
보통 이다	70 (40.8)	95 (41.7)	120 (50.0)	46 (46.0)	32 (53.0)	363 (45.4)
별로 없다	29 (17.0)	52 (22.9)	40 (16.5)	18 (18.1)	17 (27.8)	156 (19.5)
전혀 없다	10 (5.6)	7 (3.1)	6 (2.4)	5 (5.0)	2 (3.6)	30 (3.7)
모름/무응답	1 (.6)	1 (.4)	0 (.0)	0 (.0)	0 (.0)	2 (.2)
계	171 (100.0)	227 (100.0)	240 (100.0)	101 (100.0)	61 (100.0)	800 (100.0)

〈부표 2〉 선거관심도 * 학력별

단위: 명(%)

	중졸 이하	고졸	대재 이상	모름/무응답	전체
매우 많다	15 (11.0)	28 (10.5)	47 (12.3)	2 (23.6)	93 (11.6)
조금 있다	33 (23.6)	56 (20.7)	66 (17.3)	2 (22.0)	157 (19.6)
보통 이다	58 (42.0)	123 (45.7)	180 (46.9)	2 (20.7)	363 (45.4)
별로 없다	28 (20.5)	51 (19.1)	75 (19.6)	1 (10.7)	156 (19.5)
전혀 없다	4 (2.9)	9 (3.3)	15 (3.9)	2 (23.0)	30 (3.7)
모름/무응답	0 (.0)	2 (.7)	0 (.0)	0 (.0)	2 (.2)
계	138 (100.0)	270 (100.0)	384 (100.0)	8 (100.0)	800 (100.0)

〈부표 3〉 투표 정당 * 연령별

단위: 명(%)

	만 19~29세	만 30~39세	만 40~49세	만 50세 이상	전체
한나라당	30 (23.5)	51 (29.8)	79 (39.5)	165 (54.8)	325 (40.6)
민주당	59 (45.8)	85 (49.7)	80 (40.4)	78 (25.8)	302 (37.7)
자유선진당	0 (.0)	3 (1.9)	2 (.9)	2 (.7)	7 (.9)
민주노동당	11 (8.6)	7 (4.0)	5 (2.5)	1 (.3)	24 (3.0)
진보신당	2 (1.8)	3 (2.0)	2 (.8)	1 (.3)	8 (1.0)
국민참여당	5 (3.7)	1 (.8)	4 (2.2)	0 (.0)	10 (1.3)
미래연합	0 (.0)	0 (.0)	0 (.0)	1 (.3)	1 (.1)
기권했다	4 (3.2)	2 (1.5)	3 (1.7)	4 (1.3)	14 (1.8)
모름/무응답	17 (13.4)	18 (10.4)	24 (12.0)	49 (16.4)	108 (13.5)
계	128 (100.0)	171 (100.0)	199 (100.0)	301 (100.0)	800 (100.0)

〈부표 4〉 출마한 여성후보 인지 시기 * 성별

단위: 명(%)

	남성	여성	전체
지방선거 이전부터	133 (33.3)	104 (25.9)	237 (29.6)
지방선거를 통해서	215 (53.9)	256 (63.8)	471 (58.9)
여성후보가 출마한지 몰랐다	44 (11.0)	37 (9.2)	81 (10.1)
모름/무응답	7 (1.7)	4 (1.0)	11 (1.4)
계	399 (100.0)	401 (100.0)	800 (100.0)

$\chi^2=7.691$ df=2 p=.021

〈부표 5〉 출마한 여성후보 인지 시기 * 연령별

단위: 명(%)

	지방선거 이전부터	지방선거를 통해서	여성후보가 출마한지 몰랐다	모름 /무응답	전체
만19~29세	29 (22.5)	78 (60.6)	21 (16.0)	1 (.9)	128 (100.0)
만30~39세	40 (23.3)	111 (65.1)	18 (10.3)	2 (1.4)	171 (100.0)
만40~49세	63 (31.8)	114 (57.1)	19 (9.4)	3 (1.7)	199 (100.0)
만50세 이상	105 (34.8)	168 (55.9)	24 (8.0)	4 (1.3)	301 (100.0)
계	237 (29.6)	471 (58.9)	81 (10.1)	11 (1.4)	800 (100.0)

 $\chi^2=15.401$ df=6 p=.017

〈부표 5-1〉 출마한 여성후보 인지 시기 * 자녀여부별

단위: 명(%)

	아들만	딸만	아들 딸 모두	없음	모름 /무응답	전체
지방선거 이전부터	38 (26.6)	28 (38.4)	118 (31.6)	5 (20.0)	1 (50.0)	190 (30.8)
지방선거를 통해서	92 (64.3)	34 (46.6)	219 (58.6)	16 (64.0)	1 (50.0)	362 (58.7)
여성후보가 출마한지 몰랐다	12 (8.4)	10 (13.7)	29 (7.8)	4 (16.0)	0 (0.0)	55 (8.9)
모름/무응답	1 (0.7)	1 (1.4)	8 (2.1)	0 (0.0)	0 (0.0)	10 (1.6)
계	143 (100.0)	73 (100.0)	374 (100.0)	25 (100.0)	2 (100.0)	617 (100.0)

 $\chi^2=12.090$ df=12 p=0.438

〈부표 6〉 투표 후보 * 지역별

단위: 명(%)

	서울 송파구	서울 광진구	인천 중구	인천 부평구	전체
여성후보에 투표	106 (57.7)	62 (34.2)	52 (30.7)	87 (47.2)	307 (42.7)
남성후보에 투표	71 (38.8)	111 (61.4)	114 (67.3)	86 (46.8)	383 (53.3)
모름/무응답	6 (3.5)	8 (4.4)	3 (2.0)	11 (6.0)	29 (4.0)
계	184 (100.0)	181 (100.0)	170 (100.0)	184 (100.0)	719 (100.0)

 $\chi^2=39.693$ df=3 p=.000

〈부표 6-1〉 투표후보 * 소득별

단위: 명(%)

	150만원 미만	150~300 만원 미만	300~500 만원 미만	500~700 만원 미만	700만원 이상	모름 /무응답	전 체
여성 후보	62 (36.0)	97 (42.5)	90 (37.7)	29 (40.8)	12 (41.4)	17 (27.9)	307 (38.4)
남성 후보	93 (54.1)	118 (51.8)	135 (56.5)	40 (56.3)	16 (55.2)	32 (52.5)	434 (54.3)
모름 /무응답	17 (9.9)	13 (5.7)	14 (5.9)	2 (2.8)	1 (3.4)	12 (19.7)	59 (7.4)
계	172 (100.0)	228 (100.0)	239 (100.0)	71 (100.0)	29 (100.0)	61 (100.0)	800 (100.0)

$\chi^2=22.017$ df=10 p=0.015

〈부표 6-2〉 투표후보 * 자녀여부별

단위: 명(%)

	아들만	딸만	아들 딸 모두	없음	모름/무응답	전체
여성후보	54 (37.8)	29 (39.7)	169 (45.2)	3 (12.0)	0 (0.0)	255 (41.3)
남성후보	86 (60.1)	36 (49.3)	181 (48.4)	18 (72.0)	2 (100.0)	323 (52.4)
모름/무응답	3 (2.1)	8 (11.0)	24 (6.4)	4 (16.0)	0 (0.0)	39 (6.3)
계	143 (100.0)	73 (100.0)	374 (100.0)	25 (100.0)	2 (100.0)	617 (100.0)

$\chi^2=23.833$ df=8 p=0.002

〈부표 7〉 정당 평가 요소

단위: 명(%)

	남성	여성	전체
집권 정당이라는 것	27 (46.0)	30 (44.4)	57 (45.1)
정책 및 공약	19 (32.5)	22 (31.8)	41 (32.1)
집권정당을 견제할 수 있는 야당이라는 것	11 (18.0)	11 (16.2)	22 (17.1)
출신지역	1 (1.7)	2 (2.5)	3 (2.2)
모름/무응답	1 (1.7)	3 (5.1)	4 (3.5)
계	59 (100.0)	68 (100.0)	127 (100.0)

〈부표 7-1〉 여성후보 투표기준 * 출신지별

단위: 명(%)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대전/ 충청	광주/ 전라	대구/ 경북	부산/울 산/경남	이북/기타	모름/ 무응답	전체
인물	14 (21.5)	15 (22.1)	8 (50.0)	14 (26.4)	12 (27.3)	6 (24.0)	5 (23.8)	2 (18.2)	3 (60.0)	79 (25.6)
정당	28 (43.1)	25 (36.8)	5 (31.3)	19 (35.8)	21 (47.7)	13 (52.0)	8 (38.1)	6 (54.5)	2 (40.0)	127 (41.2)
공약	22 (33.8)	26 (38.2)	3 (18.8)	20 (37.7)	11 (25.0)	6 (24.0)	7 (33.3)	3 (27.3)	0 (0.0)	98 (31.8)
모름/ 무응답	1 (1.5)	2 (2.9)	0 (0.0)	0 (0.0)	0 (0.0)	0 (0.0)	1 (4.8)	0 (0.0)	0 (0.0)	4 (1.3)
계	65 (100.0)	68 (100.0)	16 (100.0)	53 (100.0)	44 (100.0)	25 (100.0)	21 (100.0)	11 (100.0)	5 (100.0)	308 (100.0)

 $\chi^2=20.527$ df=24 p=0.666

〈부표 7-2〉 정당 평가 요소 * 성별

단위: 명(%)

	남성		여성		전체	
집권 정당이라는 것	27	(46.0)	30	(44.4)	57	(45.1)
정책 및 공약	19	(32.5)	22	(31.8)	41	(32.1)
집권정당을 견제할 수 있는 야당이라는 것	11	(18.0)	11	(16.2)	22	(17.1)
출신지역	1	(1.7)	2	(2.5)	3	(2.2)
모름/무응답	1	(1.7)	3	(5.1)	4	(3.5)
계	59	(100.0)	68	(100.0)	127	(100.0)

〈부표 8〉 투표 시 선택에 영향 끼친 공약 * 지역별

단위: 명(%)

	서울 송파구	서울 광진구	인천 중구	인천 부평구	전체
청렴/합리적 정치	4 (14.7)	2 (14.2)	2 (8.0)	6 (21.7)	14 (14.5)
경제 회복	6 (18.7)	2 (15.6)	1 (2.9)	3 (12.0)	11 (11.8)
지역 개발	2 (6.0)	0 (.0)	6 (21.7)	2 (7.5)	10 (10.3)
교육 정책	2 (8.3)	0 (.0)	1 (4.6)	3 (11.5)	7 (7.0)
복지 정책	1 (3.2)	1 (7.1)	1 (4.6)	3 (12.0)	6 (6.4)
지역주민을 위해 일하겠다	1 (3.5)	2 (15.0)	2 (6.8)	0 (.0)	5 (5.0)
여성을 대변하는 정치	0 (.0)	0 (.0)	2 (8.5)	1 (5.2)	4 (3.9)
여성지위의 향상	0 (.0)	0 (.0)	2 (6.0)	1 (3.4)	3 (2.7)
여성복지	0 (.0)	0 (.0)	1 (3.6)	1 (4.1)	2 (2.2)
여성일자리 창출	1 (2.9)	0 (.0)	1 (2.3)	0 (.0)	2 (1.6)
기타**	4 (13.3)	0 (.0)	2 (6.9)	1 (3.6)	7 (7.3)
모름/무응답	10 (32.1)	6 (48.1)	9 (30.9)	8 (30.0)	32 (33.2)
계	30 (102.5)	12 (100.0)	29 (107.0)	26 (111.0)	97 (105.8)

〈부표 9〉 투표시 영향을 준 사건 * 지역별

단위: 명(%)

	서울 송파구	서울 광진구	인천 중구	인천 부평구	전체
정부/집권층의 독선	44 (21.9)	45 (22.7)	55 (27.3)	48 (23.8)	191 (23.9)
천안함 사건	30 (15.1)	37 (18.3)	34 (17.0)	29 (14.3)	129 (16.2)
4대강 사업	37 (18.4)	29 (14.7)	30 (15.1)	31 (15.5)	127 (15.9)
교육개혁	10 (5.1)	17 (8.4)	11 (5.7)	17 (8.4)	55 (6.9)
친환경 무상급식	5 (2.7)	12 (6.2)	17 (8.6)	14 (6.8)	48 (6.1)
세종시 이전	14 (7.0)	18 (8.8)	5 (2.3)	11 (5.7)	48 (5.9)
집회결사 및 표현의 자유문제	6 (3.2)	0 (.0)	7 (3.3)	5 (2.4)	18 (2.2)
기타	3 (1.4)	2 (0.9)	2 (1.0)	4 (2.0)	11 (1.4)
모름/무응답	50 (25.2)	40 (20.0)	39 (19.6)	42 (21.1)	172 (21.5)
계	200 (100.0)	200 (100.0)	200 (100.0)	200 (100.0)	800 (100.0)

〈부표 10〉 여성후보 인지에 영향을 준 매체 * 지역별

단위: 명(%)

	서울 송파구	서울 광진구	인천 중구	인천 부평구	전체
선관위 홍보물 및 선전벽보	54 (51.1)	31 (49.3)	20 (39.3)	46 (52.9)	151 (49.2)
주위사람들과의 대화	15 (13.9)	13 (20.5)	12 (23.9)	15 (16.8)	55 (17.8)
TV	15 (13.9)	3 (4.4)	3 (6.2)	9 (10.6)	30 (9.8)
후보자유세 및 전화 선거 운동	5 (4.6)	8 (12.9)	4 (7.1)	7 (8.4)	24 (7.8)
신문	7 (6.1)	4 (6.3)	5 (9.7)	4 (4.7)	20 (6.4)
인터넷	4 (3.3)	2 (3.4)	3 (5.5)	3 (3.2)	11 (3.7)
정당	5 (4.3)	0 (.0)	1 (1.9)	1 (1.1)	6 (2.1)
동사무소 복지관에서 봤음	0 (.0)	0 (.0)	1 (1.9)	0 (.0)	1 (.3)
잡지	1 (.8)	0 (.0)	0 (.0)	0 (.0)	1 (.3)
없음	0 (.0)	0 (.0)	2 (4.6)	1 (1.2)	3 (1.1)
모름/무응답	2 (1.9)	2 (3.1)	0 (.0)	1 (1.2)	5 (1.6)
전체	106 (100.0)	62 (100.0)	52 (100.0)	87 (100.0)	307 (100.0)

〈부표 11〉 여성후보 결정에 영향을 준 매체 * 지역별

단위: 명(%)

	서울 송파구	서울 광진구	인천 중구	인천 부평구	전체
선관위 홍보물 및 선전벽보	99 (49.7)	87 (43.6)	64 (32.1)	80 (40.2)	331 (41.4)
주위사람들과의 대화	24 (12.0)	43 (21.4)	53 (26.5)	42 (21.2)	162 (20.3)
TV	24 (11.9)	16 (7.9)	18 (8.9)	26 (13.0)	83 (10.4)
후보자유세 및 전화 선거 운동	17 (8.5)	23 (11.5)	21 (10.6)	17 (8.4)	78 (9.7)
신문	14 (6.9)	5 (2.5)	16 (8.2)	16 (7.9)	51 (6.4)
인터넷	10 (5.2)	17 (8.3)	11 (5.4)	12 (5.9)	50 (6.2)

	서울 송파구	서울 광진구	인천 중구	인천 부평구	전체
정당	5 (2.4)	4 (1.8)	5 (2.7)	6 (2.9)	20 (2.5)
동사무소 복지관에서 봤음	0 (.0)	2 (.9)	4 (1.9)	1 (.5)	7 (.8)
없음	0 (.0)	1 (.5)	0 (.0)	0 (.0)	1 (.1)
모름/무응답	7 (3.4)	3 (1.5)	7 (3.7)	0 (.0)	17 (2.2)
전체	200 (100.0)	200 (100.0)	200 (100.0)	200 (100.0)	800 (100.0)

〈부표 12〉 여성정책에 가장 앞선 정당 판단 * 지역별

단위: 명(%)

	서울 송파구	서울 광진구	인천 중구	인천 부평구	전체
한나라당	93 (46.4)	67 (33.7)	57 (28.6)	39 (19.7)	257 (32.1)
민주당	36 (17.8)	52 (25.8)	50 (25.1)	50 (25.2)	188 (23.5)
자유선진당	1 (.7)	2 (.9)	1 (.5)	2 (1.0)	6 (.8)
민주노동당	7 (3.3)	8 (3.8)	12 (5.9)	15 (7.5)	41 (5.1)
진보신당	1 (.7)	1 (.5)	4 (1.9)	0 (.0)	6 (.8)
창조한국당	0 (.0)	0 (.0)	0 (.0)	1 (.5)	1 (.1)
국민참여당	0 (.0)	2 (.9)	0 (.0)	0 (.0)	2 (.2)
없음	0 (.0)	0 (.0)	1 (.4)	0 (.0)	1 (.1)
모름/무응답	62 (31.0)	69 (34.5)	75 (37.6)	92 (46.1)	298 (37.3)
계	200 (100.0)	200 (100.0)	200 (100.0)	200 (100.0)	800 (100.0)

〈부표 12-1〉 여성정책에 가장 앞선 정당 판단 * 지지정당별

단위: 명(%)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 선진당	민주 노동당	진보 신당	국민 참여당	미래 연합	기권 했다	모름/ 무응답	전체
한나라당	168 (51.7)	59 (19.6)	0 (0.0)	3 (12.5)	3 (37.5)	1 (10.0)	1 (100.0)	2 (13.3)	20 (18.3)	257 (32.1)
민주당	46 (14.2)	105 (34.9)	2 (28.6)	5 (20.8)	2 (25.0)	2 (20.0)	0 (0.0)	4 (26.7)	21 (19.3)	187 (23.4)
자유 선진당	1 (0.3)	2 (0.7)	1 (14.3)	0 (0.0)	0 (0.0)	1 (10.0)	0 (0.0)	0 (0.0)	1 (0.9)	6 (0.8)
민주 노동당	6 (1.8)	14 (4.7)	1 (14.3)	9 (37.5)	1 (12.5)	2 (20.0)	0 (0.0)	3 (20.0)	5 (4.6)	41 (5.1)
진보 신당	0 (0.0)	5 (1.7)	0 (0.0)	0 (1.7)	1 (12.5)	0 (0.0)	0 (0.0)	0 (0.0)	0 (0.0)	6 (0.8)
창조 한국당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6.7)	0 (0.0)	1 (0.1)
국민 참여당	1 (0.3)	0 (0.0)	0 (0.0)	0 (0.0)	0 (0.0)	1 (10.0)	0 (0.0)	0 (0.0)	0 (0.0)	2 (0.3)
없음	0 (0.0)	1 (0.3)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0.1)
모름/ 무응답	103 (31.7)	115 (38.2)	3 (42.9)	7 (29.2)	1 (12.5)	3 (30.0)	0 (0.0)	5 (33.3)	62 (56.9)	299 (37.4)
전체	325 (100.0)	301 (100.0)	7 (100.0)	24 (100.0)	8 (100.0)	10 (100.0)	1 (100.0)	15 (100.0)	109 (100.0)	800 (100.0)

 $\chi^2=329.890$ df=64 p=0.000

〈부표 12-2〉 여성정책에 가장 앞선 정당 판단 * 출신지역별

단위: 명(%)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대전/ 충청	광주/ 전라	대구/ 경북	부산/울 산/경남	제주	이북/ 기타	모름/ 무응답	전체
한나라당	61 (32.3)	65 (32.3)	16 (42.1)	39 (33.3)	28 (25.2)	26 (44.1)	11 (29.7)	0 (0.0)	7 (33.3)	2 (12.5)	255 (31.9)
민주당	46 (20.9)	42 (20.9)	5 (13.2)	30 (25.6)	34 (30.6)	9 (15.3)	8 (21.6)	0 (0.0)	8 (38.1)	6 (37.5)	188 (23.5)
자유 선진당	1 (0.5)	1 (0.5)	0 (0.0)	2 (1.7)	0 (0.0)	2 (3.4)	0 (0.0)	0 (0.0)	0 (0.0)	0 (0.0)	6 (0.8)
민주 노동당	10 (5.1)	12 (6.0)	3 (7.9)	3 (2.6)	6 (5.4)	5 (8.5)	0 (0.0)	1 (100.0)	0 (0.0)	1 (6.3)	41 (5.1)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대전/ 충청	광주/ 전라	대구/ 경북	부산/울 산/경남	제주	이북/ 기타	모름/ 무응답	전체
진보 신당	0 (0.0)	2 (1.0)	0 (0.0)	2 (1.7)	2 (1.8)	0 (0.0)	0 (0.0)	0 (0.0)	0 (0.0)	0 (0.0)	6 (0.8)
창조 한국당	0 (0.0)	0 (0.0)	0 (0.0)	1 (0.9)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0.1)
국민 참여당	1 (0.5)	0 (0.0)	0 (0.0)	0 (0.0)	1 (0.9)	0 (0.0)	0 (0.0)	0 (0.0)	0 (0.0)	0 (0.0)	2 (0.3)
없음	0 (0.0)	1 (0.5)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0.1)
모름/ 무응답	79 (39.9)	78 (38.8)	14 (36.8)	40 (34.2)	40 (36.0)	17 (28.8)	18 (48.6)	0 (0.0)	6 (28.6)	7 (43.8)	299 (37.4)
전체	198 (100.0)	201 (100.0)	38 (100.0)	117 (100.0)	111 (100.0)	59 (100.0)	37 (100.0)	1 (100.0)	21 (100.0)	16 (100.0)	799 (100.0)

$\chi^2=73.885$ df=72 p=0.416

〈부표 13〉 여성을 가장 잘 대변할 것으로 판단되는 정당 * 성별

단위: 명(%)

	남성		여성		전체	
한나라당	126	(31.7)	105	(26.3)	232	(29.0)
민주당	80	(20.1)	88	(21.9)	168	(21.0)
자유선진당	3	(.7)	2	(.6)	5	(.6)
민주노동당	27	(6.7)	14	(3.5)	41	(5.1)
진보신당	3	(.8)	6	(1.5)	9	(1.1)
국민참여당	5	(1.4)	4	(.9)	9	(1.1)
없음	1	(.3)	2	(.5)	3	(.4)
모름/무응답	153	(38.4)	179	(44.7)	333	(41.6)
계	399	(100.0)	401	(100.0)	800	(100.0)

〈부표 13-1〉 여성을 가장 잘 대변할 것으로 판단되는 정당 * 출신지역

단위: 명(%)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대전/ 충청	광주/ 전라	대구/ 경북	부산/울산/ 경남	제주	이북/ 기타	모름/ 무응답	전체
한나라당	52 (26.3)	57 (28.6)	15 (39.5)	37 (31.6)	21 (18.6)	27 (45.8)	12 (32.4)	0 (0.0)	9 (42.9)	1 (6.3)	231 (28.9)
민주당	51 (25.8)	35 (17.6)	4 (10.5)	21 (17.9)	30 (26.5)	6 (10.2)	9 (24.3)	0 (0.0)	7 (33.3)	6 (37.5)	169 (21.2)
자유 선진당	1 (0.5)	2 (1.0)	0 (0.0)	1 (0.9)	0 (0.0)	1 (1.7)	0 (0.0)	0 (0.0)	0 (0.0)	0 (0.0)	5 (0.6)
민주 노동당	7 (3.5)	11 (5.5)	3 (7.9)	4 (3.4)	8 (7.1)	4 (6.8)	2 (5.4)	1 (100.0)	0 (0.0)	1 (6.3)	41 (5.1)
진보 신당	2 (1.0)	4 (2.0)	0 (0.0)	1 (0.9)	1 (0.9)	1 (1.7)	0 (0.0)	0 (0.0)	0 (0.0)	0 (0.0)	9 (1.1)
국민 참여당	1 (0.5)	2 (1.0)	0 (0.0)	2 (1.7)	2 (1.8)	1 (1.7)	0 (0.0)	0 (0.0)	0 (0.0)	0 (0.0)	8 (1.0)
없음	0 (0.0)	2 (1.0)	1 (2.6)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3 (0.4)
모름/ 무응답	84 (42.4)	86 (43.2)	15 (39.5)	51 (43.6)	51 (45.1)	19 (32.2)	14 (37.8)	0 (0.0)	5 (23.8)	8 (50.0)	333 (41.7)
전체	198 (100.0)	199 (100.0)	38 (100.0)	117 (100.0)	113 (100.0)	59 (100.0)	37 (100.0)	1 (100.0)	21 (100.0)	16 (100.0)	799 (100.0)

 $\chi^2=76.476$ df=63 p=0.118

〈부표 14〉 향후 여성기초자치단체장의 증감 여부 * 지역별

단위: 명(%)

	서울 송파구		서울 광진구		인천 중구		인천 부평구		전체	
대폭 증가해야	44	(21.9)	50	(25.1)	52	(26.0)	33	(16.7)	180	(22.5)
약간 증가해야	79	(39.4)	70	(34.8)	72	(36.0)	85	(42.4)	305	(38.2)
지금이 적당	43	(21.5)	61	(30.4)	42	(20.9)	40	(20.1)	186	(23.2)
약간 줄여야	4	(2.0)	6	(3.0)	9	(4.7)	10	(4.9)	29	(3.6)
대폭 줄여야	1	(.5)	0	(.0)	2	(1.0)	1	(.4)	4	(.5)
모름/무응답	29	(14.7)	13	(6.7)	23	(11.4)	31	(15.4)	96	(12.0)
계	200	(100.0)	200	(100.0)	200	(100.0)	200	(100.0)	800	(100.0)

〈부표 15〉 향후 여성기초자치단체장의 증감여부 * 투표 후보

단위: 명(%)

	여성후보에 투표	남성후보에 투표	모름/무응답	전체
대폭 증가해야	75 (24.5)	91 (21.0)	13 (22.1)	180 (22.5)
약간 증가해야	115 (37.4)	177 (40.7)	13 (22.8)	305 (38.2)
지금 이 적당	72 (23.4)	100 (23.1)	14 (23.5)	186 (23.2)
약간 줄여야	9 (2.8)	18 (4.2)	2 (3.6)	29 (3.6)
대폭 줄여야	0 (.0)	4 (.9)	0 (.0)	4 (.5)
모름/무응답	36 (11.8)	44 (10.1)	16 (27.9)	96 (12.0)
계	307 (100.0)	434 (100.0)	59 (100.0)	800 (100.0)

**주 : 줄여야 한다는 ‘대폭 줄여야’와 ‘약간 줄여야’의 응답 합계 값임.

〈부표 15-1〉 향후 여성기초자치단체장의 증감여부 * 소득별

단위: 명(%)

	150만원 미만	150~300만원 미만	300~500만원 미만	500~700만원 미만	700만원 이상	모름/무응답	전체
대폭 증가해야한다	24 (14.0)	40 (17.5)	61 (25.5)	22 (30.6)	10 (43.5)	23 (37.7)	180 (22.5)
약간 증가해야한다	52 (30.4)	94 (41.2)	100 (41.8)	31 (43.1)	9 (31.0)	19 (31.1)	305 (38.1)
지금 이 적당하다	49 (28.7)	65 (28.5)	46 (19.2)	9 (12.5)	6 (20.7)	10 (16.4)	185 (23.1)
약간 줄여야한다	8 (4.7)	5 (2.2)	9 (3.8)	4 (5.6)	1 (3.4)	2 (3.3)	29 (3.6)
대폭 줄여야한다	1 (0.6)	0 (0.0)	2 (0.8)	1 (1.4)	0 (0.0)	0 (0.0)	4 (0.5)
모름/무응답	37 (21.6)	24 (10.5)	21 (8.8)	5 (6.9)	3 (10.3)	7 (11.5)	97 (12.1)
전체	171(100.0)	228(100.0)	239(100.0)	72(100.0)	29(100.0)	61(100.0)	800(100.0)

$\chi^2=59.304$ df=25 p=0.000

〈부표 15-2〉 향후 여성기초자치단체장의 증감여부 * 지지당별

단위: 명(%)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 선진당	민주 노동당	진보 신당	국민 참여당	미래 연합	기권했다	모름/ 무응답	전체
대폭 증가해야한다	62 (19.1)	82 (27.2)	0 (0.0)	7 (28.0)	2 (25.0)	2 (18.2)	0 (0.0)	2 (14.3)	23 (21.3)	108 (22.5)
약간 증가해야한다	125 (38.5)	118 (39.1)	3 (42.9)	10 (40.0)	4 (50.0)	6 (54.5)	0 (0.0)	7 (50.0)	32 (29.6)	305 (38.1)
지금이 적당 하다	88 (27.1)	60 (19.9)	2 (28.6)	5 (20.0)	1 (12.5)	2 (18.2)	1 (100.0)	1 (7.1)	26 (24.1)	186 (23.2)
약간 줄어야 한다	9 (2.8)	14 (4.6)	0 (0.0)	0 (0.0)	0 (0.0)	0 (0.0)	0 (0.0)	1 (7.1)	6 (5.6)	30 (3.7)
대폭 줄어야한다	1 (0.3)	1 (0.3)	1 (14.3)	0 (0.0)	0 (0.0)	0 (0.0)	0 (0.0)	1 (7.1)	0 (0.0)	4 (0.5)
모름/무응답	40 (12.3)	27 (8.9)	1 (14.3)	3 (12.0)	1 (12.5)	1 (9.1)	0 (0.0)	2 (14.3)	21 (19.4)	96 (12.0)
전체	325 (100.0)	302 (100.0)	7 (100.0)	25 (100.0)	8 (100.0)	11 (100.0)	1 (100.0)	14 (100.0)	108 (100.0)	801 (100.0)

 $\chi^2=72.551$ df=40 p=0.001

〈부표 15-3〉 향후 여성기초자치단체장의 증감여부 * 출신지역

단위: 명(%)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대전/ 충청	광주/ 전라	대구/ 경북	부산/울 산/경남	제주	이북/ 기타	모름/ 무응답	전체
대폭 증가해야한다	45 (22.5)	44 (22.0)	6 (15.4)	24 (20.3)	32 (28.6)	15 (25.9)	6 (15.8)	1 (100.0)	3 (14.3)	5 (31.3)	181 (22.5)
약간 증가해야한다	95 (47.5)	83 (41.5)	16 (41.0)	37 (31.4)	37 (33.0)	17 (29.3)	10 (26.3)	0 (0.0)	8 (38.1)	2 (12.5)	305 (38.0)
지금이적당 하다	33 (16.5)	43 (21.5)	9 (23.1)	34 (28.8)	29 (25.9)	17 (29.3)	13 (34.2)	0 (0.0)	3 (14.3)	5 (31.3)	186 (23.2)
약간 줄어야한다	4 (2.0)	8 (4.0)	1 (2.6)	7 (5.9)	3 (2.7)	3 (5.2)	1 (2.6)	0 (0.0)	2 (9.5)	0 (0.0)	29 (3.6)
대폭 줄어야한다	0 (0.0)	0 (0.0)	1 (2.6)	2 (1.7)	1 (0.9)	0 (0.0)	0 (0.0)	0 (0.0)	0 (0.0)	0 (0.0)	4 (0.5)
모름/무응답	23 (11.5)	22 (11.0)	6 (15.4)	14 (11.9)	10 (8.9)	6 (10.3)	8 (21.1)	0 (0.0)	5 (23.8)	4 (25.0)	98 (12.2)
전체	200 (100.0)	200 (100.0)	39 (100.0)	118 (100.0)	112 (100.0)	58 (100.0)	38 (100.0)	1 (100.0)	21 (100.0)	16 (100.0)	803 (100.0)

 $\chi^2=56.873$ df=45 p=0.110

〈부표 16〉 향후 여성기초자치단체장 증가를 위한 노력 * 지역별

단위: 명(%)

	서울 송파구	서울 광진구	인천 중구	인천 부평구	전체
여성후보 발굴 및 육성	40 (32.3)	41 (34.0)	37 (30.2)	32 (27.4)	150 (31.0)
정당의 여성후보 공천 확대	27 (22.0)	22 (18.3)	25 (20.5)	21 (17.8)	95 (19.7)
개인 여성들의 적극적인 도전	25 (20.0)	24 (20.1)	26 (20.8)	21 (18.2)	96 (19.8)
유권자의 의식개선	16 (13.0)	16 (13.5)	15 (12.4)	25 (21.2)	72 (15.0)
법적, 제도적 보장	11 (9.1)	14 (11.6)	14 (11.5)	16 (13.8)	56 (11.5)
모름/무응답	4 (3.6)	3 (2.4)	6 (4.6)	2 (1.6)	15 (3.1)
계	123 (100.0)	120 (100.0)	124 (100.0)	118 (100.0)	485 (100.0)

〈부표 17〉 여성기초자치단체장의 증가로 인한 사회의 변화 * 지역별

단위: 명(%)

	서울 송파구	서울 광진구	인천 중구	인천 부평구	전체
사회 각 분야 여성 참여 증대	69 (34.4)	76 (38.2)	59 (29.5)	59 (29.5)	263 (32.9)
생활정치 활성화	39 (19.6)	50 (25.0)	52 (26.1)	49 (24.6)	191 (23.8)
부정부패 축소	44 (22.1)	40 (20.0)	44 (22.2)	50 (25.2)	179 (22.4)
대립과 갈등의 정치풍토 개선	16 (8.2)	16 (7.8)	13 (6.6)	16 (7.9)	61 (7.6)
남녀평등	0 (.0)	0 (.0)	1 (.5)	0 (.0)	1 (.1)
복지정책 개선	0 (.0)	0 (.0)	1 (.5)	0 (.0)	1 (.1)
부정부패 증가	0 (.0)	0 (.0)	1 (.3)	0 (.0)	1 (.1)
모름/무응답	31 (15.6)	18 (8.9)	29 (14.3)	26 (12.8)	103 (12.9)
계	200 (100.0)	200 (100.0)	200 (100.0)	200 (100.0)	800 (100.0)

〈부표 18〉 당 · 낙선지역 * 여성기초자치단체장의 증가로 인한 사회의 변화

단위: 명(%)

	당선지역*		낙선지역		전체	
사회 각 분야 여성 참여 증대	128	(31.9)	135	(33.9)	263	(32.9)
생활정치 활성화	88	(22.1)	102	(25.5)	191	(23.8)
부정부패 축소	95	(23.6)	85	(21.1)	179	(22.4)
대립과 갈등의 정치풍토 개선	32	(8.1)	29	(7.2)	61	(7.6)
남녀평등	0	(.0)	1	(.2)	1	(.1)
복지정책 개선	0	(.0)	1	(.2)	1	(.1)
부정부패 증가	0	(.0)	1	(.2)	1	(.1)
모름/무응답	57	(14.2)	46	(11.6)	103	(12.9)
계	400	(100.0)	400	(100.0)	800	(100.0)

〈부표 19〉 여성시도지사 찬반 여부 * 지역별

단위: 명(%)

	서울 송파구		서울 광진구		인천 중구		인천 부평구		전체	
찬성	158	(79.0)	163	(81.6)	154	(77.2)	173	(86.5)	649	(81.1)
반대	21	(10.3)	18	(8.9)	26	(12.8)	12	(6.1)	76	(9.5)
모름/무응답	21	(10.7)	19	(9.5)	20	(10.0)	15	(7.3)	75	(9.4)
계	200	(100.0)	200	(100.0)	200	(100.0)	200	(100.0)	800	(100.0)

〈부표 20〉 여성시도지사 당선 찬반 여부 * 연령별

단위: 명(%)

	만19~29세		만30~39세		만40~49세		50세이상		전체	
찬성	118	(91.9)	149	(87.0)	159	(79.7)	223	(74.0)	649	(81.1)
반대	6	(4.9)	8	(4.9)	21	(10.4)	41	(13.6)	76	(9.5)
모름/무응답	4	(3.2)	14	(8.0)	20	(9.8)	37	(12.4)	75	(9.4)
계	128	(100.0)	171	(100.0)	199	(100.0)	301	(100.0)	800	(100.0)

〈부표 21〉 여성시도지사 당선 찬반 여부 * 학력별

단위: 명(%)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	모름/무응답	전체
찬성	98 (70.6)	214 (79.3)	331 (86.2)	6 (78.7)	649 (81.1)
반대	15 (10.6)	31 (11.4)	30 (7.8)	1 (10.6)	76 (9.5)
모름/무 응답	26 (18.8)	25 (9.3)	23 (6.0)	1 (10.7)	75 (9.4)
계	138 (100.0)	270 (100.0)	384 (100.0)	8 (100.0)	800 (100.0)

〈부표 21-1〉 여성시도지사 당선 찬반 여부 * 출신지역

단위: 명(%)

	서울	인천/경기	강원	대전/충청	광주/전라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제주	이북/기타	모름/무응답	전체
찬성이다	168 (84.8)	162 (81.0)	29 (78.4)	88 (74.6)	91 (81.3)	50 (83.3)	30 (78.9)	1 (100.0)	18 (85.7)	12 (75.0)	649 (81.0)
반대한다	14 (7.1)	20 (10.0)	4 (10.8)	17 (14.4)	12 (10.7)	5 (8.3)	3 (7.9)	0 (0.0)	2 (9.5)	0 (0.0)	77 (9.6)
모름/무응답	16 (8.1)	18 (9.0)	4 (10.8)	13 (11.0)	9 (8.0)	5 (8.3)	5 (13.2)	0 (0.0)	1 (4.8)	4 (25.0)	75 (9.4)
전체	198 (100.0)	200 (100.0)	37 (100.0)	118 (100.0)	112 (100.0)	60 (100.0)	38 (100.0)	1 (100.0)	21 (100.0)	16 (100.0)	801 (100.0)

$\chi^2=13.875$ df=18 p=0.737

〈부표 21-2〉 여성시도지사 당선 찬반 여부 * 투표정당

단위: 명(%)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미래연합	기권했다	모름/무응답	전체
찬성이다	260 (80.2)	253 (83.5)	5 (71.4)	23 (95.8)	6 (75.0)	10 (100.0)	1 (100.0)	9 (64.3)	81 (75.0)	648 (81.1)
반대이다	39 (12.0)	25 (8.3)	1 (14.3)	0 (0.0)	2 (25.0)	0 (0.0)	0 (0.0)	2 (14.3)	7 (6.5)	76 (9.5)
모름/무응답	25 (7.7)	25 (8.3)	1 (14.3)	1 (4.2)	0 (0.0)	0 (0.0)	0 (0.0)	3 (21.4)	20 (18.5)	75 (9.4)
전체	324 (100.0)	303 (100.0)	7 (100.0)	24 (100.0)	8 (100.0)	10 (100.0)	1 (100.0)	14 (100.0)	108 (100.0)	799 (100.0)

$\chi^2=27.839$ df=16 p=0.033

〈부표 22〉 여성시도지사 당선 예상 시기 * 성별

단위: 명(%)

	남성		여성		전체	
앞으로 5년 이내	173	(54.2)	199	(60.4)	372	(57.3)
앞으로 10년 이내	93	(29.1)	71	(21.5)	164	(25.2)
앞으로 20년 이내	11	(3.6)	8	(2.5)	20	(3.0)
앞으로 30년 이내	2	(.7)	0	(.0)	2	(.4)
모름/무응답	40	(12.4)	52	(15.7)	91	(14.1)
계	319	(100.0)	330	(100.0)	649	(100.0)

〈부표 23〉 여성시도지사 당선 예상 시기 * 연령별

단위: 명(%)

	만19~29세		만30~39세		만40~49세		50세이상		전체	
앞으로 5년 이내	67	(57.2)	89	(59.9)	95	(60.1)	120	(53.7)	372	(57.3)
앞으로 10년 이내	40	(33.6)	41	(27.4)	43	(26.8)	41	(18.2)	164	(25.2)
앞으로 20년 이내	4	(3.5)	10	(7.0)	4	(2.6)	1	(.4)	20	(3.0)
앞으로 30년 이내	2	(1.3)	1	(.6)	0	(.0)	0	(.0)	2	(.4)
모름/무응답	5	(4.5)	8	(5.1)	17	(10.5)	62	(27.7)	91	(14.1)
계	118	(100.0)	149	(100.0)	159	(100.0)	223	(100.0)	649	(100.0)

〈부표 24〉 여성시도지사 당선 예상 시기 * 학력별

단위: 명(%)

	중졸 이하		고졸		대재 이상		모름 /무응답		전체	
앞으로 5년 이내	46	(47.2)	130	(60.7)	192	(58.1)	4	(58.7)	372	(57.3)
앞으로 10년 이내	19	(19.7)	48	(22.5)	95	(28.6)	2	(26.8)	164	(25.2)
앞으로 20년 이내	0	(.0)	5	(2.5)	14	(4.3)	0	(.0)	20	(3.0)
앞으로 30년 이내	0	(.0)	0	(.0)	2	(.7)	0	(.0)	2	(.4)
모름/무응답	32	(33.1)	31	(14.3)	27	(8.2)	1	(14.5)	91	(14.1)
계	98	(100.0)	214	(100.0)	331	(100.0)	6	(100.0)	649	(100.0)

〈부표 25〉 여성시도지사 당선 예상 시기 * 소득별

단위: 명(%)

	150만원미만	150~299만원	300~499만원	500만원이상	모름/무응답	전체
앞으로 5년 이내	67 (55.9)	98 (52.5)	127 (61.8)	53 (60.0)	27 (55.8)	372 (57.3)
앞으로 10년 이내	21 (17.9)	50 (26.5)	56 (27.2)	28 (31.6)	9 (18.4)	164 (25.2)
앞으로 20년 이내	1 (.9)	8 (4.0)	4 (1.7)	4 (4.1)	4 (8.0)	20 (3.0)
앞으로 30년 이내	0 (.0)	1 (.5)	2 (.7)	0 (.0)	0 (.0)	2 (.4)
기타	30 (25.4)	31 (16.5)	18 (8.6)	4 (4.3)	9 (17.8)	91 (14.1)
계	120 (100.0)	187 (100.0)	206 (100.0)	88 (100.0)	48 (100.0)	649 (100.0)

〈부표 25-1〉 여성시도지사 당선 예상 시기 * 출신지역

단위: 명(%)

	서울	인천/경기	강원	대전/충청	광주/전라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제주	이북/기타	모름/무응답	전체
앞으로 5년 이내	96 (57.1)	86 (52.8)	22 (75.9)	49 (55.1)	46 (50.0)	38 (76.0)	16 (51.6)	1 (100.0)	10 (55.6)	9 (75.0)	373 (57.1)
앞으로 10년 이내	49 (29.2)	45 (27.6)	6 (20.7)	23 (25.8)	23 (25.0)	9 (18.0)	5 (16.1)	0 (0.0)	4 (22.2)	0 (0.0)	164 (25.1)
앞으로 20년 이내	5 (3.0)	5 (3.1)	0 (0.0)	4 (4.5)	5 (5.4)	0 (0.0)	1 (3.2)	0 (0.0)	0 (0.0)	1 (8.3)	21 (3.2)
앞으로 30년 이내	2 (1.2)	0 (0.0)	0 (0.0)	0 (0.0)	1 (1.1)	0 (0.0)	0 (0.0)	0 (0.0)	0 (0.0)	0 (0.0)	3 (0.5)
모름/무응답	16 (9.5)	27 (16.6)	1 (3.4)	13 (14.6)	17 (18.5)	3 (6.0)	9 (29.0)	0 (0.0)	4 (22.2)	2 (16.7)	92 (14.1)
전체	168 (100.0)	163 (100.0)	9 (100.0)	89 (100.0)	92 (100.0)	50 (100.0)	31 (100.0)	1 (100.0)	18 (100.0)	12 (100.0)	653 (100.0)

 $\chi^2=40.228$ df=36 p=0.288

〈부표 25-2〉 여성시도지사 당선 예상 시기 * 투표정당

단위: 명(%)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 선진당	민주 노동당	진보 신당	국민 참여당	미래연합	기권했다	모름/ 무응답	전체
앞으로 5년 이내	143 (55.0)	146 (57.7)	4 (80.0)	16 (72.7)	4 (66.7)	6 (54.5)	0 (0.0)	8 (80.0)	45 (55.6)	372 (57.3)
앞으로 10년 이내	62 (23.8)	73 (28.9)	1 (20.0)	6 (27.3)	2 (33.3)	4 (36.4)	0 (0.0)	2 (20.0)	14 (17.3)	164 (25.3)
앞으로 20년 이내	7 (2.7)	7 (2.8)	0 (0.0)	0 (0.0)	0 (0.0)	1 (9.1)	0 (0.0)	0 (0.0)	4 (4.9)	19 (2.9)
앞으로 30년 이내	1 (0.4)	2 (0.8)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3 (0.5)
모름/무응답	47 (18.1)	25 (9.9)	0 (0.0)	0 (0.0)	0 (0.0)	0 (0.0)	1 (100.0)	0 (0.0)	18 (22.2)	91 (14.0)
전체	260 (100.0)	253 (100.0)	5 (100.0)	22 (100.0)	6 (100.0)	11 (100.0)	1 (100.0)	10 (100.0)	81 (100.0)	649 (100.0)

 $\chi^2=35.942$ df=32 p=0.289

〈부표 26〉 정당의 여성후보 지원 정도 * 지지정당

단위: 명(%)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 선진당	민주 노동당	진보 신당	국민 참여당	미래 연합	기권 했다	모름/ 무응답	전체
매우 적극적이었다	27 (8.3)	12 (4.0)	0 (0.0)	1 (4.0)	0 (0.0)	0 (0.0)	0 (0.0)	1 (7.1)	7 (6.4)	48 (6.0)
대체로 적극적이었다	63 (19.3)	57 (18.9)	4 (57.1)	4 (16.0)	3 (37.5)	3 (30.0)	1 (100.0)	2 (14.3)	16 (14.7)	153 (19.1)
보통이었다	145 (44.5)	145 (48.0)	2 (28.6)	10 (40.0)	2 (25.0)	3 (30.0)	0 (0.0)	6 (42.9)	46 (42.2)	359 (44.8)
별로 적극적이지 못했다	33 (10.1)	27 (8.9)	1 (14.3)	5 (20.0)	1 (12.5)	2 (20.0)	0 (0.0)	3 (21.4)	12 (11.0)	84 (10.5)
전혀 적극적이지 못했다	5 (1.5)	4 (1.3)	0 (0.0)	1 (4.0)	0 (0.0)	0 (0.0)	0 (0.0)	0 (0.0)	0 (0.0)	10 (1.2)
모름/무응답	53 (16.3)	57 (18.9)	0 (0.0)	4 (16.0)	2 (25.0)	2 (20.0)	0 (0.0)	2 (14.3)	28 (25.7)	148 (18.5)
전체	326 (100.0)	302 (100.0)	7 (100.0)	25 (100.0)	8 (100.0)	10 (100.0)	1 (100.0)	14 (100.0)	109 (100.0)	802 (100.0)

 $\chi^2=37.059$ df=40 p=0.603

문2. ○○님께서 이번 지방선거의 기초의회 비례대표제 투표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셨습니까?

- | | | |
|----------|----------------------|----------|
| 1. 한나라당 | 4. 민주노동당 | 7. 국민참여당 |
| | 10. 기권했다(읽어주지 말 것) | |
| 2. 민주당 | 5. 진보신당 | 8. 미래연합 |
| | 99. 모름/무응답(읽어주지 말 것) | |
| 3. 자유선진당 | 6. 창조한국당 | 9. 평화민주당 |

문3. ○○님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찍을 구청장 후보를 최종적으로 언제 결정하셨습니까?

- | | |
|-------------------|----------------------------|
| 1. 투표당일 | 4. 투표 2~3주전(선거운동개시일 벽보를보고) |
| 2. 투표 2~3일전 | 5. 투표 한달이전 |
| 3. 투표 1주일전(홍보물받고) | 99. 모름/무응답(읽어주지 말 것) |

문4. ○○님의 지역구에 여성구청장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이것이 선거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십니까?(하나만)

- | | |
|------------------|----------------------|
| 1. 깨끗한 정치 구현에 기여 | 4. 정당차원의 여성정책 실현 |
| 2. 여성정치참여 확대 | 5. 별 의미 없음 |
| 3. 남녀평등 실현에 기여 | 99. 모름/무응답(읽어주지 말 것) |

문5. ○○님께서 지역구에 출마한 여성구청장 후보를 언제 알게 되셨습니까?

- | | |
|-----------------|--------------------------|
| 1. 이번 지방선거 이전부터 | 3. 여성후보가 출마한지 몰랐다 ☞ 문8으로 |
| 2.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 99. 모름/무응답(읽어주지 말 것) |

문6. ○○님께서 여성구청장 후보에게 투표했습니까?

- | | |
|----------------|----------------------|
| 1. 예 ☞ 문6-1번으로 | 2. 아니오 ☞ 문8으로 |
| | 99. 모름/무응답(읽어주지 말 것) |

문6-1. (여성후보에게 투표한 경우만) 여성후보에게 투표하신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만)

- | | |
|---------------|---------------------|
| 1. 인물 ☞ 문6-2로 | 3. 공약 ☞ 문6-4로 |
| 2. 정당 ☞ 문6-3로 | 4. 모름/무응답(읽어주지 말 것) |

문6-2. (투표 기준이 인물인 경우만) 인물을 평가할 때 가장 많이 고려한 요소는 무엇입니까? (하나만)

- | | |
|--------------|-----------------------|
| 1. 평소의 지역구활동 | 4. 여성이기 때문에 |
| 2. 인지도 및 명망 | 5. 기타() (읽어주지 말 것) |
| 3. 학력 및 경력 | 99. 모름/무응답(읽어 주지 말 것) |

문6-3. (투표 기준이 정당인 경우만) 정당을 평가하는데 가장 많이 고려한 요소는 무엇입니까? (하나만)

1. 정책 및 공약 4. 출신지역
2. 집권 정당이라는 것 5. 기타 () (읽어주지 말 것)
3. 집권정당을 견제할 수 있는 야당이라는 것
99. 모름/무응답(읽어 주지 말 것)

문6-4. (투표 기준이 공약인 경우만) 공약을 보고 투표하셨다면, 어떤 공약이었습니까?

문8, 9 공통보기	1. TV	5. 후보자 유세 및 전화선거운동
	2. 신문	6. 주위 사람들과의 대화
	3. 인터넷	7. 기타 () (읽어주지 말 것)
	4. 선관위 홍보물 및 선전벽보	99. 모름/무응답(읽어주지 말 것)

문7. ○○님께서 여성구청장 후보를 아는데 어떤 매체가 가장 도움이 되었습니까? (하나만)

위 공통보기에서 선택: _____

문8. (전체에게) ○○님께서 구청장 후보를 결정하는데 어떤 매체가 가장 도움이 되었습니까? (하나만)

위 공통보기에서 선택: _____

문9.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떤 문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만)

1. 천안함 사건 6. 교육개혁
2. 4대강 사업 7. 이명박 정부/집권층의 독선
3. 세종시 이전 8. 기타 () (읽어주지 말 것)
4. 친환경 무상급식 99. 모름/무응답(읽어주지 말 것)
5. 집회결사 및 표현의 자유 문제

문10.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성후보에 대한 정당의 지원활동이 어떠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적극적이었다 4. 별로 적극적이지 못했다
2. 대체로 적극적이었다 5. 전혀 적극적이지 못했다
3. 보통이었다 99. 모름/무응답(읽어주지 말 것)

문11. 이번 선거에서 여성정책에 가장 앞선 정당은 어느 정당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
| 1. 한나라당 | 4. 민주노동당 |
| 2. 민주당 | 7. 국민참여당 |
| 3. 자유선진당 | 5. 진보신당 |
| | 8. 기타() |
| | 6. 창조한국당 |
| | 99. 모름/무응답(읽어주지 말 것) |

문12. 어느 정당이 앞으로 여성들을 가장 잘 대변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 | |
|----------|----------------------|
| 1. 한나라당 | 4. 민주노동당 |
| 2. 민주당 | 7. 국민참여당 |
| 3. 자유선진당 | 5. 진보신당 |
| | 8. 기타() |
| | 6. 창조한국당 |
| | 99. 모름/무응답(읽어주지 말 것) |

문13. 이번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전체의 2.6%인 6명의 여성기초자치단체장이 탄생하였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1. 대폭 증가해야한다 ☞ 문13-1로 | 4. 약간 줄어야한다 ☞ 문14로 |
| 2. 약간 증가해야한다 ☞ 문13-1로 | 5. 대폭 줄어야한다 ☞ 문14로 |
| 3. 지금이 적당하다 ☞ 문14로 | 99. 모름/무응답(읽어주지 말 것) ☞ 문14로 |

문13-1. (여성기초자치단체장이 대폭 증가 또는 약간 증가해야 한다고 응답한 경우만) 그렇다면, 여성기초자치단체장의 수가 증가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만)

- | | |
|--------------------|----------------------|
| 1. 법적, 제도적 보장 | 5. 유권자의 인식개선 |
| 2. 정당의 여성후보 공천 확대 | 6. 기타 () (읽어주지 말 것) |
| 3. 여성후보 발굴 및 육성 | 99. 모름/무응답(읽어주지 말 것) |
| 4. 개인 여성들의 적극적인 도전 | |

문14. 여성 기초자치단체장 수가 많아지면 어떤 변화가 예상되십니까? (하나만)

- | | |
|-----------------------|----------------------|
| 1. 사회 각 분야에 여성의 참여 확대 | 4. 생활정치의 활성화 |
| 2. 부정부패의 축소 | 5. 기타 () (읽어주지 말 것) |
| 3. 대립과 갈등의 정치풍토 개선 | 99. 모름/무응답(읽어주지 말 것) |

문15. ○○님께서 여성 시도지사 출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 |
|------------------|-----------------------------|
| 1. 찬성이다 ☞ 문15-1로 | 99. 모름/무응답(읽어주지 말 것) ☞ DQ1로 |
| 2. 반대한다 ☞ DQ1로 | |

문15-1. (여성 시도지사 출마에 대해 찬성인 경우만) 찬성하신다면, 여성 시도지사가 언제쯤 나올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 | | |
|---------------|-----------------------|
| 1. 앞으로 5년 이내 | 4. 앞으로 30년 이내 |
| 2. 앞으로 10년 이내 | 5. 기타 () (읽어주지 말 것) |
| 3. 앞으로 20년 이내 | 99. 모름/무응답 (읽어주지 말 것) |

※ 마지막으로 전산통계를 위한 질문입니다.

DQ1. 현재 ○○님께서 하고 계신 직업은 무엇입니까?

- | | | |
|--------|------------|----------|
| 1. 자영업 | 4. 가정주부 | 7. 무직 |
| 2. 사무직 | 5. 학생 | 8. 기타() |
| 3. 생산직 | 6. 전문직/공무원 | |

DQ2. ○○님께서의 출신지는 어디인지요?

- | | | |
|----------|----------|-------------|
| 1. 서울 | 4. 대전/충청 | 7. 부산/울산/경남 |
| 2. 인천/경기 | 5. 광주/전라 | 8. 제주 |
| 3. 강원 | 6. 대구/경북 | 9. 이북/기타 |

DQ3. ○○님께서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습니까?

- | | | |
|----------|-------|--------------|
| 1. 중졸 이하 | 2. 고졸 | 3. 대학교 재학 이상 |
|----------|-------|--------------|

DQ4. ○○님께서의 결혼 상태는 무엇인가요?

- | | |
|---------------|--------------|
| 1. 미혼 ☞ DQ6으로 | 2. 기혼 ☞ DQ5로 |
|---------------|--------------|

DQ5. (기혼만) ○○님께서의 자녀 구성은 어떻게 되시나요?

- | | |
|--------|-------------|
| 1. 아들만 | 3. 아들, 딸 모두 |
| 2. 딸만 | 4. 없음 |

DQ6. 귀댁의 월 평균 가구소득은 얼마나 되시나요?

- | | | |
|-----------------|-----------------|-------------|
| 1. 150만원 미만 | 3. 300~500만원 미만 | 5. 700만원 이상 |
| 2. 150~300만원 미만 | 4. 500~700만원 미만 | |

● 설문에 참여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

Abstract

A study on a political awareness of male and female voters and a type of voting in 2010 local election

Won-Hong Kim
Eun-Kyung Kim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hange of a voting type through surveying and analyzing a political awareness of men and women voters and a type of voting in a capital area where women ran the office, facing a local election in 2010. This study is to be utilized as a basic and policy-making report in order to form the power of women's politicalization in future. To do so, This study studied network activities among voters, representation of women, and association for women indicated in the result of 2010 local election in its second chapter. The study examined a political awareness of men and women voters and a type of voting of 2010 local election in its third chapter. The study also examined the roles that voters themselves, government, associations for women, and political parties

should play. For speaking the results, significant obstacles, such as a lack of concern for politics for women, a shortage of women politicians, a lack of institution related to election, and an insufficient support in women's participating political field, are found to be remained in the study. Active participation for policy improvements on women voters in the first place as well as active progress of women's movement should be made as a method of its solution. Women's political power should be reinforced in order to expand women's participation in the political area through the network activities of associations for women, political parties. Besides, an education for males to improve awareness for females should be needed.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youth to have a compulsory education for citizenship to improve a political and feministic awareness in our life.

2010 연구보고서(수시과제)-1

2010 지방선거와 남녀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2010년 9월 28일 인쇄

2010년 9월 30일 발행

발행인 : 김 태 현

발행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76(불광동 1-363)

전화 / 02-3156-7000 (代)

인쇄처 : 도서출판 한 학 문 화

전화 / 02-313-7593 (代)

ISBN 978-89-8491-342-4 93330

<정가 8,500원>